

건국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I 1번

☞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가]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적 단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전제는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슬로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할까? 즉,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이에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간명하게 설명한다.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들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려 깊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중략)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다. 그 당시 한 학생에게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의외의 답이 나왔다.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의대 진학을 결정하는 학생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 고등학교 「독서」

[나]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하단 말인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아 왔다. 부처는 해탈(解脫)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또 예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고 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스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 비어 있게 하는 것, 자기의 자아(에고)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라 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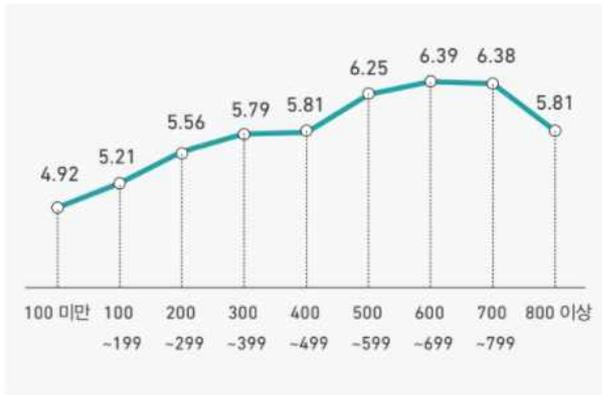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항상 걱정하게 된다.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쳐 만성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 더 잘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진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협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나의 존재 능력, 나의 기본적 힘의 발현(發現)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나에 근거하고 있다.

- 고등학교 「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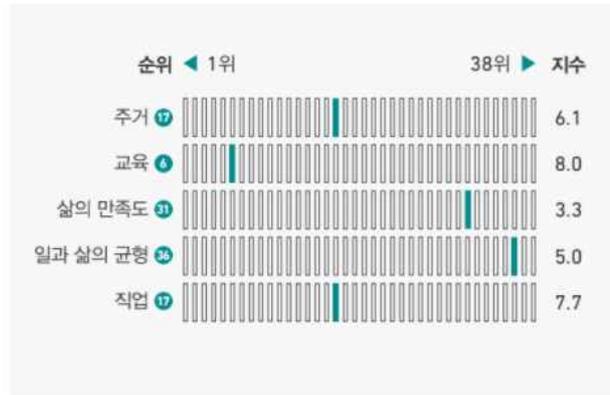
[다]

[도표 1]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는 0 ~ 10
 ※ 소득 기준: 월 소득, 단위: 만원
 (통계 개발원, 2015)

[도표 2] 우리나라의 '더 나은 삶의 지수' 순위



※ 지수(지수는 10에 가까울수록 좋음)
 ※ 순위는 OECD 38개국 중의 순위(우리나라 종합 순위는 28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2016)

-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독해]

(가) 타인의 평가를 중심으로 선택 → 행복보다는 명분을 위한 삶: Bad(불행)

(나) 존재 중심의 삶 → 불안과 걱정이 없이 안정감을 갖고 주체적 삶을 살아간다: Good(행복)

(다) <도표1>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는다.

<도표2> 물질적 기반이 잘 잡혀있더라도 비물질적 부분의 준비가 미흡하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다.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통합	자기 만족을 위한 주체적 삶	행복
	(가)	타인 중심의 삶 → 명분을 위한 삶	불행
	(나)	존재 중심의 삶 →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	행복
대상	<도표1>	물질이 행복을 반드시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
	<도표2>	물질적 만족 > 비물질적 만족	불행

[예시답안] 517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통합	자기 만족을 위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기준 상(가)	제시문 (가)에 나타나듯, 타인의 평가를 위해 살아가는 명분 중심의 삶은 행복, 즉 쾌락을 누릴 수 없고,
	기준 상(나)	마찬가지로 (나)에 나오듯, 소유가 아닌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야 안정적으로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곧 행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2	주장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행복한 삶을 위한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상 1	<도표 2>를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주거, 교육, 직업이라는 물질 조건에서 앞서고 있지만,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비물질적 부분에서 뒤처지는 바람에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대상 2	이러한 기조는 <도표 1>에서도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 만족도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성이 보이지만, 가장 많은 물질을 소유한 월 소득 800만원 이상의 구간을 보면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적용	이처럼 남에게 보여주는 물질적 소유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행복을 구가할 수 없는 삶이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 따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가]와 [나]는 모두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 [가]에는 타인의 평가와 기준으로 명분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과 개인 본연의 구체적 경험과 쾌락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삶’이 대비되어 있다. 이 두 삶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저자는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자신의 관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사회적 가치 등을 좇아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나]에서도 ‘소유’하는 인간과 ‘존재’하는 인간을 대비함으로써,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존재 그 자체로서의 삶을 성찰하고 주체성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

타인의 시선이나 객관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두 도표를 바라본다면, [도표 1], [도표 2]에서 공통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표 1]은 물질적인 것이 정신적인 ‘만족도’를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도표 2]는 물질적인 환경의 발달이 반드시 정신적 영역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제 1]에서는 [가]와 [나]의 논지를 소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표의 지표들이 주는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학 문항해설]

[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 도표를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즉, [다]에 제시된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도표 1]’와 ‘우리나라의 더 나은 삶의 지수 순위[도표 2]’에서 보이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서술해야 한다.

[가]와 [나]는 모두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다. [가]에는 타인의 평가와 기준으로 명분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과 개인 본연의 구체적 경험과 쾌락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삶’이 대비되어 있다. 이 두 삶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저자는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자신의 관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사회적 가치 등을 좇아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다. 한편 [나]에서도 ‘소유’하는 인간과 ‘존재’하는 인간을 대비함으로써,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존재 그 자체로서의 삶을 성찰하고 주체성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다. [가]와 [나]에 나타난 삶에 대한 태도를 요약하자면, 타인의 시선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이나 ‘소유’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주체성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에는 도표가 두 개 제시되어 있다. [도표 1]은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인데, ‘소득’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삶의 만족도’와 어떤 상관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이다. [도표 1]을 보면 소득 800만 원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나, 그 이상이 되면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득’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한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표 2]에는 OECD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삶의 지수’를 조사한 결과와 순위가 제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28위인데, 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이 ‘주거, 교육, 직업’이며,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은 30위권 밖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이 38개국임을 상기한다면, ‘주거, 직업’은 평균 정도이고, ‘교육’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기준으로 평균 혹은 그 이상을 보이는 이 세 지표는 모두

물질적 환경과 관련된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하위권을 기록한 두 지표는 모두 정신적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도표 2]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물질적 환경은 OECD 평균 혹은 그 이상을 이루었으나, 그에 상응할 만한 우리의 정신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 채점기준]

[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두 도표를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다]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지문을 근거 삼아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① [가]와 [나]의 핵심 관점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 [가]는 타인의 평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가치 있는 삶'과 자신만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대립시키고 있으며, [나]는 소유와 존재의 대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자기 능력을 실현하는 주체적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는 글이다.
	② [가]와 [나]의 핵심 개념어를 잘 파악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나? [가]의 핵심 개념어는 '가치'와 '행복'이지만 이것의 내용인 인정과 평가, 경험과 쾌락을 서술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나]의 핵심 개념어는 '소유'와 '존재'로 논점을 위해 집착과 불안, 주체성과 나의 실현을 활용할 수 있다. 두 지문은 공통적으로 타자의 평가와 명분에 매달리는 수동적 삶이 아니라 내 경험과 만족을 중시하는 주체적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③ [다]의 두 도표 핵심 내용을 파악하였는가? [도표 1]은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도 비례해서 상승하지만 일정 단계에 이르면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도표 2]는 이와 연관된 것으로 가치와 소유에 해당하는 교육, 주거 등의 순위와 지수가 높음에도 나의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은 거의 최하위에 있는 역설을 잘 보여준다.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 서술	④ [가]와 [나]는 두 가지 삶의 태도와 기준에 관한 것으로 대립과 주장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의 실제적 정당성을 [다]의 [도표 1]을 통해 제시하고 [도표 2]의 항목에 연결해 현상을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도표의 현상적 분석에 머물면 안 되고, [가]와 [나]의 공통적 문제의식과 관점을 이해한 후 각 도표가 의미하는 바를 이런 주장의 근거로 잘 활용해야 한다. [도표 1]과 [도표 2]는 비슷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다소 항목이 추상적이므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도표 1]에서는 물질적 소유나 이를 통한 과시가 삶의 만족도, 즉 행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도표 2]에서는 평판이나 소유 가치와 연관되는 항목 순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만, 내 존재와 연관되는 삶의 만족도나 일과 삶의 균형이 떨어짐을 근거로 왜 나의 행복이 명분보다 중요하고, 소유보다 나의 고유성을 실현하면서 주체적으로 사는 게 필요한지 도표를 근거로 강조해야 한다. 지문과 도표를 별도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도표 항목과 지문의 관점이 연결됨을 보여주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합적인 논리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지문의 내용과 논점을 도표 내용 분석에 활용하면서 본인 주장도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 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평가		평가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5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9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은 충족하였으나 그중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C	7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D	6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E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대학 예시답안] 606자

[가]는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을 대립시킨다.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들 평가다. 반면 ‘행복한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능동적 태도를 견지한다. [나]를 보면 소유의 삶은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물질 대상을 향하며,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조바심을 내면서 욕망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반면 존재를 중시하는 삶은 중심을 내 안에서 찾고, 내 능력을 발현하면서 삶의 실현을 도모한다.

[도표 1]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을 보아 소유와 물질적 여건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지표가 떨어지는 것을 볼 때 [가]의 관점처럼 남들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도표 2]도 이런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고, 소유와 연관되는 지수가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이지만 주관적 행복과 연관되는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은 오히려 최하위에 속한다. 결국 도표를 종합해보면 더 나은 삶은 소유나 평판보다는 주체적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국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I 2번

- ☞ [가]와 [나]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가]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적 단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전제는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슬로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할까? 즉,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이에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간명하게 설명한다.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들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려 깊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중략)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다. 그 당시 한 학생에게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의외의 답이 나왔다.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의대 진학을 결정하는 학생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분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 고등학교 「독서」

[나]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은 상식에 물을 만한 것이 아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는 물건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해야만 그것을 즐길 수 있다. 소유, 그것도 더 많은 소유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인물을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따위가 가능하단 말인가? 오히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만일 인간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은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을 삶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삼아 왔다. 부처는 해탈(解脫)에 이르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또 예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오히려 신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고 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스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어 비어 있게 하는 것, 자기의 자아(에고)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신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라 했다. (중략)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항상 걱정하게 된다.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늘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까 하는 두려움까지 겹쳐 만성 우울증으로 고통받게 된다. 더 잘 보호받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에 방어적이 되고 경직되며 의심이 많아지고 외로워진다.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협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 나의 중심은 나 자신 안에 있으며 나의 존재 능력, 나의 기본적 힘의 발현(發現) 능력은 내 성격 구조의 일부로서 나에 근거하고 있다.

- 고등학교 「국어」

[라]

※ **앞부분 줄거리:** 초등학생인 지소와 지식 남매는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며 집까지 없어지자 엄마와 함께 작은 승합차에서 살고 있다. 친구들한테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할 거라고 말했던 지소는 집을 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평당 500만 원”이라고 써진 주택 매매 전단을 본다. 오백만 원만 있으면 ‘평당’에 있는 집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긴 지소는 개를 찾아 주면 오백만 원을 사례한다는 광고를 보고, 엄마 ‘정현’이 일했던 레스토랑 ‘마르셀’에 있는 개 ‘월리’를 훔친 뒤 오백만 원을 받고 돌려줄 계획을 세운다. 마침내 지소는 월리를 훔치는데 성공하지만, 개를 보관하며 보살피던 중 마르셀의 주인인 노부인이 월리를 죽은 아들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고민에 빠진다.

S# 90 학교 - 교실, 낮

지소가 표지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써 놓은 공책을 열고, 그 공책에 적어 놓은 글을 쳐다본다. “개를 훔친다. → 전단을 발견한다. → 개를 데려다준다. → 돈을 받는다. → 행복하게 끝!”이라는 글이 보인다. ‘돈을 받는다.’ 부분 시유(C.U.) *

지소(내레이션) 하지만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전세 오백만 원짜리 집에 사는 걸 목표로 혹은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찌면 끔찍한 일인지도 모른다.

지소는 ‘돈을 받는다.’ 부분에 연필로 줄을 긋는다.

채랑 (지소의 행동을 보더니 작은 소리로) 왜?

지소 너 말이야, 내가 계속 차에서 살아도 친구 할 거야?

채랑 응, 당연하지. 너랑 노는 거 재밌어. 학원도 막 빼먹고, 근데 드디어 어제 엄마한테 걸렸어.

지소 나……. 생일 파티 안 할래.

채랑 정말?

지소 우리 월리를 마르셀 앞에까지만 데려다줄 거야. 마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혼자 돌아온 것처럼.

채랑 오, 완벽한데? 좋았어!

S# 97 레스토랑 마르셀 - 홀, 저녁

홀에 들어온 지소는 월리에게 방울 목걸이를 달아 준다.

지소 월리,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해서……. 너도 나랑 마찬가지로 집이 필요한데 말이지. 미안. 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녕.

이때 노부인이 나타나자 월리가 노부인에게 달려간다.

노부인 (지소를 바라보며) 월리를 찾아 줘서 고맙다. (월리를 쓰다듬으며) 네 말대로 월리가 제 발로 나간 것 같진 않구나.

지소 그림 전 이만 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지소는 인사를 하고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간다. 문 앞에 다다라 멈춰 선 지소는 돌아서서 노부인을 바라본다.

지소 근데 월리는 목줄을 풀어 주면 엄청 좋아해요.

노부인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지소 사실은…….

노부인 …….

지소 사실은……. 제가 훔쳤어요.

노부인 (지소를 바라보며) 뭐?

지소 (입술을 파르르 떨며) 사실은 제가 월리를 훔쳤어요.

노부인에게 자신의 지난 사연을 이야기하는 지소. 노부인은 그런 지소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다. 그 위로 들리는 지소 목소리.

지소(내레이션) 나는 그 순간 내 평생 가장 힘겨운 일을 해냈다. 할머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 놓은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난 아빠 얘기부터 집에서 쫓겨나 차에서 사는 이야기, 평당에 있는 오백만 원짜리 전셋집이랑 그 집 앞마당에서의 생일 파티까지……. 모두 말했다.

노부인 (고개를 끄덕이며)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네가 한 짓은 정말 나쁜 거야, 지소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소는 노부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을 툭툭 흘린다.

지소 죄송해요. 전 이만 가 볼게요.

S# 98 레스토랑 마르셀 - 정원, 저녁

어깨가 축 늘어진 지소가 계단을 내려간다. 처량해 보이는 지소.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노부인 애야.

지소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자 노부인이 계단 위에 서 있다.

노부인 내일 마르셀에 와서 월리 산책을 시켜 주겠니? 대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마.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지소.

S# 100 아파트 단지 밖 - 승합차 안, 밤

일을 마친 정현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온다. 지소, 공책을 덮고 정현을 본다.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도시락을 꺼내서 지소와 지석에게 나눠 주는 정현.

지소, 지석 이게 뭐야?

정현 열어 봐.

지소와 지석은 도시락을 열어 본다. 뚜껑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는 지소. 정성껏 꾸민 도시락이다. 도시락 안, 작은 쪽지에 “사랑하는 지소, 생일 축하해! 엄마.”라고 쓰여 있다.

정현 엄마가 지소 생일 절대 잊지 않아. 생일 축하해, 지소야.

눈물을 툭툭 흘리는 지소는 도시락을 옆에 두고 정현을 꼭 껴안는다.

* 시유(C.U.: close-up): 등장하는 배경이나 인물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일

- 고등학교 「국어」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 [가]와 [나]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독해]

- (가) 타인의 평가를 중심으로 선택 → 행복보다는 명분을 위한 삶: Bad(불행)
- (나) 존재 중심의 삶 → 불안과 걱정이 없이 안정감을 갖고 주체적 삶을 살아간다: Good(행복)
- (라) 지소는 친구들에게 근사한 생일파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개를 훔쳐 돈을 구하려고 하지만, 결국 양심의 고민 끝에 개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장한 지소는 자신의 가난한 집, 승합차 안에서 생일 축하를 받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통합	자기 만족을 위한 주체적 삶	행복
	(가)	타인 중심의 삶 → 명분을 위한 삶	불행
	(나)	존재 중심의 삶 →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	행복
대상	(라) 지소	친구들에게 생일 파티를 할 거라고 호언장담	불안 유발
		생일 파티를 할 집을 구하기 위해 개를 훔침	부도덕한 행동 → 양심 가책
		타인을 위한 삶에 공허를 느끼고 반성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기초
		개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용서를 구함	
		승합차 안에서 생일 축하를 받으며 눈물	주체적 행복에 대한 깨달음

[예시답안] 998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통합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준 상(가)	제시문 (가)에 나오듯, 타인에게 인정 받는 ‘가치 있는 삶’ 대신, 자신의 주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진정한 쾌락, 즉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 상(나)	또한 제시문 (나)에 나타나듯, 소유를 통한 불안정한 행복 추구 대신,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주체적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2	주장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라)의 지소가 작품 초반에 보여준 모습은 소유를 통해 인정을 추구하는 불안한 삶이었다.
	대상	작품 초반, 지소는 집도 없이 승합차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해줄 것이라 선언했다.
	적용	이는 지소가 자신이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즉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는 것을 타인

		에게 인정받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상	이러한 선언으로 인해 집을 구할 돈을 마련해야 하는 지소는 개를 찾아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전단지를 보고, 개를 훔쳐서 ‘행복하게’ 돈을 돌려받기를 소망하게 된다.
	적용	이는 남에 대한 인정 욕구, 그리고 소유욕이 삶을 부도덕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범행은 결국 죄책감을 동반하여 지소의 행복에 방해가 될 것이다.
3	주장	하지만 지소는 결국 주체적인 존재자의 삶으로 돌아와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된다.
	대상	지소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이 끈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개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용서를 구한다.
	적용	이는 지소가 소유가 아닌, 존재의 삶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심에 따른 주체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상	이렇게 용서를 받고 돌아온 지소는 승합차에서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선물 받으며 생일 축하를 받게 되고, 이에 감동한 지소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꼭 껴안는다.
	적용	이는 지소가 소유로써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던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또 인정을 받는 주체적 행복의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대학 출제의도]

[문제 2]는 [가], [나] 지문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라] 지문의 인물, ‘지소’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해야 한다. 지소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할 집을 구하기 위하여 레스토랑 ‘마르셀’ 주인의 개 윌리를 훔칠 계획을 세우며 이를 통해 자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데 이 단계에서 주인공인 지소가 지닌 생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현실적 거주 공간인 승합차가 아니라 욕망의 가상공간인 멋진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자 하는 지소의 마음은 [가] 지문에서 말한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응시생들은 언급해야 한다. [나]에서 말한 ‘소유 양식의 삶’을 통해서도 지소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소는 집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고 집을 얻기 위해서 금전을 획득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타인의 개를 불법적으로 소유하려 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릇된 행동의 연쇄작용을 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라]의 끝부분에서 지소의 심리 상태가 변화했음을 응시생들은 주목해야 한다. 비록 지소가 개를 훔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렇게 소유를 추구하는 삶, 그리고 타자가 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지소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결국 지소가 주체적 행복 추구의 삶의 가치와 존재 지향적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문제 2]에서는 [가]와 [나]의 대비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인물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고 더불어 심리적 변화 과정을 잘 짚어내어 설득력 있는 답안을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려 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2학년도 대비 모의논술고사는 교과서를 통합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하는 지식의 활용 능력, 환경 및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 비판적, 창의적, 성찰적 인재를 선발하려 한다.

[대학 문항해설]

[문제 2]는 응시자들에게 [가]와 [나] 지문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라] 지문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논할 것을 요구한다. 응시자들은 각 지문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뒤 지문 [라]의 분석에 이 내용을 응용할 수 있으며 혹은 먼저 [라] 지문의 구체적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 [나]의 핵심 개념을 인용할 수도 있다.

응시자들이 파악해야 하는 [가], [나] 지문의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지문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자면 인간의 삶에는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치 있는 삶’이란 내가 진정 원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주로 다른 사람들의 가치 평가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타자가 높게 평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그들의 눈에 자신의 삶이 높게 평가받기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삶의 경우 자신의 인생이 타자에게 높게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내적으로 반드시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행복한 삶’이란 남들의 가치 기준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진정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한다.

지문 [나] 역시 인간의 삶을 ‘소유 양식의 삶’과 ‘존재 양식의 삶’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소유 양식의 삶’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외적으로 무형, 유형적 가치를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이상시하는 삶이다. 이런 소유 양식의 삶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걱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에 반해 ‘존재 양식의 삶’이란 자신의 존재와 능력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삶이다. 이러한 삶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린 삶이기에 소유물의 상실이 야기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며 안정적, 주체적인 삶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 지문과 [나] 지문 모두 개인 주체성의 충만 혹은 결여를 기준으로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타자의 가치 평가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끼워 넣은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에서도, 또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외재적 존재인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냐의 문제에서도 공히 개인의 주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응시생들의 핵심 개념 요약은 개인에 따라 그 구체성을 달리할 수 있지만 대략 이러한 개념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응시생들은 이러한 [가], [나] 지문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라] 지문의 인물을 분석해야 한다. 우선 [라] 지문에서의 인물이란 주인공인 지소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라] 지문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지소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할 집을 구하기 위하여 레스토랑 ‘마르셀’ 주인의 개 월리를 훔칠 계획을 세우며 이를 통해 자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데 이 단계에서 주인공인 지소가 지닌 생각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집도 없고 승합차에 거주하며 가난에 허덕이게 된 지소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근사하게 생일 파티를 열 수 있는 공간인 멋진 집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인 금전을 획득하기 위해 개를 훔치려 했다. 이렇게 자신의 현실적 거주 공간인 승합차가 아니라 욕망의 가상공간인 멋진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자 하는 지소의 마음은 [가] 지문에서 말한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응시생들은 언급해야 한다. 즉 자신의 현실적 생활 공간인 승합차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웠기에 타자의 기준에 걸맞는 멋진 집을 파티의 장소로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지소가 개를 훔치고자 한 행동에는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여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한 욕망이 작동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는 [나]에서 말한 ‘소유 양식의 삶’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기에 응시생들은 지문 [나]와의 연결성을

언급해야 한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소는 집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고 집을 얻기 위해서 금전을 획득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타인의 개를 불법적으로 소유하려 했기 때문이다. 즉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러한 행동의 연쇄작용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지소가 공책에 “행복하게 끝”이라고 써 놓은 것은 이렇게 소유욕에 추동된 행동의 결과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라] 지문의 끝부분에서 지소의 심리 상태가 변화했음을 응시생들은 주목해야 한다. 응시생들은 비록 지소가 개를 훔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렇게 소유를 추구하는 삶, 그리고 타자가 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지소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지소가 결국 개의 주인에게 자신이 한 행동을 실토하고 개를 돌려주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지소가 스스로 말했듯이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고 또 자신이 원하는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찌면 끔찍한 일인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지소가 깨달았듯이 이러한 행동은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한” 삶이었던 것이었다. 지소의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지소가 본래 추구했던 소유 양식적 삶, 그리고 타자의 가치를 지향했던 삶의 파탄을 의미한다. 자신이 본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러한 삶을 지향한 결과가 자신의 내적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학 채점기준]

[문제 2]는 [가]와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이다. [문제 2] 답안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와 [나]에 대한 이해	<p>① [가]와 [나]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는가?</p> <p>[가]는 타자의 가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명분 위주의 삶과 자기 자신의 주체적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으로 인간의 삶을 구분한다. [나]는 인간의 삶을 외재적 가치 소유를 중시하는 소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중시하는 존재이 삶으로 구분한다.</p>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이해	<p>② [라]의 의미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와 [나]의 연결고리를 찾았는가?</p> <p>[가]와 [나] 지문은 모두 자신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삶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타인이 정한 명분 위주의 삶이 아닌 개인 자신이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도 주체적 삶이며 외재적 사물의 소유가 아닌 자기 자신의 존재에 주목하는 삶 역시 주체적 삶이기 때문이다.</p>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한 [라]의 분석	<p>③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였는가?</p> <p>[라]의 주인공 지소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기 위해 집이 필요하였고 집을 획득할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급 레스토랑 주인의 개를 훔쳤다.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생일잔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지소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지소는 자신의 현실적 주거 공간인 승합차 안에서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해 주신 도시락을 먹으며 조출한 생일 파티를 치루며 행복감을 느낀다. 결국 행복이란 많이 가지는 것을 통해서나 타자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p>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한 [라]의 분석	<p>④ [가]와 [나]의 요지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논하였는가?</p> <p>주인공 지소의 행동과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 [나] 지문에서 대비된 명분 위주의 삶/주체적 행복 추구의 삶, 그리고 소유의 삶/존재의 삶이란 개념을 인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p>

	지소의 행동과 심리를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타인의 시선이나 물질적 추구가 지소의 행동을 유발했지만 결국 개인의 주체성이 지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었음을 언급해야 한다.
정합적인 논리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 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 [문제 1], [문제 2]를 위와 같이 채점하여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함.

평가		평가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5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9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은 충족하였으나 그중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C	7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D	6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E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대학 예시답안] 1,004자

[가], [나]는 ‘행복한 삶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가]는 행복은 사회적 가치보다 쾌락적 즐거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나]는 상실을 두려워하며 걱정에 시달리게 하는 소유 대신, 자신의 존재 능력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삶을 바람직하다고 한다. 또한 두 지문 모두 주체적인 행복 추구를 중시한다.

이를 적용하며 [라]의 주인공인 지소의 행동과 심리를 논하도록 하겠다. 지소는 윌리를 흠뻑했다. ‘평당’에 있는 집을 산 후 그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기 위해서이다. 이는 남의 것을 빼앗아 만족을 얻으려는 소유욕에 따른 행동으로, 여기에는 죄의식과 불안이 뒤따른다. 이후 지소는 윌리를 돌려주었다. 윌리로 돈을 버는 것이 “행복하게 끝!”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목표 자체가 “끔찍한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체적 각성 덕분에 지소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

지소에게 이러한 경험은 흠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을 고백한 용기와 용서받았던 경험은 이후 지소에게 안정감과 주체성의 원천으로 남아 자기 존재로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한편, [가]를 피상적으로 이해하여, ‘멋진 생일 파티’라는 쾌락적 즐거움을 포기한 지소가 불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쾌락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으로 ‘좋은 집’, ‘떨쩍한 부모님’, ‘남이 부러워할 만한 생일 파티’라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정작 지소가 생일 파티를 열었다고 해도, 이는 “명분에 양보하는 행복”을 넘어, 지소와 가족들을 불행하게 하는 비극적 사건이 되었을 터이다.

생일날, 지소는 엄마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아마 지소는 그 도시락을 아주 맛있게 먹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껏 해준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맛을 선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작은 차 안에서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구체적인 경험,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준 자기 존재성에 대한 확신이 결국 행복의 열쇠라 할 것이다.

경기대 2022학년도 모의 1번

- 가. 가를 참조하여 나의 시적 의미가 어떠한 독창적 상상력을 통해 구현되는지 설명하고, 나의 관점에서 나의 ㉠에 나타난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태도를 논해보시오. (700 ± 50자)

가.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dépaysement)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轉置)’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쉽게 이탈해 무한한 자유와 공간으로 넘어가게 한다. 그런 점에서 데페이즈망은 현실에 대한 일종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법칙과 논리를 간단히 무장 해제해 버리는 파괴의 형식이다. 파괴의 형식으로서 데페이즈망은 매우 다양한 색깔을 보여 준다. 데페이즈망이 보여 주는 파괴는 다채롭고 무한하다. 그 말은 데페이즈망에 의한 창조의 형식 또한 다채롭고 무한하다는 뜻이 된다. 프랑스의 미술사가 사란 알렉상드리앙은 마그리트의 그림에 나타난 데페이즈망의 형식을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기, 미지의 차원을 열어 보이기, 생명체를 사물화하기, 해부학적 왜곡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미술가이자 비평가인 수지 개블릭은 사물을 원래의 맥락으로부터 떼어놓는 고립, 불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변형,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 크기와 위치의 부조화, 우연한 만남, 동음이의적 이중 이미지, 역설, 시공에 관한 경험을 왜곡한 이중 시점을 마그리트가 구사한 대표적인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꼽는다. 파괴의 형식을 대상으로 한 언급이지만, 그것이 곧 창조의 형식을 대상으로 한 언급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주현,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고등학교 국어』

나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내 접시 위의 풀들 깊고 말간 천 개의 눈망울로 뻥히 나를 쳐다보기 일쑤,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안 있으니 내 앓은 접시나 그들 앓은 접시나 매일반. 천 년 전이나 만 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반.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 간다는 것인데, 일테면 만 년 전의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동을 끊어 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의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을 잃었으니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 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김선우, <깨끗한 식사>, 『고등학교 문학』

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 썬 목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의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 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 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외국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더러 있죠. 우리나라에선 이제 좀 형성돼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언론에서 하도 육식을 공격해 대니…… 오래 살려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 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아홉 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오십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주의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게지가 않아요.”

“요샌 사상 체질 때문에 채식주의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 가 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길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 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아까부터 아내의 가슴을 흘끔거리고 있던 전무 부인이 말했다.

<중략>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주의 한다는 건, 어찌 됐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녜요? 안 그래요?”

“꿈틀거리는 세발낙지를 맛있게 젓가락에 말아 먹고 있는데, 앞에 앉은 여자가 짐승 보듯 노려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겠죠.”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한강, <채식주의자>, 『고등학교 문학』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 **가**를 참조하여 **나**의 시적 의미가 어떠한 독창적 상상력을 통해 구현되는지 설명하고, **나**의 관점에서 **다**의 ㉠에 나타난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태도를 논해보시오. (700 ± 50자)

[독해]

- (가) 데페이즈망 - 대상을 현실(상식)에서 떨어뜨려 다양하게 배치 → 낯선(새로운) 의미 연출(창조)
- (나)의 시적 의미: 육식뿐만 아니라 채식도 역시 타자의 희생을 취하는 것 → 감사하고 두려워해야 함
- (다)의 ㉠에 나타난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태도: 채식은 비정상이고, 고기를 먹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한다.

[논리평면] 사실추론, 견해(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가)	데페이즈망 - 대상을 상식에서 분리시켜 배치	낯선 의미 창출
대상	(나)	육식뿐 아니라, 채식도 타자의 희생을 취하는 행위	고맙고 두려워해야 할 일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나)	타자의 희생에 대하여	고맙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	Good
대상	(다)	동물들을 먹는 것에 대하여	고맙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음	bad

[예시답안] 726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핵심	상식에서 벗어나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면 낯선 의미가 발견되기도 한다.
	기준 상술	(가)에 소개된 데페이즈망이란, 대상을 현실, 즉 기존의 맥락에서 떨어뜨려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즉, 대상과 관련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맥락을 다양하게 변형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주장	이렇게 낯선 맥락에서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은 (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상	(나)의 화자는 육식뿐 아니라 채식도 타자의 생명을 취하는 잔인한 활동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아무리 채식이라도 무고한 생명을 죽여서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이니, 이를 취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적용	이러한 시적 의미는 채식에 대한 독창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창출됐다. 우리 사회는 상식적으로 채식을 윤리적인 습관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채식도 육식과 마찬가지로 남의 생명을 취하는 잔인한 관습이라는 인식을 보여줬고, 이를 통해 모든 음식 섭취에는 희생된 존재들에 대한 감사와 두려움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다.
3	주장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다)에 나타난 사람들은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상	(다)에는 ‘아내’가 보여준 채식주의에 대해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비판과 조롱을 가하며 육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적용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 섭취를 위해 희생된 동식물에 대한 경외와 감사가 전혀 없는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출제의도]

이 문항은 학생들이 미술과 문학이라는 상이한 예술영역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각 문학 작품에 담겨 있는 내용과 표현방식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하였다. 작품을 통해 현실 세계를 새롭게 돌아보고 문학의 의의와 가치를 고찰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

[대학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현대 회화의 주목할 만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의 개념을 소개한다. 데페이즈망을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이 실제 작품에 활용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형식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 시인은 인간이 육식을 하건 채식을 하건 불가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아픈 인식을 드러내며, 이러한 희생에 대한 두려움과 고마움의 마음을 상실한 현대의 음식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시인은 접시 위에 놓인 풀들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는 욕망을 가진 존재, “깊고 말간 천 개의 눈망울”로 응시하는 존재로 그림으로써 어느 동물 못지않은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음식으로 희생된 동식물의 처지에 대한 공감이 확장되는 가운데 “토막 난” 채 접시에 올려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데까지 나아간다. 작품의 이같은 독특한 상상력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데페이즈망의 방식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제시문 **다**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일부로서 채식하는 ‘아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담겨 있다. 채식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두드러지는 이들의 대화에서는 오로지 인간의 건강을 위해 육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경박하게 펼쳐질 뿐, 인간의 음식을 위해 희생되는 생명들에 대한 고려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제시문 (나)의 시인이 비판적으로 성찰한 바,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또렷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학 채점항목]

- ① 제시문 **가**의 ‘데페이즈망’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② 제시문 **나**의 주제와 표현방식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창의력, 논리력]
- ③ 제시문 **가**의 ‘데페이즈망’과 제시문 **나**의 표현방식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포착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이해력, 추론력, 분석력]
- ④ 제시문 **다**에 나타난 사람들의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문 **나**의 시인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해력, 추론력, 논리력]

⑤ 어문 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대학 채점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또는 ③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② 또는 ④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⑤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경기대 2022학년도 모의 2번

가의 주장을 나와 다를 참고하여 비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기본 소득 제도가 갖는 의의를 논술하시오. (700 ± 50자)

가

아래 내용은 소유 권리의 원칙에 대한 주장이다.

1. 취득의 원칙: 재화의 최초 취득이 합법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
2. 이전의 원칙: 1을 통해 획득한 재화는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교환을 통해 이전될 때 정의롭다.
3. 부정의 교정 원칙: 1, 2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취득은 교정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아래 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3년에 발표한 암 환자 미치료율과 그 이유로서 경제적 요인을 소득 수준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구분	소득 수준			
	하	중하	중상	상
미치료율(%)	21.2	20.4	17.2	15.5
경제적 이유(%)	29.9	18.2	10.5	6.2

『고등학교 사회』

다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 봅니다. 사회적 가치는 각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산으로, 공동체 안에는 고유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가치들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에 따라 고유한 영역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부는 경제 영역의, 권력은 정치 영역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그 위치를 이용하여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쉽게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원칙과 절차, 그리고 서로 다른 주체에 따라 분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제 활동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로 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사회』

라

기본 소득(basic income)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적든, 일하든 하지 않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 소득 제도는 세 가지 관점에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 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된다. 둘째, 다른 소득의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된다. 셋째, 기본 소득을 받기 위해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

『고등학교 사회』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 **가**의 주장을 **나**와 **다**를 참고하여 비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기본 소득 제도가 갖는 의의를 논술하시오. (700 ± 50자)

[독해]

- (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의 취득과 교환이 이뤄진다면 정의로운 분배라고 볼 수 있다.
- (나) 소득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수반하고 있다.
- (다) 다원적 평등 - 각 사회적 가치는 독립적으로 고유한 방식으로 분배 → 정의로운 분배: Good
한 가치의 불평등 분배가 다른 가치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면 → 정의로운 분배가 아니다: Bad

[논리평면] 가치추론, 견해(대안)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다)	한 가치의 분배	다른 가치의 분배에 영향	부정의
	(나)	경제적 분배	건강에도 영향	
대상	(가)	재화의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취득과 거래를 통한 분배는 정의롭다 → 경제적 가치가 다른 가치 분배에 지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부정의

[예시답안] 717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핵심	경제적 분배가 다른 가치 분배에 영향을 미치면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기준 상(다)	제시문 (다)에 나타나듯, 다원적 평등, 즉 각각의 사회적 가치는 저마다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정의로운 분배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 상(나)	가령, 경제적 가치가 건강과 같은 다른 가치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의로운 분배로 볼 수 없다. 제시문 (나)에 나타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경제적 분배가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정의한 분배 상황을 보여준다. 소득 수준 상위 계층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1% 이하인 반면, 소득 수준 하위 계층에서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인구가 6% 이상인 것이다.
2	주장	이에 따라 제시문 (가)의 소유관은 부정의하다고 볼 수 있다.
	대상	(가)는 합법적으로 재화의 취득이 이뤄지고, 자유롭게 교환된다면 정의롭게 분배된 것이라고 말한다.
	적용	하지만 (가)의 원칙이 모두 지켜지더라도, 여전히 경제적 수준이 건강, 교육 등의 다른 가치 분배에도 지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정의로운 분배라고 볼 수 없다.
3	주장	따라서 우리 사회에는 기본 소득 제도가 필요하다.
	대상	제시문 (라)에 따르면, 기본 소득 제도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일정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적용	이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건강 등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분배 정의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	--

[대학 출제의도]

이 문항은 사회 정의 및 불평등 현상을 현행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이론이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대안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표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분배 정의 관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제시된 새로운 제도의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학 제시문해설]

제시문 **ㄱ**은 노직의 소유 권리의 원칙으로, 노직은 재화의 취득과 이전 과정이 정당하면 현재의 소유권이 정당하다고 보고, 개인 소유권의 우선적 보장이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암 환자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미치료 비중이 높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 비중도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의 차이가 의료 혜택 및 건강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ㄷ**은 왈처가 주장한 정의의 원칙으로, 왈처는 부, 권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있어서 한 영역의 가치를 우월적으로 가진다고 다른 영역의 가치도 쉽게 얻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고 보았다.

제시문 **ㄹ**은 최근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 소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개인에게 소득이나 노동 관련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시문 **ㄱ**은 합법적 재화 취득/이전에 기반한 개인의 소유 권리 보장은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문 **나**, **ㄷ**을 보면 개인이 소득과 같은 경제 영역의 가치를 많이 소유할 경우, 건강이나 의료 등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쉽게 소유하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ㄷ**의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제시문 **ㄱ**의 주장은 한계가 있고 **나**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제시문 **ㄷ**의 기본 소득 제도는 **ㄱ**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는 일괄적인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개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 **ㄷ**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에,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의의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대학 채점항목]

- ① 제시문 **나**에서 소득 격차로 인한 건강/의료 불평등 상황을 제시문 **ㄷ**의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가?
[분석력, 이해력, 추론력]
- ② 제시문 **ㄱ**의 소유 권리 원칙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고, **ㄱ** 주장이 제시문 **나**, **ㄷ** 상황에서 가지는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는가?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 ③ 제시문 ㉑의 기본 소득 제도를 이해하고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는가? [추론력, 이해력, 논리력]
- ④ 어문 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대학 채점기준]

등급	요건
A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B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④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C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④ 가운데 둘이 다소 미흡하다.
D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이 매우 불충분하다.
E	위의 요건 가운데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게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경희대 2022학년도 모의 사회 1번

☞ 제시문 [가]~[마]를 같은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임시헌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주의 이념은 서양 정치철학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합성어이다. 서양 정치철학의 전통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념은 지배 형식과 통치 형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수준을 달리하며 또한 오히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오늘날 미국의 양대 정당의 명칭이 시사하듯, 평등과 자유 사이에 일정한 긴장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1776년의 「미국독립선언문」이나 1779년의 「미국 헌법」 어디에서도 이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이나 프랑스공화국 헌법 어디에도 이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서구 현대 국가 일반과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임시헌정」보다 몇 달 뒤인 1919년 8월에 제정되었지만, 여기서도 이 개념은 없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첫 번째 공화 혁명이었던 신해혁명으로 만들어진 중화민국도 민주공화주의를 제창하지는 않았다. 민주공화주의는 우리 애국지사들이 당시 노골화하던 제국주의적 침탈의 세계사적 조류를 거슬러 일본의 국권 강탈과 국토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낸 독창적인 정치철학적 이념이며, 국권 회복을 위한 치열한 고뇌를 담아낸 자생적 개념이다.

[나]

751년 7월, 고구려 출신 당나라 장군 고선지는 군사를 이끌고 현재의 카자흐스탄 탈라스강 근처에서 이슬람군과 전투를 벌였고, 크게 패하였다. 이때 수만 명의 당나라 병사가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종이를 만드는 제지(製紙) 기술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탈라스 전투는 중국의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에 퍼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양가죽을 말려 두드린 양피지를 주로 사용하던 중동 지역에는 굉장한 신상품이 나타난 셈이었다. 제지술의 전래로 이슬람 제국의 문학과 학문은 크게 발달하였다.

[다]

독일어와 같은 게르만어인 영어는 외래어-외국어에 대해 독일어가 취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다. 이미 고대 영어 시절부터 라틴어 단어를 폭넓게 받아들였던 영어는 1066년 노르망디 공 윌리엄의 영국 정복 이래 프랑스어에 깊이 침윤되었다. 지배층은 오로지 프랑스어만을 사용했고, 영어는 피지배 계급의 ‘천한’ 언어였으나, 그 천한 언어에도 지배 계급의 언어가 수혈되어 영어 어휘부에서 프랑스어/라틴어 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났다.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영어는 프랑스어에 눌러 영국 영토에서도 소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 사건 가운데 첫 번째는 1204년에 영국이 노르망디의 영토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영국의 왕실이 자신들의 고향인 유럽 대륙의 프랑스어 사용 지역을 프랑스 왕에게 빼앗김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어권과의 영토적 관련이 끊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사건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지속된 백년전쟁이다. 이 전쟁은 영국인의 애국심을 고양시킴으로써 ‘천한 언어’인 영어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켰다. 백년전쟁 기간 중인 14세기 중엽에 영어는 공용어의 지위를 되찾았지만, 이 중세 영어는 적어도 어휘에 있어서는 반 이상이 고대 프랑스어가 되어 버린 언어였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자기들 언어에 깊숙이 들어온 프랑스어를 배척하려 하지 않았다. 영어가 공용어가 된 뒤로도 여전히 궁중의 일부와 법정에서는 프랑스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이런 너그러움의 이유가 되었다. 영국의 법정이 프랑스어를 포기하고 영어를 채택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 말하자면 영어와 프랑스어는 영국 땅에서 7백 년 가까이 동거한 셈이다. 그래서 영어는 영국에서 공용어의 지위를 되찾은 뒤에서 프랑스어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를 수혈받았다. 그 단어들은 정치, 법률, 행정, 예술, 과학, 종교 등 상부 구조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오늘날 영어 단어 가운데 비교적 고급스러운 말들은 대체로 프랑스어에서 온 말들이다.

영어는 프랑스어나 유럽의 고전어들뿐만 아니라, 어떤 외래어에도 저항을 보인 일이 없었다. 영국이 영어의 중심이었을 때도 이미 영어 속에는 세계 구석구석이 원산지인 단어들이 들어 있었고, 20세기 들어 영어의 새로운 중심이 된 미국의 영어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언어에서 많은 어휘를 차용했다. 그것은 영어를 위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수많은 언어로부터 영어에 흡수된 풍부한 어휘는 영어에 미세한 결들을 만들어 이 언어의 발달과 세련화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라]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눈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 버리겠지.

[마]

걸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가정, 그리고 가정의 중심에 서 있는 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걸프 사회가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보수성과 폐쇄성의 중심에 바로 여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걸프 사회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정통성의 상징을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 즉 여성에 대한 통제를 통해 구현해 내고 있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가정 내의 한정된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강요당하며, 이동의 자유도 제한받고 있다. 외국 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후견인의 동의나 동행이 필요하다. 이슬람법 샤리아(Shari' h)에 기초한 가족법은 혼인과 이혼에서 남성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혼인이나 이혼 문제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남녀 간의 유별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권리와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받은 여성의 사회 참여도 교육이나 보건 등의 한정적인 분야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뉴미디어의 확산은 걸프 지역의 사회 변화에 도화선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걸프 국가들은 체제에 위협이 되거나 이슬람적 가치에 반하는 내용을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 검열을 통해 미디어를 통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검열과 통제는 오히려 검열되지 않은 뉴미디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불러일으켰으며, 뉴미디어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은 뉴미디어가 가지는 기술적 특성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뉴미디어 가운데에서도 일차적으로 일대다(one-to-many) 방식의 위성 방송은 걸프 지역 사람들에게 '닫힌 사회'로부터 탈출하여 '열린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돌파구가 되었으며, 이차적으로 다대다(many-to-many) 방식의 인터넷은 여성을 포함한 걸프 사회의 젊은 층에 깊숙이 침투되면서 걸프 사회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 제시문 [가]~[마]를 같은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독해]

- (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주의 → 자유로운 독립국을 위해 자생적으로 만든 독창적인 정치 이념
- (라) 외부가 아닌 내부(자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토대)로부터 평화를 위한 희망이 나타난다.
- (나) 전쟁을 통해 얻은 당나라 제지 기술자를 통해 이슬람의 제지 기술 발전 → 이슬람 문화 발전
- (다) 영어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외부 언어를 관대하게 수용 → 영어 발전과 영어 사용 확대
- (마)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의 세계화 → 통제적이던 걸프 사회가 민주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논리평면] 분류 & [예시답안] 476자

문단	기능	내용
1	공통점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쟁점	
	A팀	
	B팀	제시문 (나), (다), (마)가 말하는 외부 동력이 있다.
2	주장	먼저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살펴 보자면,
	상술 1	먼저 (라)에 나타나듯, 평화를 위한 희망이 외부가 아닌 내부, 즉 자국민의 토지와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 2	이는 (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의 독창적 정치 이념인 민주공화주의는 자유로운 독립국을 위해 한국이 자생적으로 만든 이념이다.
3	주장	반대로, 밖으로부터의 변화를 살펴 보면,
	상술1	먼저 (나)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 문화의 발전에는 당나라 제지 기술자의 유입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상술2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는 (마)에 나타난, 정보통신기술의 세계화를 통해 민주적으로 변화는 걸프 사회에서도 볼 수 있다.
	상술3	그리고 (다)에서는 영어가 이토록 발전되고 확장되어 온 것이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언어를 수용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 출제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모의논술고사는 변화와 발전의 동인에 대한 관점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 발전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관점과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며 외부의 도움은 대체로 발전에 실보다는 득이 된다고 보는 관점을 대비하도록 하였고, 두 관점 중 응시생이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게 한 후, 그 관점을 바탕으로 세 개의 각기 다른 지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광범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모의논술고사의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의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대학 문항해설]

[논제 1]은 은 변화와 발전의 동인에 대한 두 가지 대비되는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글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첫 번째 관점은 발전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발전이 외부의 도움이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관점이다. 응시생들은 주어진 제시문들을 두 관점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대학 제시문해설]

제시문 [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주의 이념이 서양 정치철학사에서는 찾기 힘든 독창적이고 자생적인 정치철학적 이념임을 주장한다. [나]는 이슬람 제국의 문학과 학문이 발달하는 데에는 중국의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로 전파되었기 때문이었음을 보여준다. [다]는 영어의 발전과 세련화는 영어의 포용성/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외래어의 유입이 큰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라]는 희망(봄)은 ‘남해, 북녘’으로 상징되는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스스로의 역량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는 세계화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뉴미디어의 확산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걸프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인임을 보여준다.

[대학 예시답안] 489자

[가]-[마]는 변화와 발전의 동인이 어디에서 비롯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가], [라]는 발전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예인 반면, [나], [다], [마]는 외부의 도움이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예이다.

[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주의 이념이 서양 정치철학사에서는 찾기 힘든 독창적이고 자생적인 정치철학적 이념임을 주장한다. [라]는 희망(봄)은 ‘남해, 북녘’으로 상징되는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스스로의 역량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나]는 이슬람 제국의 문학과 학문이 발달하는 데에는 중국의 제지술이 이슬람 세계로 전파되었기 때문이었음을 보여준다. [다]는 영어의 발전과 세련화는 영어의 포용성/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외래어의 유입이 큰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마]는 세계화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뉴미디어의 확산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걸프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인임을 보여준다.

경희대 2022학년도 모의 사회 2번

☞ [논제 1]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바], [사], [아]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바]

한반도의 춤과 노래의 기원은 많은 남녀가 모여 함께 술을 마시며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는 고대 사회의 제천 의식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제전의 면모는 오늘날 풍어제나 대동굿 같은 무속 제의와 무당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의 의사와 인간의 기원을 악기와 무가를 통해 노래하고, 신의 모습이나 다양한 인간사를 춤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무속인은 연기자와 가수, 무용수라는 점에서 한반도 공연예술의 기수이자, 한류의 선조라 볼 수 있다. 한편 사회가 발전하여 유흥의 자리에서 예능인의 기예를 감상하려는 일반인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기녀와 가객 같은 전문 예능인 부류가 파생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기녀 황진이와 작가 남영로가 만든 소설 속 캐릭터 강남홍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가무와 문예의 재능을 완벽히 갖춘 이상적인 여성 예능인상으로서 한류의 전범이자 모델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말로 이야기할 부분을 리듬에 맞추어 열거한다는 점에서 팝의 랩과 판소리의 아니리는 상통한다. 4.4조 2음보 연첩의 율격을 빠른 템포로 구연하는 코리안 팝의 특징은 판소리의 자진모리와 휘모리 장단의 창에서 유사한 성격을 찾을 수 있다. 또 빠른 템포로 창송하여 엮어 내는 가사의 창법은 골계화, 장편화되어 길어진 노랫말을 빠른 속도로 엮어 내는 엮음 사설의 민요적 전통에서는 팝의 랩과 유사한 기능과 리듬감이 나타난다.

[사]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지원 규모를 104만 명으로 확대하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고용노동부가 기재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특별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청년고용 지원 규모가 당초 79만4천 명에서 24만6천 명 더 늘었고, 관련 예산도 4조4천억 원에서 5조9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청년 실업이 늘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만큼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더욱 좁아진 취업 기회에 좌절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2019년보다 18만3천 명 감소했다. 체감 실업률도 25.1%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과 서비스 업체에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채용을 축소했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다. 청년 실업의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지연과 근로 경험의 상실은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기업 지원을 통한 청년층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탓에 민간의 획기적인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 결과 5만 명이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대상이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5만 명 중 2만 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듯, 지구촌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은 자연스럽다. 선진국들로 구성된 경제협력 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가난한 나라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출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Kore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비정부단체(NGO) 등이 나서 유상과 무상으로 많은 나라를 원조한다.

문제는 원조의 딜레마다. 좋은 뜻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가 원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원조는 ‘원조가 과연 도움이 되거나 한 것일까’라는 회의를 갖게 한다. 아프리카 남중부에 있는 잠비아의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는 “원조는 도움이 안 된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사실 원조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모요의 ‘원조 비판론’은 원조의 부패 구조와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원조는 정부와 정부가 주고받는 형태다. 아프리카 등 후진국 정치 구조는 독재 구조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정부를 통해 지원이 되면 상당 규모의 원조가 독재자 개인 재산으로 빼돌려진다. 이 같은 부패는 원조가 실행되는 하부 단계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 원조가 정작 경제 개발이나 발전에 쓰이지 않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라구람 라잔과 어빈드 서브라마니안은 “어떤 종류의 원조도 국가 경제 성장을 유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연구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들이 든 예가 바로 잠비아다. 1960년 이래 잠비아가 받은 원조는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성장률은 오히려 추락했다. 원조는 또 원조 이익을 두고 정치 세력 간 극단적인 정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적 안정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는 큰 이권에 해당한다. 이권을 놓고 벌이는 정치적 갈등은 ‘전부 아니면 전부’ 게임으로 악화되게 마련이다. 원조가 기업이 정신을 북돋우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무상 원조를 통해 많은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부족하나마 시장에서 거래되던 자국의 상품 시장이 죽게 된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다양한 상품과 의약품, 의복, 식량 등을 공짜로 지원해주면 그나마 형성된 북한의 장마당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공짜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거래가 될 리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은 “시혜적인 원조는 삶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 [논제 1]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바], [사], [아]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배점 40점]

[독해]

- (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주의 → 자유로운 독립국을 위해 자생적으로 만든 독창적인 정치 이념
- (라) 외부가 아닌 내부(자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토대)로부터 평화를 위한 희망이 나타난다.
- (나) 전쟁을 통해 얻은 당나라 제지 기술자를 통해 이슬람의 제지 기술 발전 → 이슬람 문화 발전
- (다) 영어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외부 언어를 관대하게 수용 → 영어 발전과 영어 사용 확대
- (마)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의 세계화 → 통제적이던 걸프 사회가 민주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바) 고대 한반도의 제천의식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화 → 현대 대한민국의 춤과 노래
- (사)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자생적 회복이 어려운 민간 경제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
- (아) 국제 원조 → 약소국의 성장률과 자생력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정쟁을 악화시킨다.

[논리평면] 가치추론 - Ex) 외부 동력론의 측면에서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통합	외부 동력으로부터	변화(발전)	Good
	(나)	당나라 제지 기술자 유입	이슬람 문화 발전	
	(다)	외부 언어 수용	영어 발전과 확대	
	(마)	정보통신기술의 세계화	걸프 사회의 민주적 변화	
대상	(바)	고대 한반도의 제천의식 예술 문화	현대 대한민국의 춤과 노래	b
	(사)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자생적 회복이 힘든 민간 경제에 기여	g
	(아)	국제 원조	약소국의 발전과 안정을 저해	b

[예시답안] 689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핵	발전적 변화는 외부의 도움으로부터 온다.
	기준-상	이는 (나), (마)에서 나타나듯, 외부에서 유입된 신문물이 문화적, 정치적 발전을 일궈주는 면에서도 볼 수 있고,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문화를 수용한 영어가 현재까지 장기간 발전과 확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는 면에서도 볼 수 있다.
2	주장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바)와 (아)의 견해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대상 1	(바)에는 고대 한반도의 제천의식에서 시행되던 예술 문화가 현대 대한민국의 발전된 춤과 노래의 기원이라고 주장한다.

	적용	하지만 흔히, 'K-pop'이라고 불리는 현대의 발전된 춤과 노래는 한반도 내부라기보다는 서양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전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바)는 옳지 못한 견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대상 2	또한 (아)는 국제 원조가 오히려 약소국의 성장률과 잠재력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정쟁만 만들어 낸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적용	하지만 단기적으로 외적 원조에 대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기적 차원에서는 외부 원조의 도움이 결국 약소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주장	반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사)의 주장은 올바른 견해라 할 것이다.
	대상	(사)는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덕분에 자생력이 낮아 침체되어 있던 민간 경제가 조금씩 활성화된다고 말하고 있다.
	적용	내부만의 역동으로는 진전되지 못하는 경기가 정부의 지원으로 활성화된다는 (사)의 논의는 올바른 발전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대학 출제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모의논술고사는 변화와 발전의 동인에 대한 관점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 발전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관점과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며 외부의 도움은 대체로 발전에 실보다는 득이 된다고 보는 관점을 대비하도록 하였고, 두 관점 중 응시생이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게 한 후, 그 관점을 바탕으로 세 개의 각기 다른 지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광범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모의논술고사의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의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대학 문항해설]

[논제 2]는 발전의 양상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중 응시생이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그 관점을 지지한 이유를 서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 [사], [아]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바]는 코리안 팝과 같은 한류의 기원이 고대 제천의식이나 판소리와 같은 민요적인 전통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발전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가], [라]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사]는 정부의 특별지원정책이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와 청년의 고용 증대를 가져오는 사례이므로 외부(정부)의 도움이 상황의 개선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는 [나], [다], [마]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아]는 외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는 상태이므로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며 외부의 도움은 대체로 발전에 실보다는 득이 된다고 하는 [나], [다], [마]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응시생들은 이러한 관점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대학 제시문해설]

제시문 [바]는 코리안 팝과 같은 한류의 기원이 고대 제천의식이나 판소리와 같은 민요적인 전통에 있다고 주장한다. [사]는 민간의 획기적인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정책이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와 청년의 고용 증대를 가져오는 사례이다. [아]는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은 자연스럽지만, 원조가 가난한 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삶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으로 이끌지도 못함을 지적한다.

[대학 예시답안(1) - [가], [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625자

위의 발전의 양상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중 나는 [가], [라]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발전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가능하고 또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 [사], [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바]는 코리안 팝과 같은 한류의 기원이 고대 제천의식이나 판소리와 같은 민요적인 전통에 있다고 주장한다. [바]는 발전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가], [라]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사]는 정부의 특별지원정책이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와 청년의 고용 증대를 가져오는 사례이므로 [가], [라]의 관점과 대비된다. [가], [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의 정부 지원정책은 청년 스스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아]는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은 자연스럽지만, 원조가 가난한 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삶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으로 이끌지도 못함을 지적한다. [가], [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는 외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는 상태이므로 발전은 자생적으로 가능하고 또 장기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 예시답안(2) - [나], [다], [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663자

위의 발전의 양상에 관한 두 가지 관점 중 나는 [나], [다], [마]의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며 외부의 도움은 대체로 발전에 실보다는 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 [사], [아]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바]는 코리안 팝과 같은 한류의 기원이 고대 제천의식이나 판소리와 같은 민요적인 전통에 있다는 것으로 [나], [다], [마]의 관점과 대비된다. [나], [다], [마]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는 외부와의 접촉이나 외부의 도움이 있었을 경우 한류가 더욱 발전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사]는 민간의 획기적인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정책이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와 청년의 고용 증대를 가져오는 사례이므로 외부(정부)의 도움이 상황의 개선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는 [나], [다], [마]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아]는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은 자연스럽지만 원조가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삶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으로 이끌지도 못함을 지적한다. [나], [다], [마]의 관점에서 [아]는 외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는 상태의 사례이므로 [나], [다], [마]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경희대 2022학년도 모의 사회 3번

☞ 국가 A는 고용된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료 1>은 국가 A에서 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한 전후로 피고용 근로자 규모별 기업의 분포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도표의 점선 왼쪽에 있는 기업들은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으로 소기업에 해당한다. 한편, 국가 B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장년층의 고용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 5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자료 2>는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시행 전후로 연령별 고용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도표의 각 점은 출생 연도 및 출생 월이 같은 사람들의 고용률을 나타내며, 점선의 오른쪽에 있는 만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새로운 정책의 수혜 대상이다. 두 국가 모두 정책 시행 전후로 다른 조건의 변화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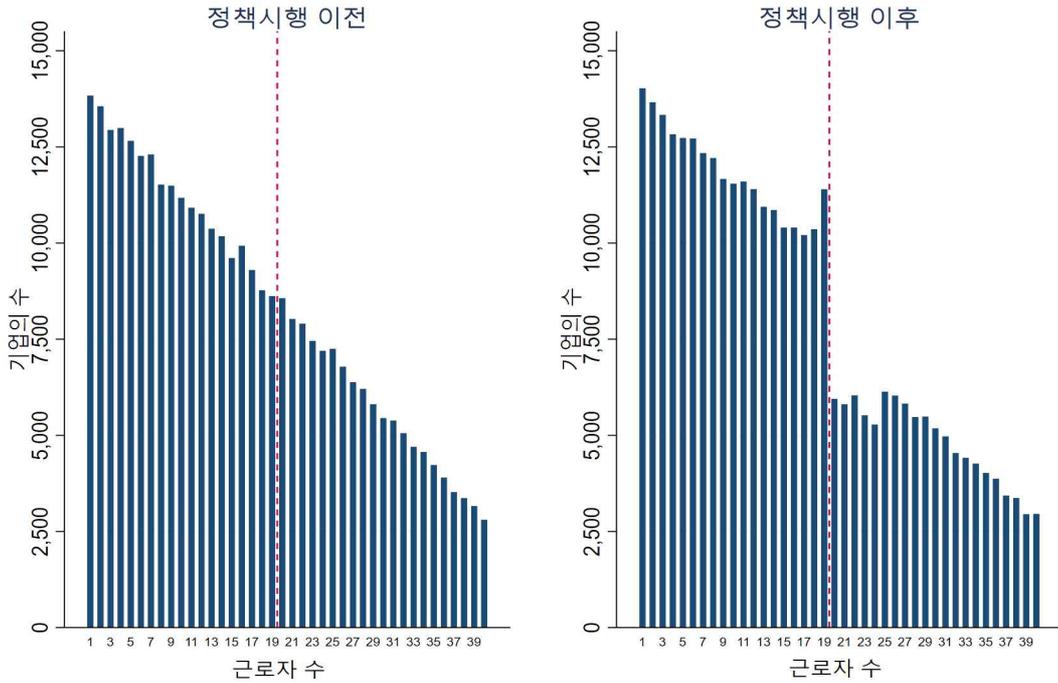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이 자료들이 [논제 1]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의 견해를 평가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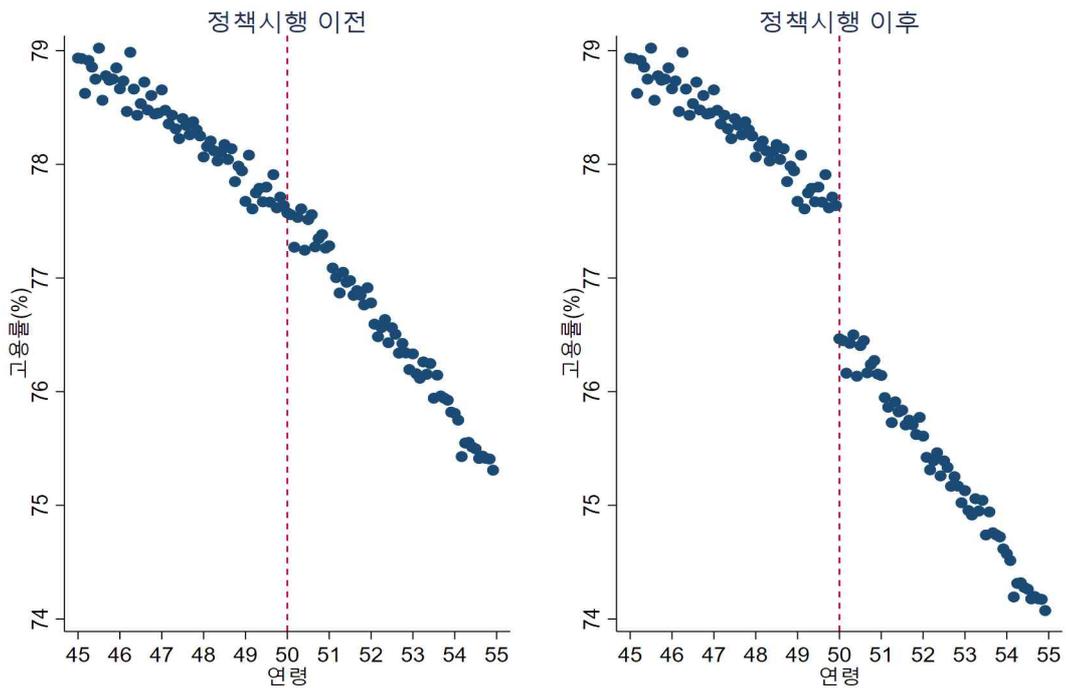
[사]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지원 규모를 104만 명으로 확대하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고용노동부가 기재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특별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청년고용 지원 규모가 당초 79만4천 명에서 24만6천 명 더 늘었고, 관련 예산도 4조4천억 원에서 5조9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청년 실업이 늘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만큼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 청년들은 코로나19로 더욱 좁아진 취업 기회에 좌절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2019년보다 18만3천 명 감소했다. 체감 실업률도 25.1%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과 서비스 업체에서 경기 침체를 이유로 채용을 축소했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었다. 청년 실업의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지연과 근로 경험의 상실은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대책은 기업 지원을 통한 청년층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탓에 민간의 획기적인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 결과 5만 명이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대상이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5만 명 중 2만 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료 1〉 소기업 지원 정책 시행 전후 근로자 규모별 기업의 분포



〈자료 2〉 사회보장 정책 시행 전후 연령별 고용률 변화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 <자료 1>과 <자료 2>를 해석하고, 이 자료들이 [논제 1]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의 견해를 평가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배점 30점]

[독해]

<자료 1> 소기업 지원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20인 이상 기업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자료 2> 50세 이상 대상 사회보장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50세 이상의 고용률이 대폭 감소했다.

(사)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 자생적 회복이 어려운 민간 경제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대상	기준	내부 발전론	내적 동력	발전적 변화	참
	대상	통합	외부 동력	발전 저해	
		<자료 1>	소기업 지원 정책	소기업 외 기업 감소	
		<자료 2>	50세 이상 사회보장 정책	50세 이상 고용률 감소	
대상	(사)	정부의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	민간 경제 고용 활성화 기여	거짓	

[예시답안] 550자

문단	기능	내용
1-1	기준 핵심	내적 요인이 진정한 발전을 일궈내는 동력이다.
	기준 상술	제시문 (가)와 (라)에 나타나듯, 발전을 위한 동력은 자생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	주장	이는 제시된 자료들에도 나타나는데,
	대상1 핵	<자료 1>을 보면, 지원책이 오히려 기업의 자생력을 상실시키는 모습이 나타난다.
	대상1 상	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 20인 이상 기업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대상2 핵	또한 <자료 2>를 보면, 지원 정책이 정책 의존적 성향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대상2 상	50세 이상 대상의 사회보장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50세 이상의 고용률이 대폭 감소하였다.
	적용	이렇듯, 내적 동력이 아닌 외적 요인으로 변화를 시도하면,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3	주장	따라서 제시문 (사)가 말하는 고용정책 또한 폐기되어야 한다.
	대상	(사)는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민간 경제가 활성화에 건설적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적용	하지만 이렇게 외부 자금으로 청년들을 도우려 하면, 기업들은 그 지원 유인에 의존적으로 적응하여 자생력을 잃게 되고, 청년 고용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축시킬 것이다.
--	----	--

[대학 출제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사회계 모의논술고사는 변화와 발전의 동인에 대한 관점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 발전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관점과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며 외부의 도움은 대체로 발전에 실보다는 득이 된다고 보는 관점을 대비하도록 하였고, 두 관점 중 응시생이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게 한 후, 그 관점을 바탕으로 세 개의 각기 다른 지문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했다.

이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광범하게 언급되고 있다. 본 모의논술고사의 제시문과 논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내용과 성취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의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었다. [논제 3]의 경우도, 기본적인 도표 해석 능력을 갖추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통합 논술 능력을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대학 문항해설]

[논제 3]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에 나타난 사실들이 발전 방식에 대한 대비되는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관점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또한 그래프에 나타난 사실 근거들과 반대되는 견해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사실 근거들을 토대로 비판적으로 논평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

[대학 제시문해설]

제시문 [사]는 민간의 획기적인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정책이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와 청년의 고용 증대를 가져오는 사례이다.

[대학 예시답안] 524자

	<p><자료 1>은 소기업 지원정책 시행 이후 정책이 목표한 바와 반대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20인 미만인 기업의 수가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자료 2>는 사회보장 정책 시행 이후 정책의 대상자인 5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감소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정책의 수용자들이 정책의 애초 취지대로 발전하기보다 정책에 의존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자생적 발전을 강조하는 제시문 [가]와 [라]의 관점에 부합한다.</p> <p>제시문 [사]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많은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 1>과 <자료 2>에 근거하여 보면, 이러한 지원정책이 민간 기업을</p>
--	---

정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고 정책이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의 지원정책은 당사자의 자생력과 자발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왜곡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시문 [사]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국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 1번

- ①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인간의 지각 현상과 언어 사이의 상관 관계를 대비적으로 설명하고, [다]와 [라]를 바탕으로 '문화와 언어'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400자 이내) [30점]

[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고등학교 문학』

[나]

무지개를 보기 전부터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무지개’를 중얼거리던 사람은 실제 무지개의 색과 상관없이 무지개의 색을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무지개는 일곱 가지 이상의 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역시 무지개에서 이 일곱 가지 외의 색을 못 보는 것도 아니다.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어도 우리는 무지개를 지각하고 사고할 수 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니제르·콩고 어족의 바사어에서는 ‘보라’, ‘파랑’, ‘초록’을 모두 합쳐 하나의 단어로 부른다. 그러나 니제르·콩고 어족 사람들이 ‘보라’, ‘파랑’, ‘초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다]

영어의 ‘라이스(rice)’는 꽤 불친절한 단어이다. 때로는 ‘벼’, 때로는 ‘쌀’, 때로는 ‘밥’을 뜻한다. 갈무리해 놓은 낱알 중에 실한 놈을 잘 말려 겨울을 난 후 싹을 틔워 못자리에 붓는다. 적당한 길이만큼 자라면 모를 찌어 모내기한다. 애벌, 두벌, 세 벌의 김을 매며 잘 키우면 그것이 벼다. 가을이 되어 알곡이 누렇게 익고 이삭이 고개를 숙일 때쯤 베어 낱알을 떨어내면 그것도 벼다. 방앗간에서 왕겨를 벗겨 내면 현미가 되고 다시 몇 차례 등겨를 벗겨 내면 백미가 되는데 이것을 쌀이라 부른다. 쌀을 안쳐 불을 때다가 찜을 들이면 비로소 밥이 된다.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라]

우리는 1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로 부르지만, 어원어*에서는 이른 봄과 늦은 봄, 이른 가을과 늦은 가을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서 1년을 6계절로 나누어 부른다. 이곳의 사람들은 주로 순록을 기르며 자연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된 단어가 발달해 있다.

* 어원어(Ewen어): 알타이 언어의 만주·통구스 어파에 속하는 언어이다. 어원인은 시베리아의 사하 공화국, 하바롭스크주, 마가단주(추코트카 자치구), 캄차카주(코랴크 자치구) 등지에 거주한다.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인간의 지각 현상과 언어 사이의 상관 관계를 대비적으로 설명하고, [다]와 [라]를 바탕으로 '문화와 언어'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400자 이내) [30점]

[독해]

- (가) 언어(알맞은 이름) → 사고('그의 꽃'이라는 의미 생성)
- (나) 언어('무지개'라는 단어) → 사고(무지개에 대한 인식)에 절대적 영향은 아님
- (다) 문화(쌀 농사 중심의 문화) → 쌀에 대한 풍부한 단어들
- (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 → 계절에 대한 세분화된 단어들

[논리평면] 요약, 비교, 요약 & [예시답안] 377자

문단	기능	내용
1-1	요약 (가)	제시문 (가)의 화자는 누군가 자신의 개성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줄 때 그의 꽃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요약 (나)	제시문 (나)는 '무지개'라는 단어가 무지개를 인식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1-2	공통점	이들은 언어와 사고가 갖는 대비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쟁점	
	분석 (가)	(가)는 언어가 사고, 인지에 지배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분석 (나)	(나)는 언어가 사고에 절대적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1-3	(다) 핵심	한편, 제시문 (다)와 (라)는 문화가 언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다) 상술	(다)는 쌀 농사 중심의 문화로 인해 한국에 쌀과 관련한 다양한 단어들이 생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라) 상술	(라)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문화로 인해 해당 문화권에 계절에 대한 세밀한 단어들이 생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대학 출제의도]

- 궁극적으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지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 일반적으로 ‘언어와 사고’,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평이하게 말하고 있다. 문제에서 [가]에서는 사물이나 현상이 이름으로 불려지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나]에서는 단어가 없어도 개념을 지각하고 사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이들은 서로 상반되는 예문이다.
- [가]와 [나]의 예문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다]와 [라]의 예문은 ‘언어와 문화’가 밀접한 관련에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된다.
- 궁극적으로 ‘언어와 사고’와 ‘언어와 문화’를 서로 부합되지 않는 예문과 부합되는 예문을 어떻게 파악하여 요약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학 제시문 해설]

- [가]는 ‘단어/이름/언어’가 있으면 사물이나 현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 [나]는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어도 “무지개”라는 개념을 지각한다고 보았다.
- [가]와 [나]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는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오래전부터 지어 오고 주식으로 밥을 먹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경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 많고,
- [라]는 어원족 사람들은 순록을 길러서 생활하는 목축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과 관련된 단어들 발달해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환경)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학 채점기준]

- (1) [가]에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지칭하는 사물이나 현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기술되어 있는가?
- (2) [나]에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예. ‘무지개’)가 없어도 그 사물이나 현상을 인지한다고 되어 있는가?
- (3) [가]를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생각하였고 [나]를 해당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어도 그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가]와 [나]를 대비하고 있는가?
- (4) [다]에서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오래전부터 지어 오고 주식으로 밥을 먹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단어들 많다고 보고 있는가?
- (5) [라]에서 어원족 사람들은 순록을 목축하므로 순록 목축과 관련이 있는 계절과 관련된 단어들 보다 더 세분

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가?

(6) [다]와 [라]에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밀접하게 보고 있는가?

상	S	위 요건 (1), (2), (3), (4), (5), (6) 모두를 잘 충족한 경우
	A	위 요건 (1), (2), (3), (4), (5), (6) 중 일부에서 기술이 조금 미흡한 경우
중	B	위 요건 (1)과 (2)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고, (3), (4), (5), (6)을 충족한 경우
	C	위 요건 (1)과 (2)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고, (3), (4), (5), (6)의 기술이 조금 미흡한 경우
	D	위 요건 (1), (2), (3) 또는 (4), (5), (6) 중 일부만 충족한 경우
하	E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F	백지 답안, 분량 미달(절반 이하) 등

[대학 예시답안] 339자

[가]는 ‘단어’가 있으면 사물이나 현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나]는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어도 “무지개”라는 개념을 지각하고 사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생각하였고 [나]는 해당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어도 그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와 [라]는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오래전부터 지어 오고 주식으로 밥을 먹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고, 어원적 사람들은 순록 목축은 계절과 관련된 단어들이 발달해 있는데, 이와 같이 언어는 그 언어가 처한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어휘화 시키는 사물이나 현상이 다르다.

동국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 2번

- ④ [가]의 관점에서 [나], [다]에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라]의 내용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시오. (400자 이내) [30점]

[가]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Merton, R. K.)은 범죄 통계에서 하층 노동 계급 청년들의 재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그들 개인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머튼에 따르면 미국 사회는 물질적 성공을 문화적 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을 위한 합법적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비난까지 받게 된다. 이는 이들에게 물질적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손에 넣기 위해 불법적 방법이라도 시도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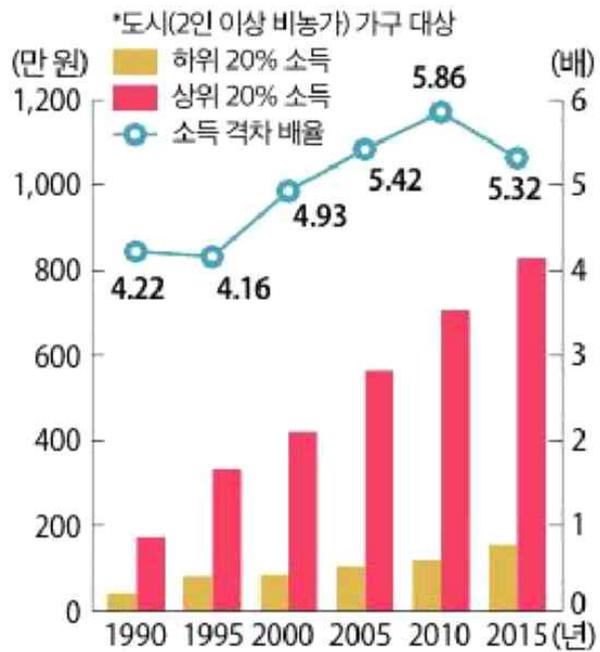
아래의 자료는 2010년대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빈부 격차의 심화와 같은 경제 불평등은 사회·문화·교육 등 대부분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사회 양극화로 계층 간, 집단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등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득 및 자산의 격차는 교육의 기회와 문화 경험의 격차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계층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거 양극화의 심화



(통계청, 2017)

상·하위 20% 소득 격차



(통계청, 2016)

- 『고등학교 한국사』

[다]

실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민 경제의 문제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실업으로 인한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겪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실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유용한 인적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국민 경제의 생산력이 저하되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이 증가하면 소득 분배 상황의 악화, 빈곤의 확산 등으로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

- 『고등학교 경제』

[라]

사회 복지 제도는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강화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3년도의 실업 급여 부정 수급자는 21,735명(부정 수급액 11,725백만 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그 수가 다소 감소하여 21,493명(부정 수급액 14,806백만 원)이었다. 또한, 세금의 투입으로 인한 지나친 복지의 강화는 일하고자 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가]의 관점에서 [나], [다]에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라]의 내용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시오. (400자 이내) [30점]

[독해]

- (가) 사회 문화 - 물질적 성공 압력 → 하층 노동자 청년의 범죄율 증가
- (나) 경제적 불평등 악화(양극화 심화) - 불평등 재생산(계층 대물림)
- (다) 실업 → 개인 및 사회적 악영향
- (라) 사회 복지 제도 → 삶의 질 향상 + 사회 통합, But 부정 비리 + 근로 동기 감소

[논리평면] 사실추론,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가)	사회 - 물질적 성공 압박 문화	하층 노동자의 범죄율 증가
대상	(나)	사회적 원인의 영향 → 사회적 대안 필요	양극화
	(다)		실업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라) 원인	사회적 대안 - 정부 개입(복지)	부정 비리, 근로 동기 감소
	(라) 대안	철저한 관리, 근로의욕 증가 유도	비리 근절, 근로 동기 관리
대상	(가)	사회적 대안 - 정부 개입	문제(비리, 동기 감소), 해결(비리 근절, 동기 관리)

[예시답안] 390자

문단	기능	내용
1-1	기준 핵심	우리 시대의 사회 문제는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기준 상술	(가)에는 하층 청년 노동자들의 범죄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성공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문화가 만든 결과라는 것이다.
1-2	주장	이와 같은 현상의 사례는 더 찾아볼 수 있다.
	대상 1	(나)에 나타난 불평등 재생산, 즉 양극화 심화 현상이나
	대상 2	(다)에 나타난 실업 문제는
	적용 1	모두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적용 2	따라서 정부 차원의 개입, 즉 복지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1-3	기준 핵심	하지만 이러한 정부 개입 방식이 갖는 문제도 있다.
	기준 상술	(라)에 나타나듯, 근로 의욕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4	주장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대상	(생략)
	적용	노동 의욕 증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제시문 [가]에 설명되어 있는 범죄 발생 이론에 기초하여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사회문제(즉, 실업으로 인한 빈곤의 악화,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에 대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이다. 덧붙여서, 제시문 [가]에 기초하여 추정된 대안을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대학 제시문 해설]

- 제시문 [가] : 머튼(Merton, R. K.)의 범죄이론을 설명하고 있음. 범죄의 발생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임을 주장하고 있음. 문화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사회적인 배경과 압력으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함
- 제시문 [나] : 2010년대 한국의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계층의 대물림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기술함.
- 제시문 [다] : 실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기술하고 있음. 특히, 실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및 빈곤의 악순환으로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음을 기술함.
- 제시문 [라] : 사회 복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과도한 사회 복지 제도가 불러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하여 논하고 있음.
- 일탈 행위 및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아노미 이론을 이해하고 범죄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기술해야 함.
- 제시문 [가]의 범죄 원인론에 대한 입장에 기초하여 제시문 [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 문제(즉, 계층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 통합의 어려움, 계층의 대물림)와 제시문 [다]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 문제(즉, 실업으로 인한 빈민층의 확대, 관계의 단절로 계층의 고립)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론하여야 함.
- 앞에서 제안한 문제 해결 방안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방안을 추론하여야 함.

[대학 채점기준]

- (1)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확인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수험생은 머튼의 이론에 기초하여 범죄의 발생 원인이 개인에 있지 않고 사회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가?
- (2) ‘제시문에서 제시된 논리에 기초하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수험생은 빈곤층 증가, 사회 불평등, 계층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문제임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범죄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 복지 제도의 시행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 (3) ‘자신이 주장한 대안을 자신과는 다른 관점에서 제기되는 비판을 인지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수험생은 사회복지제도가 가지는 단점을 인지하고 범죄 예방의 해결책과 사회복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예, 생산적 복지)을 인지하고 있는가?
- (4) ‘주어진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조직화하는 범주화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수험생은 전체 답안의 내용이 일관되고 통일된 논지를 유지하고 있는가? 또한, 전체 답안의 내용이 정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상	S	<p>위 요건 (1)~(4)를 충족하면서 글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서술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1)에서 범죄의 원인이 사회에 있음을 언급함 - 요건 (2)에서 빈곤층의 확대 및 계층 간 갈등의 심화, 계층의 세습화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인 사회 복지가 필요함을 인지 - 요건 (3)에서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로 ‘도덕적 해이’, ‘복지병’을 언급하고 범죄 예방 및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로 ‘생산적 복지’를 언급
	A	<p>위 요건 (1)~(4)를 충족했지만 글의 명료성이나 논리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1)에서 범죄의 원인이 사회에 있음을 언급함 - 요건 (2)에서 빈곤층의 확대 및 계층 간 갈등의 심화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인 사회 복지가 필요함을 인지 - 요건 (3)에서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로 ‘도덕적 해이’, ‘복지병’을 언급하고 있으나, 범죄 예방 및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로 ‘생산적 복지’를 언급하지 못함
중	B	<p>위 요건 (1)~(4)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전체 글이 분명하고 정합적으로 서술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1)에서 범죄의 원인이 사회에 있음을 언급함 - 요건 (2)에서 빈곤층의 확대 및 계층 간 갈등의 심화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인 사회 복지가 필요함을 인지 - 요건 (3)에서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로 ‘도덕적 해이’, ‘복지병’ 중 하나만을 언급하고 범죄 예방 및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로 ‘생산적 복지’를 언급하지 못함
	C	<p>위 요건 (1)~(4)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전체 글의 논지가 불분명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1)에서 범죄의 원인이 사회에 있음을 언급함 - 요건 (2)에서 빈곤층의 확대 및 계층 간 갈등의 심화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인 사회 복지가 필요함을 인지 - 요건 (3)에서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로 ‘도덕적 해이’, ‘복지병’과 범죄 예방 및 사회 복지 제도의 문제 점에 대한 해결로 ‘생산적 복지’를 모두 언급하지 못함
	D	위 요건 (1)~(4)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답안을 임의적으로 서술한 경우
하	E	물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안을 작성한 경우.
	F	백지 답안, 분량 미달(절반 이하) 등

[대학 예시답안] 439자

머튼의 범죄발생이론은 범죄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 달성의 실패로 보면서 범죄 발생의 책임이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다고 주장한다.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때문에 사회 관계망의 단절 및 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지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계층의 대물림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층 증가의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사회 복지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득 감소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 복지의 증가는 다양한 문제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 실업 급여의 부정 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와 복지 정책에 의존하여 일하지 않는 복지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근로 소득을 얻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활용이 필요하다.

동국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 3번

☞ [가], [나], [다]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라]의 창의력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700자 이내)
[40점]

[가]

은기 : 경민아, 어떡해. 큰일 났어.

경민 : 왜? 무슨 일이야?

은기 :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경민 : 왔던 길은 다시 가 봤어?

은기 : 다시 가 봤는데 없었어.

경민 :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 안 나? 가방은 찾아봤어?

은기 : 벌써 찾아봤지. 근데 없어.

경민 : 우선 학생증 재발급 신청하고, 지갑을 주운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벽보를 붙여봐.

은기 : 정말 속상해.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경민 :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을 아무 데나 놓고 다니면 어떡하니? 가방에 넣어 두든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지 해서 잘 보관했어야지. 앞으로는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

은기 : 안 그래도 속상한데 지금 그런 소리를 꼭 해야겠어?

경민 : 응? 갑자기 왜 화를 내?

- 『고등학교 국어』

[나]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인 ○○ 초등학교에서는 루마니아 출신 학생이 전교 부회장에 당선되기도 하고, 히잡을 쓰고 운동장을 달리는 학생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학교는 수준·나이 등으로 분류해 한 반에 15명 내외로 총 3개의 다문화 특별 학급을 운영 중이다. 특별 학급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분위기를 익혀 나가고, 일반 학급에서는 정규 수업을 받는다.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국적과 출신을 떠나 곧 친해지고 분위기에 잘 적응하곤 한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동양화의 특징 가운데 서양화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요소는 바로 ‘여백’이다. 여백이란 그림이 그려지는 화면에서 그려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빈 곳을 말한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지만, 그대로 하늘이 되기도 하고, 안개나 공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양화에서는 빈 곳을 허용하지 않는다. 작품에 빈 곳을 남기면 미완성작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산수화에서 하늘은 여백으로 비워진 공간이지만, 서양화에서 하늘은 색이 칠해진 하나의 구체적인 공간이었다. 그런데 서양화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 산수화에도 하늘을 채색한 그림이 등장하게 된다. 강희언(1738~?)의 『인왕산도』가 그것이다.

강희언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중인 화가로 적극적으로 서양화법을 수용했다. 그는 인왕산의 실제 경치를 그리면서 배경에 보이는 하늘 전체를 옅은 푸른색으로 채색했다. 이는 기존의 산수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여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특별한 시도였다. (……) 하지만 서양화법의 유행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정신’을 중시하는 동양화의 전통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동양화와 서양화에 나타나는 이 같은 차이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양인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서양인이 삶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그만큼 다른 회화적 표현을 낳았던 듯하다.

- 『고등학교 국어』

[라]

(……) 서로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이 창의력이라면, 연결할 거리들은 뇌 속에 있는 정보와 자료가 다, 창의력이 좋아지려면 제일 먼저 연결할 거리들이 많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상 속 경험과 지식, 소통이 늘어나야 한다.

먼저 일상 속 ‘경험’. 예를 들어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 주는 여행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여행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어서 여행은 여러 분야에서 창의성을 길러 준다. (……)

마지막으로 ‘소통’. 나는 철학, 역사,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과 자주 만난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나와 성향이나 감성이 달라서 신선한 인상을 받을 때가 많다. 사람들과의 이런 소통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받을 때가 자주 있다. (……)

호기심은 자꾸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생겨나기 마련이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호기심을 잃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자. (……)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의 틀을 깨면, 이 문제는 무척이나 쉽게 풀린다. 생각의 틀을 깨려면, 그래서 창의력을 키워나가려면, 고정관념의 틀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 『고등학교 국어』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 [가], [나], [다]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라]의 창의력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700자 이내)
[40점]

[독해]

- (가) 은기의 공감 지향 방식의 대화와 경민의 해결 지향 방식의 대화 간의 차이로 인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 (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관습이 공존하는 초등학교의 모습 (→ 상호 이해가 부족해지면 갈등 발생 가능)
- (다) 동서양의 세계관 차이 - 정신을 강조하는 동양의 세계관 → 회화적 특성 차이 - 서양적 화법 수용 낮음
- (라) 개방성과 호기심을 갖고 일상 경험과 소통을 늘리면 → 정보를 풍부하게 연결하여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라)	개방적 호기심 갖고 소통을 늘리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
대상	통합	타자와의 차이로 인해 소통 부족 위험 → 개방성 갖고 소통하면	사회의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가)	대화 방식의 차이로 소통 불가	
	(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 학생들	
	(다)	세계관 차이로 인한 동서양의 차별적 화법	

[예시답안] 693자

문단	기능	내용
1	대상 통합	현대 사회는 차별적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통 부족의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다.
	대상 상(가)	(가)에는 대화 방식의 차이로 인한 소통 불능 문제가 나타난다. 은기는 공감을 지향하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고, 경민은 해결을 지향하는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법의 차이는 둘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상 상(나)	(나)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모인 초등학교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가 조금만 부족해도 쉽게 소통이 저해될 수 있다.
	대상 상(다)	(다)에는 세계관 차이로 인해 발생한 차별적 화법이 제시된다. 동양은 정신을 중시하여 여백을 활용하는데, 서양은 물질을 중시하여 여백을 미완의 요소로 여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양식 화법이 동양에 도입되었다가 뿌리내리지 못한 사례도 있다.

2	주장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방성이 필요하다.
	기준 핵심	개방적 관점이 소통을 늘릴 뿐더러 창의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 상술	(라)가 말하듯, 개방적인 호기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과 소통을 축적해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적용 (가)	(가)의 은기와 경민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함으로써 창의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적용 (나)	(나)의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문화 간 연결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며,
	적용 (다)	(다)의 동서양은 서로의 세계관을 공부함으로써 각자의 미술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본 문항은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대인간 상호작용을 생산적, 창의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 및 자세를 파악하고자 의도하였다.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적 소통, 다문화 상황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 서로 다른 문화권의 세상을 보는 인식과 태도 및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된다. 특히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지식, 소통이 필요하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및 존중과 공존하려는 자세,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 서로 다른 차이와 관점에 대해 개방성을 갖고 배움으로써 창의력 개발 기회로 삼는 태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대학 제시문 해설]

본 문항은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대인간 상호작용을 생산적, 창의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 및 자세를 파악하고자 의도하였다. 첫 번째 제시문은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한 사람은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상대방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공감적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화를 할 때 상대의 표현 내용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더불어 말의 이면에 담긴 의미와 의도와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문화 상황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에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이 요구된다.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문화권의 세상을 보는 인식과 태도 및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청된다. 특히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지식, 소통이 필요하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및 존중과 공존하려는 자세,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 서로 다른 차이와 관점에 대해 개방성을 갖고 배움으로써 창의력 개발 기회로 삼는 태도가 요구된다.

-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이해 : 관계 형성, 문제 해결 등
- 공감적 경청과 소통 : 상대의 표현 내용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더불어 말의 이면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
- 문화 차이의 존재를 파악하고 나와 다른 관점에 대한 수용성을 갖추기
-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
- 서로 다른 차이와 관점에 대해 개방성을 갖고 배움으로써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여 다양성을 창의력 개발 기회로 삼는 태도

[대학 채점기준]

<제시문 [가], [나], [다]의 상황에 대한 이해>

- * 제시문 [가] :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식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발생
 - 은기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경민의 공감을 원하는 관계 지향적 의사소통 방식
 - 경민은 은기가 처한 상태에 대한 공감보다는 문제해결 방식의 의사소통 방식
- * 제시문 [나] :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관습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 간에 서로 잘 지내는 사례를 보여줌. 만약 서로간 이해가 부족하고 잘 어울리지 않거나 못할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음.
- * 제시문 [다] : 여백에 대한 회화적 표현 방식의 차이가 갖고 있는 동양인과 서양인 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 대한 글로 생각의 차이가 회화의 표현 방식에서 차이를 낳는 것처럼 문화권 간의 생각의 차이를 모르면 상대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제시문 [라]의 창의력 개발 관점과 다양성>

제시문 [라]에서는 창의력이 좋아지려면 서로 관계 없는 것들 간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함. 사람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은 창의력 개발을 위한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성을 창의력 개발의 계기로 삼는 능력이 요구됨

1) 창의력 개발(연결거리 갖추기)에 필요한 내용(제시문):

- 풍부한 경험과 지식
-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의 만남
- 성향과 감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과 개방성
-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기

2) 이를 위해서 다음 내용이 요구됨(제시문)

- 의사소통 능력 : 대화 시 상대의 말의 이면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고 공감하는 능력
-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제고: 고정관념의 틀 깨기, 문화적 차이를 고정관념과 편견 없이 이해하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능력

- 상호 존중과 배우려는 자세: 서로 다른 문화권의 세상을 보는 인식과 태도 및 표현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
- 개방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

상	S	1) [가], [나], [다] 제시문의 상황에 나타난 핵심 내용을 모두 정확히 적시하고, 2) 다양성을 통해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3) 차이와 다양성을 접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자세를 3가지 이상 기술한 경우
중	A	S의 기준에 맞게 3가지를 모두 제시하고 있지만 1가지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나타난 경우
	B	S의 기준에 맞게 3가지를 모두 제시하고 있지만 2가지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거나, S의 기준 2가지만을 제시한 경우
	C	3가지를 제시하는 하지만 모두 설명이 약간 미흡한 경우
	D	2가지만 설명한 경우
하	E	1가지만 설명한 경우
	F	백지 답안, 분량 미달(1/3 이하)

[대학 예시답안] 688자

[가]에서 은기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경민의 공감을 원하지만 경민은 은기가 처한 상태에 대한 공감보다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말을 하여 오해와 갈등이 생겼다. [나]의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관습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 간에 이해가 부족하고 어울리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다]에서는 동양인과 서양인 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회화의 표현 방식에서 차이를 낳는 것처럼 문화권 간의 생각의 차이를 모르면 상대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라]에서는 창의력이 좋아지려면 서로 관계없는 것들 간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한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의 만남, 성향과 감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과 개방성,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기 등은 연결거리를 많이 갖추게 할 수 있다. 즉 사람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은 창의력 개발을 위한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 시 상대의 말의 이면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고 공감할 줄 있어야 한다. 문화적 차이를 고정관념과 편견 없이 이해하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세상을 보는 인식과 태도 및 표현 방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개방성을 갖고 배움으로써 창의력 개발의 계기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균관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 1번

☞ <제시문 1> ~ <제시문 3>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만일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특별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문명, 지식, 교육, 문화 등과 같은 용어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런 모든 것들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조건임을 깨닫는다면, 자유를 가벼이 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성과 사회적 통제 사이에 적절한 선을 긋는 일이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들 다수가 자발성을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의 일부로서 간주하는 것은 고사하고,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고 경계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자기만의 관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점이 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경험의 중심이자, 주관성의 초점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그만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있어서 우리는 늘 그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사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다.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생각에 그들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각 개인에 내재한 인간성에 일련의 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성을 향해 어떤 태도, 즉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뜻일 것이다. 이 인간성에는 이성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욕망이나 충동에도 각자 나름의 특성이 담겨 있으며, 각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충동을 일정 정도로 느끼는 것이 위험하거나 크게 나쁜 일이 아니다. 욕망과 충동 역시 신념과 자제 못지않게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간에게는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의 삶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 그 자체이다.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것들을 획일적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잘 가꾸고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은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창작물이 창작자의 성격을 반영하듯이, 인류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한껏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인간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삶도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며 활력이 넘칠 것이다. 고귀한 생각과 고결한 감정을 더욱 북돋워주게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끈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각자의 개별성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며, 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해 더욱 충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 2>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공급, 소득 재분배와 같은 활동들은 국가가 조직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풍요로운 사회는 전부 국가로 조직되어 있고, 국가가 없는 사회는 전부 극도로 궁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들이 있다.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반(反)국가 이데올로기는 첨단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표방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공식 통화에 등을 돌릴 테니 국가가 주관하는 국정 화폐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갈아치울 것이다”, “새로 출현하는 각종 인터넷 편의 도구를 갖춘 슈퍼맨 같은 개인들이 저마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할 것이므로 국가가 강제하는 규제는 무시당하거나 무력해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사되는 개인 대 개인의 연결이 공간적으로 제약되는 국민 국가를 갈아치울 것이다”, “산업 세계의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모두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대한 전체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윤리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더 우월할 것이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자신만만한 미래상이다.

이들의 생각은 구체적으로는 최근의 기술적 조류인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메타버스란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3차원 가상현실 공간을 말한다. 기실 메타버스는 기술결정론자들의 꿈의 공간이라 할 만하다. 메타버스를 기술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인류의 해방을 돕는 유토피아적 기획으로 읽히게 마련이다. 인종, 성별, 나이, 외모, 국적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것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해방의 공간이자 역사적 고통과도 단절할 수 있는 이상적 도피처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획의 이면을 읽어내지 못하고 도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지닌 정치적 이슈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1995년 리처드 바브룩 등은 메타버스의 탄생이 왜 세계 첨단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열망이자 필연일 수밖에 없는가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바브룩은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의 욕망이 향하는 지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실리콘밸리의 이데올로기는 정보테크놀로지가 개인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며, 또한 국민 국가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축소한다고 주장한다. 현존하는 사회적·정치적 및 사법적 권력구조는 자율적인 개인과 그들의 소프트웨어 사이의 제약 없는 상호작

용에 의해 대체되면서 사라질 것이다.” 실제 유명 기업의 임원인 존 카맥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가상현실(VR)의 연약은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메타버스 예찬론자이기도 한 그는 기술기업들이 창조한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고통 없는 인류,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파한다. 아바타처럼 자신의 모습을 언제든지 변형할 수 있고 실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와 제약, 갈등과 고통과 이별할 수 있기에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미 연방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하게 조여오고, 애플과의 경쟁에서 패한 뒤로 메타버스 기술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페이스북의 눈에 현실 세계는 너무나 비대한 국가권력이 자유를 옥죄고 있고, 회사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눈엣가시 같은 경쟁기업들이 많기에 자신만의 메타버스에서 그들만의 통치체제에 따라 유토피아적 가상 행성을 만들려는 욕망을 불태우는 중이다. VR의 침체기를 넘어 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기술세력이 권력을 쟁취하고 인류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해방구일 수밖에 없다. 그 공간에서는 정부에 불려 다닐 일도 없고 정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행성이다.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가 페이스북 특유의 반국가주의적 철학으로 스며들고 있는 지금, 메타버스 마케팅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제시문 3>

외적의 침입과 상호 간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 모두의 ‘인격’(人格)을 지니는 한 사람 혹은 합의체를 임명하여, 그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던, 혹은 백성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던, 각자가 그 모든 행위의 ‘본인’(本人)이 되고, 또한 본인임을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종속시키고, 개개인의 다양한 판단들을 그의 단 하나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의 혹은 화합 이상의 것이며,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만인이 만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과 같다.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단 그대도 그대의 권리를 양도하여 그의 활동을 승인한다는 조건 아래.”

이것이 홉스가 말한 국가의 본질이다. 홉스는 이 인용문에 이어서 국가를 “다수의 사람들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각자가 그 인격이 하는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국가란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권력을 모두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신의계약에 따라 설립된 ‘인위적 인격’으로, 평화와 공동방위의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힘과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국가는 다수의 인간이, 상호 평화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만인 상호간에 합의하여 다수결에 의해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사람 혹은 합의체에 찬성투표한 자나 반대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승인하기로 ‘신의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신의계약을 통해 그들의 모든 권력을 대표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설립된 주권 곧 국가권력은 절대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로 주체적으로 합의하였고, 계약의 주체로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홉스는 이러한 논거들에 기초하여 절대주권론을 주장한다. 이러한 절대주권론의 옹호는 사회철학자들이 홉스를 비판하는 요점의 하나이다. 홉스 자신도 이렇게 지나치게 강력한 절대주권에 대한 반론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겪는 그 어떠한 극심한 불편도 내란에 따르는 비참과 공포의 재난에 비하면, 또한 법에 대한 복종도 없고, 약탈과 복수를 못하도록 그들의 손을 묶는 강제력도 없이, 즉 지배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열 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절대주권론을 옹호하는 홉스의 답변이다.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정념은 너무나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권력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으므로, 주권의 절대성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절대주권론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그의 도구적 이성관에서 도출된 논리적 귀결이며 다소 극단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오늘날 상황에서도 여전히 상당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 <제시문 1> ~ <제시문 3>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독해]

(제시문 1) 개인 고유성의 자유로운 발달 - 개별성 강화 → 개인의 행복 + 문화 발달 + 공동체 연대

(제시문 2) 메타버스의 발달은 기술세력이 무분별하게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 → 비효율과 부정의

(제시문 3)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양도하여 국가 설립 → 평화와 안보 + 삶의 질 향상

[논리평면] 분류 & [예시답안] 729자

문단	기능	내용
1	화제&쟁점	개인의 자유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입장 A	국가 개입을 찬성론은 제시문 (2)와 (3)이 있고,
	입장 B	국가 개입을 반대론은 제시문 (1)이 있다.
2	주장	먼저 필요에 따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논거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국민의 안전과 삶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증거	<제시문 3>에 나타나듯,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 양도 합의로 국가가 탄생했고, 이러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 세상의 평화와 풍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비록 국가의 작동 과정 안에는 강제력 동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불편은 국가가 부재할 때 나타나는 절망적 혼란에 비하면 기꺼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논거	이렇듯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시도는 비효율과 부정의로 귀결될 수 있다.
	증거	<제시문 2>에 나타난 메타버스의 발달은 기술세력으로서의 기업들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무법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은 결국 세상의 정의와 풍요를 위협할 것이다.
3	주장	반면 국가적 통제가 없는 사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논거	왜냐하면 개별성의 충분한 발전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증거	<제시문 1>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성, 즉 개인의 고유성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서 마땅히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며, 각 개인의 개별성이 자유롭게 발전할 때,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문화적 발전과 공동체 연대성 강화까지 수반된다는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2022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 대학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창의성과 논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분류요약능력, 자료평가 및 사례활용능력, 비판 능력, 논술논증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2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이전의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이번 모의논술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 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개인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 및 언론의 기능과 참여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통합사회』, 『경제』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는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 1]의 제시문은 관련 학자의 글, 대중매체에 등장한 기고문 등의 다양한 자료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맞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며, 문제 의도에 맞게 출제진이 수정, 변형하거나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견해가 사회적으로 표현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층위를 학생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학 평가 항목과 문항별 배점]

그동안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대학에서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 ①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채점등급별 점수

① A 등급: 40점	② B 등급: 32점	③ C 등급: 24점
④ D 등급: 16점	⑤ E 등급: 8점	⑥ F 등급: 0점

[대학 채점기준]

[문제 1]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해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다음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의 핵심 주장을 잘 정리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출제된 제시문이 총 세 개이기 때문에 한 입장은 제시문 하나만 요약하면 되지만 다른 입장은 두 개의 제시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요약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하였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지만,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다라도 이를 종합하여 그 입장의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을 감수해야 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제시문의 길이는 늘어났고, 제시문 수는 줄어들어 조금 더 호흡이 긴 글에 대한 이해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난이도는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1>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제시문 2>, <제시문 3>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독해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제시문의 논지를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시문 1>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성의 발달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관점은 물론이고 각자의 욕망이나 충동도 각자의 인간성을 이루는 필수 요소가 되므로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개별성이 발전해야 스스로에게 가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 연대의 끈이 더 강해질 것이므로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제시문 2>는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공급,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적대시하는 실리곤벨리 자유지상주의자를 비판한다. 특히 최근 기술적 조류인 메타버스를 국가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유토피아적 기획으로 보는 그들의 생각 밑에는 정부의 간섭과 견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완벽히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에 비판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시문 3>은 우선 국가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양도함으로써 성립되는 인위적 인격으로서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무제한적 권력을 가진다고 본 홉스의 절대주권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강력한 절대주권이 주는 불편함은 지배자가 없을 경우 초래되는 무질서로 인한 비참과 공포, 약탈과 분열 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홉스의 변호가 오늘날에도 상당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결국 <제시문 3>은 국가의 간섭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초래되는 무질서를 고려할 때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 2>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기술을 장악한 자본이 정부의 간섭을 벗어나 인류를 자유롭게 지

배하려는 기획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간섭이 없어져서 공적 기능이 약화될 경우 기업이 무분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생겨날 것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와 같이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기초로 각 입장을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이 둘일 경우에는 둘 사이의 논점 차이와 관계까지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대학 채점등급]

- A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섬세하게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 B :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종합한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 D :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 E :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성균관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 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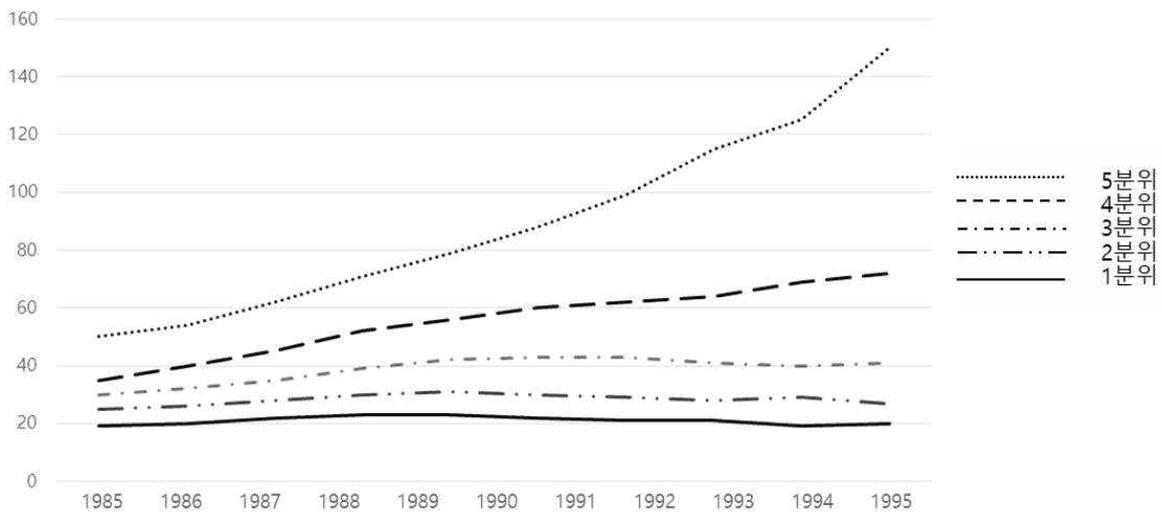
☞ 아래 <사례 1>과 <사례 2>를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 (40점)

<사례 1>

국가 A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985년도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전격 시행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고 10년 동안 국가 A에는 아래 <그림 1>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1>

실질소득(단위: 백만원)



* 주: 그림의 분위는 국민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누어서 분류한 계층을 의미. 5분위는 최상위 20%, 1분위는 하위 20%를 의미함.

<사례 2>

전통적으로 민권보다 국권이 우위에 있던 국가 B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강조하는 국권 우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민권우위 사회로 변신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첨단 기술산업 분야의 신규 특허출원 건수도 급증했다. 또한,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어 공업중심 경제구조로 재편되었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 아래 <사례 1>과 <사례 2>를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 (40점)

[독해]

(제시문 1) 개인 소유성의 자유로운 발달 - 개별성 강화 → 개인의 행복 + 문화 발달 + 공동체 연대

(제시문 2) 메타버스의 발달은 기술세력이 무분별하게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 → 비효율과 부정의

(제시문 3)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양도하여 국가 설립 → 평화와 안보 + 삶의 질 향상

<사례 1> 국가적 통제를 감소시킨 결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사례 2> 국권을 줄이고 민권을 보강한 결과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했으며, 경제 규모 및 구조적 발전이 나타났다.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사례 1>	국가적 통제 감소	사회 양극화 심화	참
대상	<제시문 1>	개별성 발달	행복 + 문화 발전 + 연대	거짓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사례 2>	민권 자유 보강	문화 다양성 + 경제 발전	참
대상	<제시문 2>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 변화	비효율 + 부정의	거짓
	<제시문 3>	국가의 절대적 통제	평화 + 풍요	거짓

[예시답안] 1036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핵심	국권의 통제가 약화되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기준 상술	<사례 1>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A가 ‘작은 정부’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활동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 및 해제했다. 그런데 그 이후 10년 동안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간 격차는 3배 증가했다. 최상위 계층인 5분위의 소득만 현저히 증가하고, 1분위~3분위의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2	주장	따라서 국가 통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
	대상	<제시문 1>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성이 충분히 강화되면 개인의 행복은 물론, 문화도 발전하고, 공동체 연대도 발전한다고 한다.
	적용	하지만 이러한 발전상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상위 계층만 누리는 배타적 권익이었다. 그들만의 행복이고, 그들만의 다양성이며, 그들만의 연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권익 향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3	기준 핵심	이와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적 통제의 감소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현상도 존재한다.
	기준 상술	<사례 2>에서 볼 수 있듯이, 국권 우위였던 국가 B가 민권을 강화시키자 문화 다양성이 증가했고, 경제 규모는 물론 경제 구조적 차원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4	주장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국가 통제를 주장하는 입장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대상	<제시문 3>은 국가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양도 받은 주체로서 평화와 풍요를 책임지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다.
	적용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다르게 국가의 통제가 감소해야 문화적 평화가 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풍요가 가능해진다. 개별 주체의 자유가 갖는 힘을 간과한 국가중심자들의 생각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대상	또한 <제시문 2>는 메타버스라는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무분별하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기업의 저의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적용	하지만 이러한 기술자들의 사적 이익 추구가 보장되어야 사회에 창의적인 성과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사회적 차원의 경제도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이다. 일군의 기업이 아무리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가 자신들에게만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2022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 대학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창의성과 논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분류요약능력, 자료평가 및 사례활용능력, 비판 능력, 논술논증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2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이전의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이번 모의논술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 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개인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 및 언론의 기능과 참여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통합사회』, 『경제』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는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 2]의 <사례> 역시 고등학교 교과 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가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경우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학 평가 항목과 문항별 배점]

그동안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대학에서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 ①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창의성: 15%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채점등급별 점수

① A 등급: 40점	② B 등급: 32점	③ C 등급: 24점
④ D 등급: 16점	⑤ E 등급: 8점	⑥ F 등급: 0점

[대학 채점기준]

[문제 2]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자신의 주장을 자료나 사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문제 1]에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제시문 1〉)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제시문 2〉와 〈제시문 3〉)이 등장한다. 학생들은 〈사례 1〉과 〈사례 2〉를 활용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비판해야 한다.

〈사례 1〉에 제시된 〈그림 1〉은 국가 A의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 준다. 이 자료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된 1985년을 기점으로 소득수준 최상위인 5분위 집단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집단들은 실질소득의 증가가 미미하거나 실질소득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득 최상위 집단(5분위)과 최하위 집단(1분위) 간의 격차는 계속 큰 폭으로 나타나고, 이 정책이 10년 이 지난 1995년에 이르면 그 차이가 극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국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은 부유한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심각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하고 ‘승자독식’의 사회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논리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시하고 사람들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해주면 인류가 평화롭고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제시문 1〉의 자유주의적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더해 〈그림 1〉에 나타난 빈부격차, 소득 양극화, 승자독식 등의 현상을 〈제시문 2〉와 연결지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즉, 자율적 개인들이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인류를 유토피아로 이끌

것이라는 실리콘밸리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기실 기업의 이윤을 무한대로 추구하고 극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에는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또한 <그림 1>을 <제시문 3>과 연계하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부여하면 결국 약탈과 분열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신의계약을 통해 국가권력에 절대성을 부여했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하기보다는 국가권력이 개입이 필요하며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함을 추가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례 2>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강조하는 국권우위 사회였던 국가 B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권우위 사회로 변신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사례 2>에 따르면 국가 B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규제와 통제보다 중요시하는 민권우위 사회로 전환되면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시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국내총생산(GDP)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첨단 산업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공업의 비중이 농업보다 큰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재편되었다.

이 사례를 토대로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없애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 결국에는 자율적 개인들이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이 논리에 따라서 자유주의의 위험성과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는 <제시문 2>를 반박하고, 특히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고 국민국가의 권력을 축소함으로써 오히려 다양성이 존중되며 차별 없고 풍요로운 사회구현이 가능함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사례 2>를 활용하여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번영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국가 주권은 절대성을 지닌다는 <제시문 3>의 주장도 직접 반박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제시문 1>과 관련지어 개인의 욕망과 충동이 지니는 순기능을 논하고,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율성과 개별성이 충분히 신장되면 차별과 불평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끈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시문 3>을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사례 1>을 활용하여 <제시문 1>에 등장한 자유주의 옹호론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규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사례 2>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 승자독식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어 모두가 풍요롭고 평화롭게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는 어려움을 주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례 2>를 활용하여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 등장한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반박하고, <사례 1>과 같은 부작용이나 제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신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문 1>과 연계하여 주장할 수 있다.

정리하면, [문제 2]에서는 두 가지 입장 중 본인이 어떤 입장을 옹호하는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사례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활용하여 각 입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 1>과 <사례 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인 비판을 전개한 답안을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한다.

[대학 채점등급]

A : <사례 1>과 <사례 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두 가지 입장 각각

에 대해서 충분하고 논리적인 비판을 전개한 답안

- B : <사례 1>과 <사례 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비판을 전개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 C : <사례 1>과 <사례 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입장을 각각 비판했으나 해당 제시문들을 충분히 연계시키지 못하여 비판의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 D : <사례 1>과 <사례 2>에 제시된 현상은 정확하게 이해했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각 사례와 잘못 연결되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비판한 불충분한 답안
- E : <사례 1>과 <사례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부적절한 주장을 제시한 답안
- F : <사례 1>과 <사례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비판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성균관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 3번

☞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사례를 모두 활용하여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시오. (20점)

<제시문 1>

만일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달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특별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문명, 지식, 교육, 문화 등과 같은 용어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런 모든 것들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조건임을 깨닫는다면, 자유를 가벼이 여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성과 사회적 통제 사이에 적절한 선을 긋는 일이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들 다수가 자발성을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의 일부로서 간주하는 것은 고사하고,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고 경계의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자기만의 관점,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점이 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경험의 중심이자, 주관성의 초점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그만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있어서 우리는 늘 그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사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다.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생각에 그들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각 개인에 내재한 인간성에 일련의 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성을 향해 어떤 태도, 즉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뜻일 것이다. 이 인간성에는 이성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욕망이나 충동에도 각자 나름의 특성이 담겨 있으며, 각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충동을 일정 정도로 느끼는 것이 위험하거나 크게 나쁜 일이 아니다. 욕망과 충동 역시 신념과 자제 못지않게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간에게는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의 삶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 그 자체이다.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것들을 획일적으로 묶어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잘 가꾸고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은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창작물이 창작자의 성격을 반영하듯이, 인류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한껏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인간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삶도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지며 활력이 넘칠 것이다. 고귀한 생각과 고결한 감정을 더욱 북돋워주게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끈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각자의 개별성이 발전하는 것과 비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며, 또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해 더욱 충만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제시문 2>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공급, 소득 재분배와 같은 활동들은 국가가 조직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풍요로운 사회는 전부 국가로 조직되어 있고, 국가가 없는 사회는 전부 극도로 궁핍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들이 있다.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큰 반(反)국가 이데올로기는 첨단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유시장주의자들이 표방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공식 통화에 등을 돌릴 테니 국가가 주관하는 국정 화폐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갈아치울 것이다”, “새로 출현하는 각종 인터넷 편의 도구를 갖춘 슈퍼맨 같은 개인들이 저마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할 것이므로 국가가 강제하는 규제는 무시당하거나 무력해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사되는 개인 대 개인의 연결이 공간적으로 제약되는 국민 국가를 갈아치울 것이다”, “산업 세계의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모두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대한 전체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윤리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더 우월할 것이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자신만만한 미래상이다.

이들의 생각은 구체적으로는 최근의 기술적 조류인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메타버스란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3차원 가상현실 공간을 말한다. 기실 메타버스는 기술결정론자들의 꿈의 공간이라 할 만하다. 메타버스를 기술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인류의 해방을 돕는 유토피아적 기획으로 읽히게 마련이다. 인종, 성별, 나이, 외모, 국적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것의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해방의 공간이자 역사적 고통과도 단절할 수 있는 이상적 도피처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획의 이면을 읽어내지 못하고 도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지닌 정치적 이슈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1995년 리처드 바브룩 등은 메타버스의 탄생이 왜 세계 첨단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열망이자 필연일 수밖에 없는가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바브룩은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의 욕망이 향하는 지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실리콘밸리의 이데올로기는 정보테크놀로지가 개인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며, 또한 국민 국가의 권력을 근본적으로 축소한다고 주장한다. 현존하는 사회적·정치적 및 사법적 권력구조는 자율적인 개인과 그들의 소프트웨어 사이의 제약 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대체되면서 사라질 것이다.” 실제 유명 기업의 임원인 존 카맥은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가상현실(VR)의 언약은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메타버스 예찬론자이기도 한 그는 기술기업들이 창조한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만 고통 없는 인류,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파한다. 아바타처럼 자신의 모습을 언제든지 변형할 수 있고 실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와 제약, 갈등과 고통과 이별할 수 있기에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특히 페이스북은 미 연방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하게 조여오고, 애플과의 경쟁에서 패한 뒤로 메타버스 기술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페이스북의 눈에 현실 세계는 너무나 비대한 국가권력이 자유를 옥죄고 있고, 회사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눈엣가시 같은 경쟁기업들이 많기에 자신만의 메타버스에서 그들만의 통치체제에 따라 유토피아적 가상 행성을 만들려는 욕망을 불태우는 중이다. VR의 침체를 넘어 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기술세력이 권력을 쟁취하고 인류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해방구일 수밖에 없다. 그 공간에서는 정부에 불려 다닐 일도 없고 정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행성이다.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가 페이스북 특유의 반국가주의적 철학으로 스며들고 있는 지금, 메타버스 마케팅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제시문 3>

외적의 침입과 상호 간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 모두의 ‘인격’(人格)을 지니는 한 사람 혹은 합의체를 임명하여, 그가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던, 혹은 백성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던, 각자가 그 모든 행위의 ‘본인’(本人)이 되고, 또한 본인임을 인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의지를 그의 의지에 종속시키고, 개개인의 다양한 판단들을 그의 단 하나의 판단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의 혹은 화합 이상의 것이며,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단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만인이 만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과 같다.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단 그대도 그대의 권리를 양도하여 그의 활동을 승인한다는 조건 아래.”

이것이 홉스가 말한 국가의 본질이다. 홉스는 이 인용문에 이어서 국가를 “다수의 사람들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각자가 그 인격이 하는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국가란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권력을 모두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신의계약에 따라 설립된 ‘인위적 인격’으로, 평화와 공동방위의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힘과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국가는 다수의 인간이, 상호 평화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만인 상호간에 합의하여 다수결에 의해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사람 혹은 합의체에 찬성투표한 자나 반대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승인하기로 ‘신의계약’을 체결할 때 설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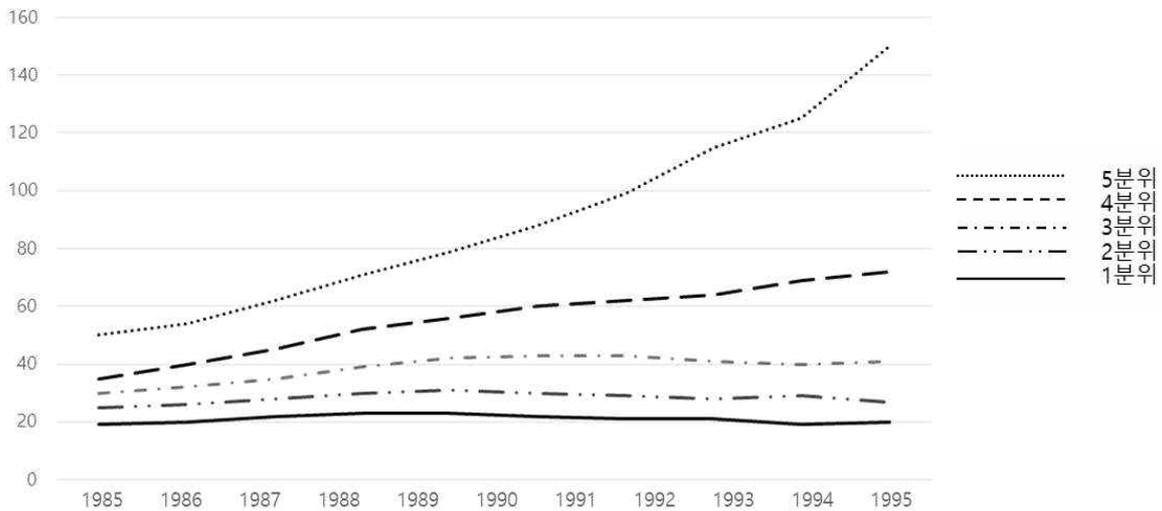
이와 같이 국민들이 신의계약을 통해 그들의 모든 권력을 대표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설립된 주권 곧 국가권력은 절대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로 주체적으로 합의하였고, 계약의 주체로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홉스는 이러한 논거들에 기초하여 절대주권론을 주장한다. 이러한 절대주권론의 옹호는 사회철학자들이 홉스를 비판하는 요점의 하나이다. 홉스 자신도 이렇게 지나치게 강력한 절대주권에 대한 반론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겪는 그 어떠한 극심한 불편도 내란에 따르는 비참과 공포의 재난에 비하면, 또한 법에 대한 복종도 없고, 약탈과 복수를 못하도록 그들의 손을 묶는 강제력도 없이, 즉 지배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열 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절대주권론을 옹호하는 홉스의 답변이다.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정념은 너무나 견고한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 권력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가 없으므로, 주권의 절대성은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절대주권론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그의 도구적 이성관에서 도출된 논리적 귀결이며 다소 극단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오늘날 상황에서도 여전히 상당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사례 1>

국가 A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985년도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전격 시행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고 10년 동안 국가 A에는 아래 <그림 1>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1>

실질소득(단위: 백만원)



* 주: 그림의 분위는 국민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뉘어서 분류한 계층을 의미. 5분위는 최상위 20%, 1분위는 하위 20%를 의미함.

<사례 2>

전통적으로 민권보다 국권이 우위에 있던 국가 B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부의 통제와 규제를 강조하는 국권 우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민권우위 사회로 변신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첨단 기술산업 분야의 신규 특허출원 건수도 급증했다. 또한,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어 공업중심 경제구조로 재편되었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사례를 모두 활용하여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시오. (20점)

[독해]

(제시문 1) 개인 고유성의 자유로운 발달 - 개별성 강화 → 개인의 행복 + 문화 발달 + 공동체 연대

(제시문 2) 메타버스의 발달은 기술세력이 무분별하게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 → 비효율과 부정의

(제시문 3)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양도하여 국가 설립 → 평화와 안보 + 삶의 질 향상

<사례 1> 국가적 통제를 감소시킨 결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사례 2> 국권을 줄이고 민권을 보강한 결과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했으며, 경제 규모 및 구조적 발전이 나타났다.

[논리평면] 견해(논쟁) - 국가 개입 반대론의 입장에서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통합	국가의 개입	합리 및 본질적 측면에서 부정적	Good
	<제시문 1>	개별성 강화	행복 + 문화 발달 + 연대	
	<사례 2>	민권을 보장	문화 다양성 + 경제 발전	
대상	부동산 정책	국가의 경제적 자유 통제	부당하고 손해 발생	bad
	<제시문 2>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비효율과 부정의 → 결국 효율적이고 정당할 것	bad
	<제시문 3>	국가의 절대적 통제력	평화와 풍요 → 결국 갈등과 비효율로 귀결될 것	bad
	<사례 1>	국가 통제 감소되니	양극화 심화 → 결국 효율적으로 조정될 것	bad

[예시답안] 1102자

문단	기능	내용
1	대상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개입하고 있는데,
	주장	이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기준 핵심	민간에 대한 국가 개입인 결국 합리적, 본질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기준 상술	<제시문 1>을 보면, 각 개인은 그 개별성, 즉 고유성을 널리 발달시켜야 결국 개인적 행복을 쟁취할 수 있고, 이러한 자유 확장이 결국 문화적 발달과 사회적 연대를 가져온다.
	적용	즉, 정부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의 다양성과 참여자 간 유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2	기준 핵심	또한 개별적 자유를 보장할 때, 그 공동체의 다양성을 높이고 경제적 발전을 일굴 수 있다.
	기준 상술	<사례 2>에 나타나듯, 국가가 민권의 자유를 보장할 때, 문화도 다양해지고, 경제의 규모 및 구조의 발전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적용	이처럼,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가 보장되면 획일적으로 흐르는 부동산의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있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발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예상반론	물론,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기준 핵심	정부가 개입해야 개인이든 사회든 건강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 상1	<제시문 2>에 나오듯, 기업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극단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존재이며,
	기준 상2	<제시문 3>에서 말하는 국가의 절대적 통제력이 있어야 이기적 개별자들을 조정하여 평화와 풍요를 일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 상3	실제로 <사례 1>에 나타나듯,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 분배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적용	이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더욱 더 심각한 양극화가 발생해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시장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며, 결국 부가 감소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4	재반박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옹호받을 수 없다.
	기준	(생략)
	적용	부동산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생긴 잠깐의 질서와 풍요는 결국 단기적 차원의 현상일 뿐이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결국 참여자의 불만과 참여자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 획일화를 만들어내서 자산의 불평등 편중 강화라는 기형적 상황을 양산하고 있다.
	재주장	그러므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을 멈추고,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정상적인 시장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2022학년도 모의논술(인문계)은 우리 대학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이 자신의 창의성과 논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 하에서 3개의 문항을 배치하여 분류요약능력, 자료평가 및 사례활용능력, 비판 능력, 논술논증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22학년도 모의논술 역시 이전의 논술시험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핵심사항으로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이번 모의논술도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한 내용을 현실의 사회 문제와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논술문제의 전체 주제인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개인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 및 언론의 기능과 참여와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통합사회』, 『경제』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에게는 익숙한 주제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는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

[문제 3]은 [문제 1]에 제시된 주요 논지와 [문제 2]의 사례를 활용하여 구체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논의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학 평가 항목과 문항별 배점]

그동안 우리 대학의 논술시험은 텍스트에 대한 독해력, 비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력을 주로 평가해 왔다. 대학에서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라는 논술시험의 기본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방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 평가항목

- ①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가: 50%
 - ② 논리 전개 혹은 구성은 잘 되었는가: 20%
 - ③ 표현력 및 어법: 15%
 - ④ 창의성: 15%
- ※ 답안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위의 항목 ②, ③, ④의 비중은 요구되는 답안글의 형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채점등급별 점수

① A 등급: 20점	② B 등급: 16점	③ C 등급: 12점
④ D 등급: 8점	⑤ E 등급: 4점	⑥ F 등급: 0점

[대학 채점기준]

[문제 3]에서는 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 중 하나를 분명히 취하고, 본인이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학생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1]에 등장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관한 일반 논리와 [문제 2]에 제시된 유관 사례 및 자료를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적절히 적용하여 본인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이다.

또한 제시문과 사례를 ‘모두’ 활용하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제시문과 사례를 활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제시문과 사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까지 간략하게 포함한다면 논제의 조건에도 맞고 내용도 풍부한 좋은 답안이 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선택한다면, [문제 1]의 <제시문 1>과 [문제 2]의 <사례 2>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의 발달이 인간의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개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때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민간 부동산 시장 역시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놔두어야 하며 결과적으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제시문 2>, <제시문 3>이 지적하듯이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경우 투기 등의 혼란이 생기고 <사례 1>과 유사하게 부동산을 매개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과 충동도 그 자체로 한 개인의 인간성을 이루는 요소로 인정해야 하므로 이를 정부가 억압해서는 안 되며, 개별성이 발전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의 욕망이나 충동이 부동산 쪽으로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당장의 부작용은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개별성과 자유를 충분히 만끽할 때 자신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선택한다면, [문제 1]의 <제시문 2>, <제시문 3>과 [문제 2]의 <사례 1>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우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일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전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겨두면 결국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의 이기적 욕망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 부동산을 매개로 한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갈등과 불평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반국가주의의 이면에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수단으로서 그 절대성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제시문 1>이 강조하는 개별성의 훼손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례 2>의 결과와 반대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개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덧붙일 수 있다.

[대학 채점등급]

- A :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사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 B :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사례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 C :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 D :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 아닌 답안
- E :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 F :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세종대 2022학년도 모의 1번

☞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가)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쫄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빌리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400~5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독해]

(가) 빌린 물건 → 감정 → 대응

빌린 사실에 대한 착오 → 부정적 결과(경계해야 할 결과)

[논리평면] 요약 - 생략

[예시답안] 486자

문단	기능	내용
1	핵심 A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상술 A	제시문 (가)에서 볼 수 있듯이, 빌린 물건의 상태에 따라 감정적 대응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도 바뀐다는 것이다. 가령, 노쇠한 말을 빌리면 경각심이 생겨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된다. 반면, 준마를 빌리게 되면 호기로운 감정이 생겨 조심스럽지 못하게 말을 타게 되고, 이로 인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2	핵심 B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모두 빌린 물건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상술 B	(가)의 화자는 말과 같이 물질적 존재가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백성과 신하가 임금에게 주는 권력과 같은 무형의 물건도 모두 본질적으로 남에게서 빌린 물건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이 사실을 잊고, 부정적인 대가를 치르곤 한다. 빌린 말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빌린 힘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인정치 않으면 결국 존경받는 통치자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학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	말과 같은 사물이든 신분이나 권력이든 모두 인간이 원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소유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경계한 글 (이곡, '차마설', <문학>, 미래엔, 45쪽)
---------	--

[대학 문항 해설]

• 제시문 (가)의 내용

- * 말을 빌려 탄 경험을 예로 들어, 인간은 남에게 빌린 것을 자신이 소유한 물건처럼 다룬다는 소유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경계함.
- * 말과 같은 사물뿐만 아니라, 임금의 신분과 권한, 신하의 부귀와 권세도 백성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므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남용하면 안 된다고 경계함.

[대학 채점기준]

제시문 (가) 차마설의 주제를 작가의 창작 의도와 관련 지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요약·기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1번 소문항	이해력	130	250
	표현력	80	
	정서법	40	
	분량	0 ~ -80	

[대학 예시답안] 492자

제시문 (가)는 말을 빌려 타면서 얻게 된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설명한 글이다. 야원 말을 빌렸을 때는 조심조심 몰았지만 준마를 빌렸을 때는 거칠게 몰고 유쾌하게 내달리기도 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 때로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자신이 소유한 물건처럼 다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소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말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뿐 아니라, 권력이나 부귀영화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예컨대 임금의 신분과 권한, 신하의 부귀와 권세는 모두 백성으로부터 부여된 것이지 그들의 소유가 아니다. 그런데 이를 잊고서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양 남용한다면 결국에는 독부나 고신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즉 제시문 (가)는 말과 같은 사물이든 신분이나 권력이든 모두 인간이 원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란 점을 주장하며 소유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경계하고 있다.

세종대 2022학년도 모의 2번

- ☞ 제시문 (다)의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요약하고,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논거로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정기준을 비판하시오. (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가)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빌리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

(나)

내가 “폐하, 서로 다른 많은 종교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오스만 제국의 황제 술레이만 1세는 “그것이 바로 내 제국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대들과 달리 푹푹 뭉쳐 있지. 내가 모든 권력을 통제할 수 있으니 분열 같은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어. 대사! 대사는 나를 도와 우리 위대한 제국을 세우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노예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오? 내가 알기로는 당신네 나라에서는 노예를 아주 부끄럽고 치욕스런 신분으로 생각한단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출신과 신분이 아니고 바로 능력이라고. …… 그 능력이라는 게, 오직 끝없는 훈련과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겠소?”라고 답하였다. - 뷰즈백, 『터키에서의 편지』 -

(중략)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레이만 1세 때 합스부르크 왕국 대사로 오스만 제국에 파견된 뷰즈백이 남긴 글이다.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세 대륙에 걸친 광대한 영역을 통치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종교와 풍습을 가진 여러 민족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으며, 출신·종교와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기회를 제공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다)

앞부분의 줄거리: 이도는 집현전을 세우고,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 비밀리에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한다. (중략) 조정의 신하들과 사대부들은 이도가 새로이 글자를 만들어 반포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다.

제16회 S# 13 광화문 앞(낮)

해강이 맨 앞에 엮드려 있고 유생들은 뒤에 엮드려 “전하! 문자는 아니되옵니다!” 하며 시위하고 있다. (중략) 컷. 과도엔 ‘作開言路 達四聰(작개언로 달사총)’이라 써 있고, 앞엔 이도가 서 있다.

이도 작개언로 달사총, 즉 언로를 띄워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오. (중략) 요순 3대에는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로가 넓었으나 진나라 때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한나라 때 이르러서는 언로를 띄우려 간관을 만들었으나 그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긴 후부터는 언로가 더욱 막히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해강 ……

이도 이는 말이오,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오. (점점 큰 목소리로)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 관료들은 백성들의 소리를 왜곡하고 편집했던 것이오! 하여 삼봉은 “언로가 더욱 막히었다.” 이리 쓴 것이오! 하여 과인은 ‘작개언

로', 언로를 넓히려, '달사총',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면 백성에게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중략)

제17회 S# 15 폐사찰 내 방(낮)

(중략)

정기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실현시키는 글자다.

이신적 그리 대단한 글자입니까? 어떤 글자기에요? 보여 주시지요.

정기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 글자는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한가 놈 (무슨 의미인지 아는 듯 쳐다본다.)

정기준 누구든 안다면 역병처럼 번질 수 있는 글자야.

심종수 (더욱 궁금하고 의아해한다.)

이신적 (큰 한숨을 쉬며) 아, 예. 좋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글자를 안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그들이 관료가 됩니까?

심종수 (이번엔 이신적을 쳐다본다.)

이신적 성리학의 나라요, 사대부의 나라인 이 조선에서 한자도 아닌 그 글자를 조금 안다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정기준 이 글자를 배운 자는 한자를 멀리하게 되고, 한자를 멀리하게 되면 성리학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허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몇백 년 뒤에는 모르는 일이지. 한자도, 성리학도, 삼강도, 오륜도 모르는 것들이 관료가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뻔인가? 글을 알게 되면 자연히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깨이게 되고, 깨이게 되면 글을 쓰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

이신적 (답답해하며) 본원, 대체!

정기준 (강조하며) 또한! 인간은 쓰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렇게 권력이 움직이는 것이다. 모르겠는가!

심종수·한가 놈 (놀라서 보는데)

정기준 이도는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이야! 이도는 지금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하려는 것이란 말이다! 이도가 백성을 사랑한다고? 웃기지 말라고 해. 왕과 관료들이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진다. 백성이 잘못하면 어찌할 것이냐? 백성에게 책임이 있다 하여 그들을 모두 갈아 치울 것이란 말이다. (중략) 모든 사람이 글을 쓰는 세상이 오면 사대부는 권력을 잃어. 사대부가 권력을 잃으면 성리학이 조선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고, 성리학이 조선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조선이 망한다는 것이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 제시문 (다)의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요약하고,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논거로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정기준을 비판하시오. (800~900자, 제시된 작성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독해]

- (가) 빌린 물건 → 감정 → 대응
 빌린 사실에 대한 착오 → 부정적 결과(경계해야 할 결과)
- (나) 능력 중심의 효율적인 통치 → 대제국을 효과적으로 운영
- (다) 이도가 한글 창제 목적: 어려운 한자 대신 쉬운 한글을 통해 백성이 임금에게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정기준의 견해: 백성에게 한글이 보급되면 → 백성들이 뜻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영향력이 생긴다
 → 사대부의 권력이 흔들림 - 성리학의 위기 → 파국

[논리평면] 요약-생략,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가)	빌린 사실에 대한 착오	부정적 결과	Bad
대상	(다) 정기준	사대부의 권력 소유권 방어 (백성에게 권력을 '넘기면' 안 된다는 소유 관념)	망국	bad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나)	능력 중심의 효율적 통치	대제국을 효과적으로 운영	Good
대상	(다) 정기준	사대부(신분)에 따른 통치 주장	조선의 효율적 운영 저해	bad

[예시답안] 894자

문단	기능	내용
1	(다)이도 핵	이도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였다.
	(다)이도 상	(다)에 나타나듯, 조선 백성들은 한자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하기 힘들었고, 이에 관료를 거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임금에게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료에 의해 백성의 뜻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도는 백성이 직접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자를 창제하여 보급하고자 했던 것이다.
2	(다) 정기준A 핵	반면, 정기준은 이에 완강히 반대하는 뜻을 갖고 있었다.
	(다) 정기준A 상	(다)에 나오듯, 정기준은 한글 보급은 백성들에게 권력을 넘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쉬운 문자의 보급으로 인해 백성이 스스로 자신의 뜻을 직접 전할 수 있게 되면

		국가의 권력이 백성에게 옮겨 간다는 것이다.
3	주장	하지만 정기준의 이러한 권력관은 틀렸다.
	(가) 기준 핵	원래부터 자신의 소유로 갖고 있는 권력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 기준 상	(가)를 보면, 물건이든 힘이든, 본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것인데, 사람들이 이를 잊고 지낸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소유관이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고 한다.
	적용	이처럼 사대부가 갖고 있던 권력은 본래 백성에게 빌려온 것인데, 정기준은 이를 망각하고 처음부터 자신네 소유였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4	(다) 정기준B 핵	또한 정기준은 백성이 영향력을 갖게 되면 결국 조선이 망한다고 주장한다.
	(다) 정기준B 상	백성의 권력 상승에 따라 사대부의 통치가 흔들리고, 이것이 곧 성리학의 위기가 되어 조선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5	주장	그러나 이 또한 착각에 불과하다.
	(나) 기준 핵	국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능력주의 채용이 필요하다.
	(나) 기준 상	(나)의 오스만 제국은 능력에 따라 신분에 상관없이 채용하는 효율적 원칙으로 인해 대제국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적용	이와 같이 조선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분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채용해야 할 것인데, 정기준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사대부만의 통치만을 고집했던 것이다.

[대학 제시문 분석]

제시문 (나)	오스만 제국은 능력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고, 종교나 풍습, 민족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취함으로써 번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 (최준채 외 5인,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의 형성', <세계사>, 미래엔, 80쪽)
제시문 (다)	백성의 소리를 들어 정치에 참고하고자 배우기 쉬운 한글을 제정하려는 이도와 이에 반대하는 정기준의 주장을 극본 형식으로 구성한 글 (이정명 원작, 김영현 외 극본, '뿌리 깊은 나무', <해냄에듀>, 59~64쪽)

[대학 문항 해설]

- 문항 요구사항
- 1.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제정하려는 의도
- 2. 정기준의 주장
- 3. 제시문 (가)를 활용한 비판
- 4. 제시문 (나)를 활용한 비판

❶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제정하려는 의도

1.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치에 참고하는 것이 임금의 덕목.
2.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

❷ 정기준의 주장 요약

1. 백성이 글을 알면 권력이 움직인다. 사대부의 권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2. 조선은 성리학으로만 다스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3. 권력을 백성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❸ 제시문 (가) 활용 비판

- 왕과 신하의 지위나 권력은 원래 백성의 것이고, 왕과 사대부는 이를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❹ 제시문 (나) 활용 비판 1

- 오스만 제국은 출신이나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여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 사대부는 양반이라는 신분에 기반한 권력이므로, 쉬운 글자를 통해 백성들도 능력을 갖추게 해야 발전할 수 있다.

❺ 제시문 (나) 활용 비판 2

- 오스만 제국은 종교나 풍습, 민족 등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여 광대한 영토에 걸친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 조선은 성리학으로만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은 편협하다.

[대학 채점기준]

제시문 (다)의 이도가 새로운 글자를 제정하려는 궁극적인 목표와 이에 반대하는 정기준의 주장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제시문 (가)와 (나)를 논거로 활용하여 이를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2번 대문항	이해력 1	60	450
	이해력 2	6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1	90	
	분석 및 비판적 사고력 2	90	
	표현력	70	
	구성	40	
	정서법	40	
	분량	0 ~ -70	

[대학 예시답안] 871자

이도는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치에 참고하는 것이 임금의 덕목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백성들은 한자가 어려운 까닭에 자신들의 뜻을 직접 전달할 수 없었고, 관료들을 거쳐 전달되며 민의는 관료들의 입맛에 맞추어 왜곡되고 편집되었다. 이도는 이를 해결하고자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 것이다.

반면 정기준은 이도의 이러한 시도가 권력을 백성들에게 넘기려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왕과 관료는 권력을 소유한 만큼 잘못을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왕과 신하의 지위나 권력은 원래 백성의 것이고 왕과 사대부는 이를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권력을 백성들에게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그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정기준은 백성들이 글을 알면 깨이게 되고 자신들의 주장을 드러내면서 권력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세상이 되면 사대부는 권력을 잃고 조선을 이끌던 성리학 또한 자리를 잃게 되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출생으로 결정된 양반이라는 신분의 우월함과 그것에 기반한 사대부 권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제시문 (나)의 오스만 제국과 같이,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신이나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분이 낮은 백성들도 쉬운 글자를 통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정기준을 비판할 수 있다. 또 오스만 제국이 종교나 풍습, 민족 등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며 광대한 영토에 걸친 번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조선을 성리학으로만 다스려야 한다는 그의 주장 역시 편협한 견해라 할 수 있다.

속명여대 2022학년도 모의 1-1번

✎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소년범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시오. (300±30자)

<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함과 동시에 형량을 상향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엄벌주의 정책이 소년비행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몇몇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목적하는 성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과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보호처분 대신에 구금에 중심으로 하는 형벌만을 강조한다면 이후의 소년범 재범률은 필연적으로 높아진다. 형벌은 보호처분과 비교하여 더욱 강렬한 부정적인 낙인을 부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배척,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자기 관념을 강하게 하므로 사회 복귀가 더욱 곤란해져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미국 소년사법 역사와 여러 실증적인 조사에 의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응보나 공공의 안전 등을 이유로 더 많은 소년을 보다 장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가족과 지역으로부터 분리하는 엄벌주의는 오히려 소년과 성인범죄자의 재범률을 증가시켜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년비행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엄벌주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엄벌주의로 얻어지는 안도감은 허상에 불과하며 오히려 본질적 문제를 방치시켜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다>

잔인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소년법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도 소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처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소년법들의 모방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그들의 범행이 잔혹할수록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심지어 영웅시되기도 한다. 경제성장과 학교 교육의 보편화로 과거보다 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조숙해졌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소년법에 대해 더 강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형법 개정과 특별형법의 제정으로 성인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 마당에 소년법만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소년법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소년법에 대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높였고, 현재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에서 17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년법이 우발적 범죄나 소년의 특성에 기인한 범죄가 아닌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일반 형사 법정에서 성인범과 동일하게 재판과 처벌을 받는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소년범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시오. (300±30자)

[독해]

(나) 엄벌주의 → 낙인(내적: 자기 부정, 외적: 차별) → 재범률 증가

(다) 환경 악화 + 청소년 조속 + 청소년 처벌 강화의 세계적 경향 → 청소년 처벌 강화 → 사회 보호

[논리평면] 비교

공통점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	
차이점	처벌 강화에 대한 태도	처벌의 궁극적 목적
(나)	부정적	청소년의 재사회화
(다)	긍정적	범죄로부터 사회 보호

[예시답안] 310자

문단	기능	내용
1-1	공통점	제시문들은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한 태도와 처벌의 목적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인다.
	쟁점 A	
	쟁점 B	
1-2	(나)A핵	먼저 (나)는 처벌 강화에 반대한다.
	(나)A상	처벌이 낙인으로 작동해 오히려 재범률만 높이기 때문이다.
	(나)B핵	이러한 (나)가 말하는 처벌의 목적은 재사회화이다.
	(나)B상	처벌 강화가 청소년의 비행을 낮출 수 없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3	(다)A핵	반면 (다)는 처벌 강화에 찬성한다.
	(다)A상	인터넷 발달로 모방범죄 경향도 높아졌고, 청소년들도 조속해졌으며, 처벌 강화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다)B핵	(다)는 처벌의 목적이 사회 보호라고 말한다.
	(다)B상	청소년 재사회화보다 소년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이 문항은 소년범죄의 흉악 강력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강화의 주장이 부상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아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일탈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낙인에 관한 이론을 주목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제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양상과 이에 대한 타당한 대응 방안의 방향을 생각해보게 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낙인을 핵심어로 하여 부모, 교사, 친구 등에 의한 낙인에 관한 일반적 설명을 다루는 제시문 <가>, 강력한 공식적 낙인인 형사처벌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를 담은 제시문 <나>, 그리고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대응을 요구하는 주장을 담은 제시문 <다>를 제시한 후, 이들 제시문과 함께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실태를 보여주는 <표> 정보에 입각하고 낙인 이론에 따른 악순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회피하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서 수험생은 개별적인 흉악 강력범죄의 발생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 극복 방안으로서 교육과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근본적 대응의 중요성을 사고해야 한다.

[대학 문항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나> : 강경래, 「미국소년사법의 새로운 전개」, *소년보호연구*, 31권 1호, 28-29쪽.

<나>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자료로, 일면적인 처벌강화는 강한 부정적 낙인을 부여하여 차별과 배제 그리고 자기 부정으로 연결됨으로써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점을 제시하는 한편, 교육과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보호처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문 <다> : 사설, 「소년법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법률신문*, 2017. 9. 11.

<다>는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주장을 예시하는 자료로, 잔인한 청소년 범죄의 발생에 대응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그 근거로서 형사처벌의 궁극적 목적인 범죄로부터 사회 보호와 아울러 최근 소년법의 모방 범죄 기승과 잔악한 범행의 영웅시 문제, 정신적·육체적 조속 현상, 일본의 형량 상한 제고와 미국의 중대범죄 예외 적용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 논제의 구성

인문계열 <문항 1>에서 제시된 논제는 두 개 물음으로 구성된다.

첫째 물음은 <나> 관점과 <다> 관점의 핵심을 파악하고 양자의 비교를 요구한다.

둘째 물음은 <표>의 정보를 분석한 후 <가>와 <나>에 입각한 대응 방안을 찾도록 요구한다.

이 논술 문항의 주제는 ‘사회적 낙인으로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소년범죄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논제는 소년범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문 <나>와 <다>를 통해 확인한 후, <표>에서 나타난 소년범죄의 추세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분석하고 도출하는 데 있다.

이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과 사회 구조 중에서 다루는 일탈행동에 관한 낙인이론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논제로, 각 제시문 간의 관계를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대학 채점기준]

■ 답안의 구성 요소

- ①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② 답안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③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나>의 관점 파악]

▶ 제시문 <나>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① 형벌의 효과

- 즉각적 효과로서 낙인과 장기간 분리
- 장기간 효과로서 사회 복귀 곤란과 재범률 고양

② 해결 적합성

- 소년비행에 대한 엄벌주의의 부적합성

▶ 예시답안 참조

- Key Word : <나>. 형벌, 낙인, 사회 복귀, 교정시설, 구금, 가족 분리, 사회 분리, 재범률, 엄벌주의, 소년비행, 문제 해결

[제시문 <다>의 관점 파악]

▶ 제시문 <다>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③ 범죄 및 대응의 특성

- 모방 범죄 증가, 잔혹함의 영웅시
- 범죄로부터 사회 보호,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 상태

④ 특성 고려 적합성

- 범죄 중대성과 책임 능력을 고려한 엄벌주의의 정당성

▶ 예시답안 참조

- Key Word : <다>, 인터넷, 눈, 소년범, 모방 범죄, 잔혹함, 영웅시, 사회 보호, 신체적 성숙, 정신적 성숙, 사회적 책임, 엄벌주의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관점 비교]

▶ 동일 항목을 기준으로 한 <나> 관점과 <다> 관점을 비교하는 능력 측정

⑤ 비교 항목의 동일성

- 엄벌주의

⑥ 비교 내용의 차이점

- 소년비행에 대한 엄벌주의 삼가

- 소년 중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적용

▶ 예시답안 참조

• Key Word : <나>, <다>. 관점, 엄벌주의, 소년비행, 소년 중범죄, 삼가, 적용

[논술문에 부합한 작성 능력]

▶ 논점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어법에 따라 문장을 작성하는 능력 측정

⑦ 체계적 구성

- 각 관점의 요지 별도 서술

- 각 관점의 특징 종합 비교

⑧ 논리적 전개

- 제시문 문장에서 개념적 핵심 추출

- 판단 개진과 그에 대한 근거 제시(또는 특징 제시와 그에 관한 판단 개진)

⑨ 언어 사용과 표현력

-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되 환문하여 본인의 문장으로 글을 써야 함

- 글자 수가 270자~330자 내로 작성되어야 함

<유의 사항>

- 글자 수 200자 이내 및 400자 이상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하고, ⑦, ⑧, ⑨ 중 1가지가 다소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하고, ⑦, ⑧, ⑨ 중 2가지가 다소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가 없고, ⑦, ⑧, ⑨ 중 1가지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2가지가 없고, ⑦, ⑧, ⑨ 중 2가지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3가지가 없고, ⑦, ⑧, ⑨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4가지가 없고, ⑦, ⑧, ⑨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가 모두 상당히 미흡한 경우	8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9등급

[대학 예시답안] 301자

〈나〉는 형벌이 낙인이 되어 사회 복귀를 곤란하게 하고 장기간 교정시설 내 구금이 가족과 지역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재범률을 높이기 때문에 엄벌주의로는 소년비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다〉는 인터넷 발달로 모방이 늘고 잔혹함이 영웅시되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응하여 사회를 보호하고 소년범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보다 성숙하기에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관점에서 〈나〉는 소년비행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삼가야 한다는 것이고, 〈다〉는 소년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채점위원 총평]

인문계 [문항 1]의 주제는 ‘낙인 효과를 고려하여 소년범죄의 최근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이 주제는 흉악 강력 소년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아 사회 현상을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사회변동이론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이 문항은 두 개의 논제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내용의 두 관점을 비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표정보를 분석하여 소년범죄 현상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낙인 이론에 따른 엄벌주의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이다.

첫 번째 논제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답안이 두 제시문에 담긴 내용을 각각 잘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답안의 우수성은 비교가 되는 관점 대상을 특정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단순히 두 제시문을 요약하는 경우와 비교 대상을 특정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관한 각 제시문에 담긴 관점의 특징을 정리하는 경우로 나뉘었고, 후자는 엄벌주의 또는 형사처벌 강화를 명시할수록 동일 대상에 대한 대비적 정리가 우수하였다.

[대학 우수답안] 309자

제시문 〈나〉와 〈다〉는 공통적으로 소년범의 처벌 강화를 주제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관점에서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보인다. 제시문 〈나〉는 소년범죄에 대한 형량 상향 등의 처벌 강화로는 소년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소년범에 대한 엄벌주의는 재범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본질적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제시문 〈다〉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찬성한다. 과거에 비해 조속해진 소년들에게 더 강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며 소년범 처벌 강화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숙명여대 2022학년도 모의 1-2번

☞ 아래 제시된 표에 드러난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발생추세'를 범죄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기술하시오. (600 ±60자)

<표> 범죄유형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10-2019년)

다음은 2010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소년 범죄자의 범죄유형별 발생비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10	400.7	-	33.7	-
2011	403.0	0.6	38.1	13.1
2012	442.4	10.4	34.7	3.0
2013	430.9	7.6	34.4	2.1
2014	367.4	-8.3	32.0	-5.0
2015	332.9	-16.9	28.2	-16.4
2016	352.9	-11.9	35.7	5.9
2017	319.3	-20.3	38.1	13.0
2018	300.6	-25.0	39.8	18.2
2019	327.6	-18.2	43.2	28.2

*발생비는 소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가리킨다.

<가>

아이들이 문제아로 낙인찍히면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재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낙인 과정은 중요하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문제아로 낙인찍을 경우, 아이들의 일탈은 더 증가한다. 낙인은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아이들의 자아 이미지를 낮춰 비행은 증가시킨다. 부모의 낙인은 매우 치명적인데, 이는 아이가 자신의 낙인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비행 친구를 찾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반복적이고 강렬한 낙인이 짝힐 위험에 처하며, 이는 자기 낙인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훼손한다.

아이가 부모나 교사 등 중요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낙인찍힌다고 인지할 때, 일탈적 자아 개념을 수용하게 된다. 그 결과, 아이들은 일탈 친구와 사귀고 비행 집단에 가입하기도 하며, 이는 범죄 행위 가담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범죄 행위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면 낙인 효과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공식적 낙인으로 학교에서 퇴학의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이렇듯 법원의 개입은 범죄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차후 범죄 가능성을 더 높인다.

요컨대 부모나 친구가 아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로 인해 아이가 손상된 정체성을 지니게 되면 나중에도 범죄를 지속할 수 있다. 즉, 어릴 때 낙인찍힌 아이가 그러한 낙인을 극복하지 못하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취업 기회마저 잃게 된다면, 성인 초기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함과 동시에 형량을 상향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엄벌주의 정책이 소년비행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몇몇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목적하는 성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과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보호처분 대신에 구금을 중심으로 하는 형벌만을 강조한다면 이후의 소년범 재범률은 필연적으로 높아진다. 형벌은 보호처분과 비교하여 더욱 강렬한 부정적인 낙인을 부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배척,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자기 관념을 강하게 하므로 사회 복귀가 더욱 곤란해져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미국 소년사법 역사와 여러 실증적인 조사에 의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응보나 공공의 안전 등을 이유로 더 많은 소년을 보다 장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가족과 지역으로부터 분리하는 엄벌주의는 오히려 소년과 성인범죄자의 재범률을 증가시켜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년비행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엄벌주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엄벌주의로 얻어지는 안도감은 허상에 불과하며 오히려 본질적 문제를 방치시켜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 아래 제시된 표에 드러난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발생추세'를 범죄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문 <가>와 <나>를 활용하여 기술하시오. (600±60자)

[독해]

<표> 재산범죄(감소 추세) > 강력범죄(증가 추세)

(가) 청소년기 낙인 - 법원의 개입 → 재범률 증가

(나) 엄벌주의 → 낙인(내적: 자기 부정, 외적: 차별) → 재범률 증가

[논리평면] 사실추론(대안)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통합	낙인 효과를 줄이고 보호 처분 강화	재범률 감소 - 재사회화
	(가)	낙인 - 법원의 개입	재범률 증가
	(나)	엄벌주의 → 낙인	재범률 증가
대상	<표>	재산범죄 > 강력범죄 재산범죄에 대한 보호 처분 원칙, 강력 범죄에 대한 보호 처분 강화	재범률 감소 - 재사회화

[예시답안] 578자

문단	기능	내용
1	대상 핵심	최근 10년 간 청소년 범죄는 주로 재산범죄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상 상술	주어진 표에 따르면, 재산범죄는 최근 들어 발생비가 대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 1000명 중 3명 이상의 청소년이 재산범죄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강력범죄 발생비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재산범죄 발생비의 1/8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	주장	이러한 청소년 범죄에는 보호 처분 위주의 재사회화 방침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준 핵심	처벌 강화는 오히려 낙인 효과를 일으켜 재범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기준 상1	제시문 (가)에 따르면, 법원의 개입으로 인한 낙인 강화는 재범률 증가로 이어졌고,
	기준 상2	제시문 (나)에 따르면, 엄벌주의 정책 또한 낙인 강화로 이어져, 청소년이 내적으로는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외적으로는 차별에 시달리게 되어 결국 재범률 증가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적용	이렇게 처벌로 인한 낙인 효과가 갖는 폐해가 치명적인 만큼, 앞으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낙인 효과가 적은 보호 처분 위주의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범죄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에 대한 보호 처분이 원칙화되어야 하고,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보호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

[대학 출제의도]

이 문항은 소년범죄의 흉악 강력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강화의 주장이 부상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아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일탈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낙인에 관한 이론을 주목하고 이에 근거하여 실제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양상과 이에 대한 타당한 대응 방안의 방향을 생각해보게 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낙인을 핵심어로 하여 부모, 교사, 친구 등에 의한 낙인에 관한 일반적 설명을 다루는 제시문 <가>, 강력한 공식적 낙인인 형사처벌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를 담은 제시문 <나>, 그리고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대응을 요구하는 주장을 담은 제시문 <다>를 제시한 후, 이들 제시문과 함께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실태를 보여주는 <표> 정보에 입각하고 낙인 이론에 따른 악순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회피하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문항에서 수험생은 개별적인 흉악 강력범죄의 발생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 극복 방안으로서 교육과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근본적 대응의 중요성을 사고해야 한다.

[대학 문항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레이 제이 시겔 저, 이민식 외 역, 범죄학: 이론과 유형, 교우, 2020.

<가>는 일탈 행동에 관한 낙인이론을 소개하는 자료이다.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 친구 등 중요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경우 반복적이고 강렬한 낙인으로 인해 손상된 정체성을 지니게 되고, 비행 친구와 교제하고 범죄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커진다. 법원의 개입은 범죄예방보다는 향후 범죄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제시문 <나> : 강경래, 「미국소년사법의 새로운 전개」, 소년보호연구, 31권 1호, 28-29쪽.

<나>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자료로, 일면적인 처벌강화는 강한 부정적 낙인을 부여하여 차별과 배제 그리고 자기 부정으로 연결됨으로써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점을 제시하는 한편, 교육과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보호처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범죄유형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 : 대검찰청, 2020 범죄분석, 21쪽.

<표>는 연령별 범죄발생비 추이에서 소년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자료로, 소년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은 범죄군이 재산범죄이고, 강력범죄(흉악)의 소년범죄 발생비는 다른 범죄군에 비하여 가장 낮지만, 다른 범죄군이 감소한 것은 달리 28.2% 증가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 논제의 구성

인문계열 <문항 1>에서 제시된 논제는 두 개 물음으로 구성된다.

첫째 물음은 <나> 관점과 <다> 관점의 핵심을 파악하고 양자의 비교를 요구한다.

둘째 물음은 <표>의 정보를 분석한 후 <가>와 <나>에 입각한 대응 방안을 찾도록 요구한다.

이 논술 문항의 주제는 ‘사회적 낙인으로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소년범죄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논제는 소년범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문 <나>와 <다>를 통해 확인한 후, <표>에서 나타난 소년범죄의 추세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분석하고 도출하는 데 있다.

이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과 사회 구조 중에서 다루는 일탈행동에 관한 낙인이론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논제로, 각 제시문 간의 관계를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대학 채점기준]

■ 답안의 구성 요소

- ①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② 답안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③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에서 나타난 정보의 분석]

▶ 표에서 담고 있는 수치 정보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 ① 범죄유형별 발생 추이와 수준 각각 비교
 - 재산범죄 감소와 흉악 강력범죄 증가 추이
 - 강력범죄에 비해 재산범죄 발생의 절대적 우위
- ② 추이 및 수준 비교에 따른 판단 제시
 -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강력범죄 증가 추이
 - 소년범죄 발생 건수에서 재산범죄에 편중

▶ 예시답안 참조

- Key Word : 표, 소년범죄, 범죄유형, 재산범죄, 흉악 강력범죄, 대비, 2010년, 2019년, 10년, 추이, 증가, 감소, 압도/만연/우세/편향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 파악]

▶ 제시문 <가>와 <나>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측정

③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

- 낙인과 낙인의 부정적 효과

④ 제시문 <가>와 <나>의 주요 내용

- 사회 구성원에 의한 낙인과 그로 인한 부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 일탈 반복

- 형벌의 강한 낙인 효과로 인한 재범 가능성 증대와 엄벌주의의 한계

▶ 예시답안 참조

• Key Word : <가>, <나>, 낙인, 부정적 효과, 문제아, 부정적, 자아 정체성, 일탈, 반복, 형벌, 공식적 낙인, 사회적 배제, 사회 복귀, 재범, 소년비행, 엄벌주의

[대응 방안 도출]

▶ 동일 항목을 기준으로 한 <나> 관점과 <다> 관점을 비교하는 능력 측정

⑤ 구분 대응 필요

- 소년비행과 흉악 강력범죄 구분 대응(엄벌주의, 특히 일괄적 대응 삼가)

⑥ 비교 내용의 차이점

-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필요

- 흉악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을 함께 고려

▶ 예시답안 참조

• Key Word : 소년범죄, 소년비행, 흉악 강력범죄, 대응, 재산범죄, 공식적 낙인, 재범률, 엄벌주의, 교육, 사회 복귀, 보호처분, 형벌, 구금

[논술문에 부합한 작성 능력]

▶ 논점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어법에 따라 문장을 작성하는 능력 측정

⑦ 체계적 구성

- 각 관점의 요지 별도 서술

- 각 관점의 특징 종합 비교

⑧ 논리적 전개

- 제시문 문장에서 개념적 핵심 추출

- 판단 개선과 그에 대한 근거 제시(또는 특징 제시와 그에 관한 판단 개선)

⑨ 언어 사용과 표현력

-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되 환문하여 본인의 문장으로 글을 써야 함
- 글자 수가 270자~330자 내로 작성되어야 함

<유의 사항>

- 글자 수 450자 이내 및 750자 이상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하고, ⑦, ⑧, ⑨ 중 1가지가 다소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 1가지가 없고, ⑧, ⑨ 중 1가지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1가지가 없고, ⑦, ⑧, ⑨ 중 2가지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2가지가 없고, ⑦, ⑧, ⑨ 중 2가지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3가지가 없고, ⑦, ⑧, ⑨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중 4가지가 없고, ⑦, ⑧, ⑨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가 모두 상당히 미흡한 경우	8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9등급

[대학 예시답안] 601자

<표>에서 나타난 소년범죄 발생의 큰 추이는 흉악 강력범죄의 경우 늘어난 반면, 재산범죄의 경우 줄고 있다. 그 속에서도 발생 건수는 해당 기간 전체에 걸쳐 재산범죄가 흉악 강력범죄에 비해 대략 10배에 달한다. 연도별 발생 추이에서는 흉악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발생 건수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산범죄가 압도적이다.

<기>와 <나>는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가>에 따르면, 문제아로 낙인찍힌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일탈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법정에 서는 것은 그런 낙인 효과를 더 심하게 한다. <나>에 따르면, 형벌은 강한 부정적 효과를 낳고 공식적 낙인으로 인해 사회에서 배제하고 부정적 자기 관념을 강하게 형성시키기에 사회 복귀가 어려워져 재범할 가능성을 높인다. 소년비행은 엄벌주의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소년범죄는 소년비행과 흉악 강력범죄를 구분해서 대응하여야 한다. 소년범죄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범죄는 형벌의 공식적 낙인으로 인해 재범률을 높일 수 있기에 엄벌주의 대신 교육과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 최근 늘고 있는 흉악 강력범죄도 구금 중심의 형벌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학 채점위원 총평]

인문계 [문항 1]의 주제는 ‘낙인 효과를 고려하여 소년범죄의 최근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이 주제는 흉악 강력 소년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아 사회 현상을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사회변동이론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 논제와 관련하여 많은 답안은 대체로 통상적인 수준에 이르는 답안을 작성하였다. 답안의 우수성은 표 정보 분석의 정치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작성된 답안지는 표 정보로부터 강력범죄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고, 형사처벌이 부정적 낙인 효과를 낳게 되기에 그러한 범죄에 대해 엄벌해서는 아니 된다거나 교육이나 사회 복귀를 강조하는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표 정보 분석이 정치한 답안지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강력범죄를 주목하는 데서 더 나가 비록 감소세에 있지는 않지만, 범죄 발생 건수에 비취 재산범죄가 압도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표 정보 분석은 대응 방안의 내용 차이로 나타났다. 강력범죄가 늘고 있지만, 소년범죄 대부분이 재산범죄임을 고려하여, 소년범죄 전체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형벌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호처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요컨대, 두 번째 논제의 해결은 표 분석의 수준에 따라 이후 논술 내용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대학 우수답안] 570자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중 재산범죄는 강력범죄보다 발생비가 높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강력범죄는 발생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2019년에는 증감률이 약 30으로,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년범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를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는 형벌 강화보다 재사회화 등을 강조하는 보호처분을 내려야 한다. <나>가 언급하듯이, 처벌 강화 정책은 범죄자로부터 부정적 낙인을 내면화하게 한다. 또한, 이는 <가>가 설명하듯 일탈과 비행으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능숙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며 지속된다. 즉, 이러한 끊임없는 범죄가 이어져 재산범죄 발생비가 높은 것이다. 따라서 형벌보다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의 악순환을 멈추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더 나아가 법원의 개입은 낙인을 더욱 강화시키며 미래의 범죄에 예방하지 못한다. 따라서 흉악범죄인 강력범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판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서로 소통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자아 정체성을 보존해주고, 차후 범죄 가능성을 줄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숙명여대 2022학년도 모의 2-1번

✎ 제시문 <가>와 <나>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인간상을 설명해 보시오. (300±30자)

<가>

우리는 에일머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궁극적인 통제에 어느 정도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열정으로도 떼어 놓을 수 없을 만큼 그는 과학적인 연구에 깊이 몰입해 있었다. 어쩌면 젊은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이 더 열정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과학에 대한 사랑과 같이 엮고 과학에 대한 사랑의 힘을 자신의 힘에 결합시킬 때만 오직 가능했을 것이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에일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조지아나, 당신 뺨에 있는 그 점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소?”

“아니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 점이 매력이라고들 해서 그저 그런 줄만 알고 별로 신경을 안 썼죠.”

“글쎄,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당신 얼굴에서는 안 그렇소. 사랑하는 조지아나, 당신은 자연의 손으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빚어져서 이 조그만 흠이, 글쎄 그걸 흠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름다움이라고 불러야 할지는 잘 모르겠소만, 하여튼 그것이 이 지상의 불완전성의 상징처럼 나에게 충격을 주는구려.”

만약 그녀가 덜 아름다웠더라면 그는 아마도 그녀의 가슴 안에서 감정의 맥박이 떨 때마다 희미한 모습으로 보이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또 슬그머니 나타나서 어른거리는, 이 손같이 생긴 아름다운 모양의 반점에 그의 애정이 고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점만 아니라면 그녀의 아름다움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결혼 생활이 진행되어 가는 순간순간 점점 더 이 하나의 흠이 견디기 어려워져 감을 느꼈다. 그것은 자연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모든 창조물에 지울 수 없게 찍어서 그것들이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임을 알려거나 그것들의 완전함은 오직 고통스런 수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암시하는, 어떤 낙인 같은 치명적인 흠이었던 것이다.

[...중략...]

“이 용액의 제조는 완벽하오.” 조지아나의 눈길에 대한 답으로 에일머는 그렇게 말했다.

“만일 나의 모든 과학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면 이 약은 실패할 수가 없소.”

창문 앞 오목한 공간에는 온 잎사귀에 누런 얼룩이 퍼져 명들어 있는 제라늄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에일머는 제라늄이 자라고 있는 흙 위에 그 용액을 약간 부었다. 잠시 후 그 식물의 뿌리가 용액의 수분을 흡수하자 보기 흉하던 누런 얼룩들이 다 없어지고 싱싱한 초록색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그 잔을 주세요. 당신께 기꺼이 모든 걸 맡기겠어요.”

[…중략…]

“아 불쌍한 에일머! ” 조지아나가 중얼거렸다.

“불쌍하다구? 아니, 이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한 행운아가 되지 않았고? 비길 데 없는 나의 신부여! 성공했다구! 이제 당신은 완전하게 된 거요! ” 에일머가 소리쳤다.

조지아나는 인간의 부드러움 그 이상의 것이 담긴 어조로 반복했다.

“당신의 목표는 높았고, 당신은 그 목표를 훌륭히 이루었어요. 그러니 그런 고결하고 순수한 감정으로, 이 땅이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결코 후회하지 마세요. 에일머, 사랑하는 에일머,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

오호라! 그건 사실이였다.

<나>

그리하여 더없이 존귀하신 장인(匠人)께서는 인간에게 고유한 몫으로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만큼, 개개의 피조물에게 개별적으로 주셨던 것은 무엇이든지 인간에게 공통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을 미완된 모상(模像)의 작품으로 받아들이셨고, 세상 한가운데에 그를 자리 잡게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 아담이여, 나는 너에게 일정한 자리도, 고유한 면모도, 특정한 임무도 부여하지 않았노라!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어느 면모를 취하고 어느 임무를 맡을지는 너의 희망대로, 너의 의사대로 취하고 소유하라! 여타의 피조물에게 있는 본성은 우리가 설정한 법칙의 테두리 안에 규제되어 있다. 너는 그 어느 장벽으로도 규제받지 않고 있는 만큼 너의 자유의지에 따라서(네 자유의지의 수중에 나는 너를 맡겼노라!) 네 본성을 테두리 짓도록 하여라. 나는 너를 세상 중간 존재로 자리 잡게 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아무것이나 편한 대로 살펴보게 하였노라. 우리는 너를 천상의 존재로도 지상의 존재로도 만들지 않았고, 사멸할 자로도 불멸할 자로도 만들지 않았으니, 이는 자의적으로 또 명예롭게 네가 네 자신의 조형자요, 조각가로서 네가 더 좋아하는 대로 형상을 빚어내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네 자신을 짐승 같은 하위의 존재로 퇴화시킬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그대 정신의 의사에 따라서는 신에 버금가는 상위 존재로 재생시킬 수도 있으리라.”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 제시문 <가>와 <나>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인간상을 설명해 보시오. (300±30자)

[독해]

(가) 에일머는 아내의 반점(흠결)을 자신의 약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이로 인해 아내는 사망에 이른다.

(나) 인간은 미완의 존재이지만 규제받지 않는 존재로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이다.

[논리평면] 조건부 요약(비교) - 생략

[예시답안] 271자

문단	기능	내용
1	공통점	계몽주의란, 특정한 기준을 우월한 것으로 두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자신의 의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이다.
	상술 (나)	이는 제시문 (나)에서 시사하듯, 인간은 비록 미완의 존재이지만 어떠한 규제에 제한받지 않는 존재로서 자신의 주체적 의지에 따라 자신의 형상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상술 (가)	이러한 인식은 제시문 (가)에서도 나타나는데, 자신의 과학을 과신한 에일머는 아내의 작은 흠결을 지울 수 있다고 믿고, 자신이 조제한 약을 처방한다. 하지만 완전할 수 없었던 그의 신념은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대학 출제의도]

본 문항은 근대의 계몽주의적 인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제시문과 그런 근대적 인간상이 자아낼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의 인간상은 과학 지식을 토대로 세상은 물론 인간 자신마저도 인간 자신의 욕구와 의도에 따라 조형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해 있다. 인간이 세상 만물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에 대한 파괴는 물론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 침해와 폭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문항의 요구사항은 이러한 인간상을 두 제시문, <가>와 <나>에서 포착하고, 그 위험성을 <다>를 활용하여 비판하는 것이다.

[대학 문항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너새니얼 호손, 천승걸 역, 「반점」, 『너새니얼 호손 단편선』, 민음사, 1998, 157- 184쪽, 발췌 재구성

과학 연구자 에일머는 인간이 과학적 지식을 통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조지아나의 뺨에 있는 작은 반점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흠이라고 믿는다. 그는 자신의 과학 지식을 통해 조지아나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고자 한다. 조지아나 역시 에일머를 믿고 그의 의사에 따르나 결과적으로 반점을 지우기 위해 에일머가 만들어낸 약은 조지아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제시문 <나>: 피코 텔라 미란돌라, 성영 역주, 『피코 텔라 미란돌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연설』, 경세원, 2009, 17-18쪽

창조주는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타의 피조물들이 창조의 과정에서 설정된 법칙에 따라 그 본성이 제약되어 있는 반면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기 자신을 조형해 갈 수 있는 존재다. 그에 따라 인간은 짐승 같은 하위의 존재로 퇴화될 수도, 또 자신의 불완전성을 극복하여 신적이라 할 수 있는 상위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논제의 구성

문제의 요구사항은 제시문 <가>에 등장하는 인물, 에일머의 인간상과 제시문 <나>에서 볼 수 있는 인간상의 공통점을 밝히는 것이다. 에일머는 지상의 존재는 본성상 불완전하나 인간은 과학적 지식을 통해 그 불완전함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은 존재이다.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힘을 모두 가진 존재라는 인간상은 제시문 <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더 나은 존재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인간상을 설명하는 것이 이 문제의 요구이다.

[대학 채점기준]

■ 답안의 구성 요소

- ①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② 답안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③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문항 2-1]의 제시문 <가>와 <나>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인간상을 설명하는 답안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

어야 한다.

- ① 인간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되, 그 불완전성을 극복하려는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 ② 인간은 자연적 불완전함을 과학적 지식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존재이다.
- ③ 인간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인간상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제시문 <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항 2-2] 답안의 내용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의학과 유전학(혹은 진화생물학)과 같은 과학적 지식의 발전은 사회를 인간의 의지에 따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 ⑤ 이러한 믿음이 우생학 프로그램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게 하였다.
- ⑥ 그러나 우생학 프로그램은 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가 보여주듯 거대한 사회적 폭력이 될 수 있다.
- ⑦ 자연과 나아가 인간 사회를 인간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제시문 <가>와 <나>에서 볼 수 있는 (근대 계몽주의적) 인간상의 유산이다.
- ⑧ 자연과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상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오늘날에는 (환경 문제는 물론이고) 그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성 때문에 더 이상 견지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항 2-1]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고, 체계적인 논리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1등급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으나,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을 모두 서술하였지만, 논리적 구성이 미흡한 경우	3등급
①, ②를 서술하였으나, ③을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4등급
②, ③을 서술하였으나, ①을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5등급
①을 서술하였으나 ②, ③을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6등급
②, ③ 중의 하나만을 서술하고 나머지를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의 요소를 하나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8등급
문항의 요구사항에 무관한 답을 썼거나 아래의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9등급

<유의 사항>

- 답안 글자 수가 [문항 2-1]은 100자 이내, [문항 2-2]는 200자 이내일 경우, 각각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대학 예시답안] 298자

<가>의 에일머는 인간이 과학 지식의 힘으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다. 그의 믿음은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성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는 그가 조지아나의 뺨에 있는 반점을 지우고자 노력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에일머의 이러한 인간상은 <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상 제약이 있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다. 인간은 비록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는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그 의지에 따라 더 나은 존재로 개선하고 조형해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대학 채점위원 총평]

인문계 [문항 2]의 주제는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인간의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근대 계몽주의적 인간상이 지닌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러한 인간상이 근대 이후 인류 역사에 미친 폐해와 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에 대한 파괴는 물론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 침해와 폭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문항의 요구사항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근대 계몽주의적 인간상을 두 제시문, 제시문 <가>와 <나>에서 포착하고,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그러한 인간성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첫 번째 논제와 관련하여 대개의 답안이 두 제시문에 담긴 인간상을 나름대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답안의 차이는 두 가지 제시문에서 피력된 공통된 인간상을 얼마나 정확히 제시하는가에 따라 결정됐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인간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서술된 답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시문 <다>의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 논제에서 도출된 인간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라는 두 번째 논제에 대한 답안은 생각보다 다양한 층위에서 서술했다. 먼저 첫 번째 논제의 ‘공통적인 인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제시문 <다>의 핵심 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다>의 내용에 기반하여 그 인간상을 비판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공통적인 인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시문 <나>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두 가지 제시문의 공통 핵심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경우가 꽤 있었다. 아울러 제시문 <다>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주관적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제시문 <다>는 제시문 <가>와 <나>에 피력된 인간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논제의 경우 제시문 <다>가 전하는 취지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논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답변이 많았지만, 때로 논제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한 답변도 상당수 존재했다. 두 번째 논제의 경우, 답안의 정확한 기술의 면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생각보다 원고지 사용법과 국어 정서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답안,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주술 호응이 일치하지 못한 답안, 주어진 분량에 미달된 답안도 꽤 있었다. 답안 내용 못지않게 답안의 형식과 체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대학 우수답안] 302자

<가>에선 에일머의 인간의 의지와 과학적 노력으로 주변 환경을 넘어선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의지와 과학의 힘으로 자연을 통제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무엇 이든 자신의 마음대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정신과 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시사한다. 자신의 의지와 추가적인 노력으로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와 <나>에선 공통적인 인간상이 나타난다.

속명여대 2022학년도 모의 2-2번

✎ 제시문 <다>의 내용을 토대로 위 [문제 2-1]의 인간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시오. (600±60자)

<다>

20세기 초반에는 인종주의자와 우익 보수주의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좌익 진보주의자 역시 의학 발전의 효과와 인간 유전자 개선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근대 사회는 이른 나이에 소멸해야 했었을 많은 ‘부적합한’ 사람들을 생존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쓸모없는 인간들이 늘어남으로써 이 세계가 퇴락할 것을 걱정했다. 그 결과 많은 나라들(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등)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생학* 프로그램 연구에 국가적 지원을 하였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1907년에서 1963년까지 64,000명의 사람들이 우생학적 법률에 따라 불임 시술을 받아야 했다. 정신장애인, 농아, 맹인, 뇌전증 환자, 노숙자 등이 그 대상이었다. 물론 그렇게 광범위하게 시행된 강제적인 불임 시술도 ‘열등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숙아낸 독일 나치(Nazis)의 우생학 프로그램에 비교할 수는 없다.

홀로코스트는 인간의 마음에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 같은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연상시키는 생각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해왔다(하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이 그렇다. 그때 세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80만 명에 이르는 아프리카인들이 도살당할 때 그저 멍하니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특히 우생학적 운동은 그 어떤 형태든 비난받곤 했는데 그 이름 속에 담긴 끔찍한 범죄들 때문이었다. 물론 몇몇 부드러운 우생학적 프로그램들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배했던 비전을 통해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한다는 목적은 이제 완전히 낡은 유물이 되었다.

* 우생학(eugenics):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고자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 제시문 <다>의 내용을 토대로 위 [문제 2-1]의 인간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시오. (600±60자)

[독해]

- (가) 에일머는 아내의 반점(흠결)을 자신의 약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이로 인해 아내는 사망에 이른다.
- (나) 인간은 미완의 존재이지만 규제받지 않는 존재로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이다.
- (다) 우생학 정책 - 특정 유적전 특질 우월주의 → 중대한 인권 침해를 만드는 범죄

[논리평면] 가치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가치
기준	(다)	우생학적 정책	인권 침해적 범죄 발생	Bad
대상	통합	계몽주의	자신의 관념으로 세상 통제 시도	Bad
	(나)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을 완성하는 존재이다		bad
	(가)	완전할 수 없는 기준의 관점	상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bad

[예시답안] 563자

문단	기능	내용
1	대상 핵심	계몽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생각만 믿고 무책임한 짓을 저지르곤 한다.
	대상 상(나)	제시문 (나)에서 말하듯, 그들은 자신들이 노력에 따라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 굳게 믿는다.
	대상 상(가)	또한 제시문 (가)에서 보여주듯, 그들은 자신들이 쟁취한 주관적 견해를 절대적 진리로 여겨 대상의 '결점'을 고치려 든다. 그리고 에일머의 잘못된 처방에 그의 아내가 사망에 이르듯, 그들의 불온전한 이상은 무고한 대상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만다.
2	주장	이러한 계몽자들의 행태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인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기준 핵심	계몽주의적 태도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범죄가 무겁기 때문이다.
	기준 상술	제시문 (다)의 우생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관점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그에 따라 다른 대상들의 이질적 특성을 결함으로 대하면 안 된다. 독일 나치는 그들이 생각할 때 '열등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으며, 이는 인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았다.
	적용	이렇듯, 계몽주의자들이 맹신한 불완전한 처치는 결국 불명예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대학 출제의도]

본 문항은 근대의 계몽주의적 인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제시문과 그런 근대적 인간상이 자아낼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의 인간상은 과학 지식을 토대로 세상은 물론 인간 자신마저도 인간 자신의 욕구와 의도에 따라 조형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해 있다. 인간이 세상 만물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에 대한 파괴는 물론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 침해와 폭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문항의 요구사항은 이러한 인간상을 두 제시문, <가>와 <나>에서 포착하고, 그 위험성을 <다>를 활용하여 비판하는 것이다.

[대학 문항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다>: Nick Bostrom, "A History of Transhumanist Thought", in Academic Writing Across the Disciplines, eds. M. Recentwald & L. Carl, N.Y.: Pearson Longman, 2011, 6-7쪽

20세기 초반 정치적 이념의 차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학의 발전과 인간의 유전자를 개선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결과 당시 많은 나라들은 우생학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농어나 맹인, 뇌전증 환자 등에게 불임 시술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열등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슈아냄으로써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우생학적 이념은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공할 폭력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생학적 프로그램들에 대해 거부하도록 만들었다.

■ 논제의 구성

문제의 요구사항은 제시문 <다>의 내용을 토대로 [2-1]의 인간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 사회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른바 우생학 프로그램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고,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보여 주듯 거대한 폭력을 귀결되었다. 과학적 지식을 통해 사회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제시문 <가>와 <나>에서 볼 수 있는 인간상 [2-1]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결국 인간을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채점기준]

■ 답안의 구성 요소

- ①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② 답안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③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문항 2-1]의 제시문 <가>와 <나>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인간상을 설명하는 답안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인간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되, 그 불완전성을 극복하려는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 ② 인간은 자연적 불완전함을 과학적 지식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존재이다.
- ③ 인간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인간상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제시문 <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문항 2-2] 답안의 내용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의학과 유전학(혹은 진화생물학)과 같은 과학적 지식의 발전은 사회를 인간의 의지에 따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 ⑤ 이러한 믿음이 우생학 프로그램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게 하였다.
- ⑥ 그러나 우생학 프로그램은 한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가 보여주듯 거대한 사회적 폭력이 될 수 있다.
- ⑦ 자연과 나아가 인간 사회를 인간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제시문 <가>와 <나>에서 볼 수 있는 (근대 계몽주의적) 인간상의 유산이다.
- ⑧ 자연과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상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오늘날에는 (환경 문제는 물론이고) 그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성 때문에 더 이상 견지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④, ⑤, ⑥, ⑦, ⑧을 모두 충족하고, 체계적인 논리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1등급
④, ⑤, ⑥, ⑦, ⑧을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으나,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2등급
④, ⑤, ⑥, ⑦, ⑧을 모두 서술하였지만, 논리적 구성이 미흡한 경우	3등급
④, ⑤, ⑥, ⑦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⑧을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4등급
④, ⑤, ⑥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⑦, ⑧을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5등급
④, ⑤를 서술하였으나 ⑥, ⑦, ⑧을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6등급
④, ⑤, ⑥, ⑦, ⑧ 중에서 한두 개만 충족하고 답안의 충실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	7등급
④, ⑤, ⑥, ⑦, ⑧의 요소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글자 수가 400자 미만인 경우	8등급
문항의 요구사항과 무관한 답을 썼거나 아래의 <유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9등급

<유의 사항>

- 답안 글자 수가 [문항 2-1]은 100자 이내, [문항 2-2]는 200자 이내일 경우, 각각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대학 예시답안] 613자

[문항 2-1]의 인간상에 따르면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자, 자연을 통제하고 나아가 인간 자신과 사회를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존재이다. 자연과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과학 지식의 성장과 발전에서 더욱 그 힘을 얻는다. 20세기 초 사람들이 사회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은 것은 의학과 유전학의 발전 덕이었다. 그런 믿음의 결과인 우생학 프로그램의 이념은 사회를 퇴보시킬 수 있는 열등한 존재를 숨어냄으로써 사회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가 보여주듯 20세기의 역사는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일 수 있는지를 증언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임 시술을 강요하는 정책은 한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 인권 침해 외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그런 이념이 얼마나 가공할 폭력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생학’이라는 이름을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역사로부터의 교훈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 자신을 포함해서 자연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믿음은 더 이상 견지될 수 없는,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믿음이다.

[대학 채점위원 총평]

인문계 [문항 2]의 주제는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하여, 인간의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근대 계몽주의적 인간상이 지닌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러한 인간상이 근대 이후 인류 역사에 미친 폐해와 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에 대한 파괴는 물론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 침해와 폭력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문항의 요구사항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근대 계몽주의적 인간상을 두 제시문, 제시문 <가>와 <나>에서 포착하고, 제시문 <다>를 활용하여 그러한 인간성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첫 번째 논제와 관련하여 대개의 답안이 두 제시문에 담긴 인간상을 나름대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답안의 차이는 두 가지 제시문에서 피력된 공통된 인간상을 얼마나 정확히 제시하는가에 따라 결정됐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인간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서술된 답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시문 <다>의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 논제에서 도출된 인간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라는 두 번째 논제에 대한 답안은 생각보다 다양한 층위에서 서술됐다. 먼저 첫 번째 논제의 ‘공통적인 인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제시문 <다>의 핵심 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다>의 내용에 기반하여 그 인간상을 비판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공통적인 인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시문 <나>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두 가지 제시문의 공통 핵심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한 경우가 꽤 있었다. 아울러 제시문 <다>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주관적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제시문 <다>는 제시문 <가>와 <나>에 피력된 인간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논제의 경우 제시문 <다>가 전하는 취지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논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답변이 많았지만, 때로 논제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한 답변도 상당수 존재했다. 두 번째 논제의 경우, 답안의 정확한 기술의 면에서 분명한 차별성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생각보다 원고지 사용법과 국어 정서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답안,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주술 호응이 일치하지 못한 답안, 주어진 분량에 미달된 답안도 꽤 있었다. 답안 내용 못지않게 답안의 형식과 체계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대학 우수답안] 651자

제시문 <다>는 사회 안전망 확보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우생학 프로그램 연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생학 프로그램은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사회적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강제적 불임 시술을 하여 그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듯 우생학 프로그램은 결국 사회안전망 확보, 즉 세상을 완벽함에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켜가며 목적만을 바라본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문항 2-1]에서의 인간상은 타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완벽해지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아내의 흠을 없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무모하게 아내를 도구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신에 버금가는 상위 존재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두 제시문은 인간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회, 혹은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완벽에 가까워지기까지의 과도기roman 치부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우생학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인간의 발전 가능성이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항 2-1]의 인간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중앙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경영경제 1번

☞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와 이를 계기로 등장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 570자]

(가)

빛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자살하려다 우연히 살아남아 무인도인 밤섬에서 깨어난다. 밤섬에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어느 날 쓰레기 속에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발견한 남자 김 씨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져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한편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진 찍기인데,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발견한다. 오랜 관찰로 남자의 사정을 알게 된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을 배달시켜 보낸다.

s#83 방(오후)

여자의 망원 렌즈 시점. 짜장면을 들고 배달원 앞까지 걸어오는 남자. 배달원에게 '뭐라 뭐라' 하는 남자. 그러고는 돌아서 가 버린다. 황당한 배달원.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도로 철가방에 담는다. 카메라에서 눈을 떼는 여자.

s#85 현관(오후)

딩동! Ding! Ding! 짜증 날 대로 난 배달원. 대답이 없자 현관 앞에 급기야 무작정 짜장면을 내려놓는다.

배달원 아, 몰라, 몰라, 몰라! 직접 전해주든지, 먹든지, 버리든지.....

여자 그 남자..... 다른 말 없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 같던데..... 그쵸? 뭐라고 그랬어요?

배달원 전해 달래요.

여자 (동그랗게 떠지는 두 눈)

배달원 (갑자기 정색하며) 자기한테 짜장면은..... 희망이래요.

s#97 짜장면을 만들다(오후)

오리배 앞. 말린 옥수수의 알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남자. 여자가 보내온 와인병으로 힘차게 옥수수 알을 뺀 남자. 이제는 가루가 된 옥수수에 적당량의 물을 붓는다. 다시 한번 와인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반죽한다. 반죽한 덩어리는 강통 뚜껑으로 얇게 잘라 낸다. 모닥불 위에 끓고 있는 물. 잘라 낸 면을 넣고 나뭇가지로 천천히 젓는 남자.

s#98 짜장면 완성(오후)

모래사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을 그릇에 담은 남자. 양념 가루를 들어 조심스럽게 찌는다. 툭 툭 툭 양념 가루의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털어 낸다. 나무젓가락을 꺼내 쓱 쓱 면과 양념 가루를 비비는 남자. 마침내 어느 정도 비벼진 면을 잠시 바라보는 남자. 남자의 표정은 설명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하다. 드디어 완성된 남자만의 짜장면을 한 젓가락 들어 입으로 가져간다. 우걱우걱 씹는 남자의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한다. 감정을 누르고 다시 한 젓가락을 입 속에 넣는다. 우걱우걱 씹을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눈시울. 어느새 뚝뚝 떨어지는 굵은 눈물. 남자, 입가가 시커멓게 되도록 짜장면을 옥여넣어 보지만, 폭발하는 감정을 참을 길 없다. 애써 웃어 보려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흐른다. 이제껏 흘려 본 적 없는 눈물. 말하자면 그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 같은 눈물이다.

s#99 방(오후)

여자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한다.

여자 (미소를 지으며) 콩그래츨레이션스.....

s#102 오리배 안(오후)

그동안 받은 와인병들이 즐지어 서 있는 오리배 안. 여자의 편지, 'CONGRATULATIONS'를 보고 있는 남자. 바라보는 남자의 평온한 시선. 비록 짧은 단어지만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다. 한동안 보던 남자, 무슨 생각에선지 오리배 안 구석,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곳에서 뭔가를 찾는다. 남자가 집어 드는 건 다름 아닌 휴대 전화.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는 남자. 폴더를 열고 잠시 후.

남자 헬로? 하우 아 유? 파인 생큐, 앤 유? 파인 생큐! 음..... 웨얼 아유 프롬? 코리안? 리얼리? 오 마이 갓! 미투! 미투! 아임 코리안! 프롬 도봉구..... 예..... 아..... 앤드, 아.....

할 얘기가 없다. 아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애초 하나뿐이었다.

남자 아이..... 아이..... 흠 투 씨 유..... 후 아 유?

(나)

로사, 피닌 그리고 코르데라 이렇게 셋은 늘 단짝이었다! 소몬테 목장은 구름 아래로 녹색 들판이 용단처럼 펼쳐진 삼각 지대였다. [중략] 사실 동료들보다 한결 고지식한데다 나이도 한참 위인 코르데라는 상대적으로 문명 세계와의 소통을 일체 마다한 채 멀찍이서 전봇대를 바라보았는데, 실제로 그녀는 몸을 비빌 수조차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죽어 버린 사물을 대하듯 했다. 그녀는 나이 지긋한 암소였다. 풀밭이라면 흰히 꿰고 있는 그녀는 몇 시간이고 자리에 앉아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았다. 풀을 뜯기보다는 명상을 즐겼고, 또 영혼을 살찌우는 사람처럼(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다.) 자기 땅의 고즈넉한 회색빛 하늘 아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했다.

그녀는 자기를 사육하는 일을 맡은 어린 목동들의 놀이에 할머니처럼 함께 어울렸다. 그럴 수만 있다면, 코르데라는 로사와 피닌이 목장에서 맡은 임무가 울타리를 벗어나 철길로 뛰어든거나 근처의 경작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녀를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머금었을 것이다. 무엇 하러 울타리를 뛰어 넘겠는가!

그녀는 이따금씩 풀을 뜯어 먹었는데, 많이 먹지도 않았고 갈수록 양도 줄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에 고개를 들어 한눈을 파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주저 없이 가장 좋은 풀을 골라 조심조심 몇 입 뜯어 먹고서 흐뭇하게 엉덩이를 깔고 앉아 살아온 날들을 되새김질하거나 고통 없는 기쁨을 만끽했다. [중략]

최후의 순간에 돌은 친구인 코르데라에게 몸을 던졌다.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안녕, 코르데라!”

눈물로 뒤통이가 된 로사가 소리쳤다.

“잘 가, 사랑하는 코르데라!”

“안녕, 코르데라!”

감정이 폭발쳐 피닌이 따라 외쳤다.

마지막으로 코르데라의 방울 소리가 자기 방식대로 응답했다. 체념한 코르데라의 슬픈 탄식은 마을에 내려앉은 칠월 밤의 다른 소리들에 섞여 사라져 갔다…….

이튿날 피닌과 로사는 평소처럼 아주 이른 시간에 소몬테 목장으로 갔다. 그 쓸쓸함이 그토록 슬프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날, 코르데라 없는 소몬테는 마치 사막과도 같았다.

갑자기 기적이 울리더니 증기가 피어올랐고, 이윽고 기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물차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쌍둥이 남매는 높고 좁은 차창과 환기통에서 겁에 질린 채 채광창을 통해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암소들의 머리를 어렵풋이 보았다.

“안녕, 코르데라!”

로사는 친구인 할머니 소 코르데라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소리쳤다.

“안녕, 코르데라!”

피닌도 같은 생각으로 카스티야의 길을 질주하는 기차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며 악을 썼다. 어리지만 세상의 야비함에 대해 여동생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피닌이 울면서 다시 소리쳤다.

“코르데라를 도살장으로 데려가는 거야……. 소고기가 되어 지체 높은 양반네들과 사제들……. 졸부들

입에 들어가는 거라고.”

로사와 피닌은 원망 어린 눈으로 그들에게서 친구를 앗아 간 적대적인 세계의 상징인 철길과 전봇대를 노려 보았다. 돈 많은 대식가들을 위한 음식으로 만들어 그들의 식탐을 채우기 위해 오랜 세월 고독과 말 없는 사랑을 함께 나눈 자신들의 친구를 삼켜 버린…….

(다)

무술년은 내가 예순여섯 살이 되던 해이다. 갑자기 앞니 하나가 빠져 버렸다. 그러자 입술도 일그러지고, 말도 새고, 얼굴까지도 한쪽으로 뺄어져진 것 같았다.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보니 놀랍게도 단사람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내려 하였다.

사람이 체력을 유지하고 기르는 데는 음식만한 것이 없는데,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가 빠져 버리고 나니 빠진 이 사이로 물이 새고 밥은 딱딱하여 잘 씹히지 않으며, 간간이 고기라도 씹으려면 마치 독약을 마시는 사람처럼 얼굴이 절로 찌푸려진다.

나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입에 올리지 못한 책이 수도룩하다. 이제부터라도 아침저녁으로 시골 풍경을 바라보면서 책이나 흥얼거리는 것으로 말년을 보내려 했다. 그리하여 캄캄한 밤에 촛불로 길을 비추듯, 인간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가 빠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치 깨진 종소리 같아서, 빠르고 느낌이 마디지지 못하고, 맑고 탁한 소리가 조화를 잃고, 칠음(음계를 이루는 일곱 가지 소리)의 높낮이도 분간할 수 없으며 팔풍(여덟 가지 악기의 소리)도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낭랑한 목소리를 내 보려고 안간힘을 써 보았으나 끝내 소리가 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나는 내 모양이 슬퍼서 책 읽는 일을 그만두어 버렸다. 그리고 나니 마음은 더욱 게을러져 갔다. 결국 인간의 근본을 찾으려 했던, 최초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이가 빠지고 난 뒤에 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다. [중략]

지금 얼굴이 일그러져 추한 모습으로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모두 놀라고 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내가 아무리 늙었음을 잠깐만이라도 잊으려 한다 해도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는 노인으로서의 분수를 지켜야겠다.

옛날 선인들의 예법에, 사람이 예순 살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군대에 나가지 않으며, 또 학문을 하려고 덤비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일찍이『예기』를 읽었으나 이와 같은 예법에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곤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크게 깨달았다. 앞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휴식을 찾아야 할까 보다. 결국 빠진 이가 나에게 경고해 준 바가 참으로 적지 않다 하겠다. 얼굴이 일그러졌으니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야 하고, 말소리가 새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고, 고기를 씹기 어려워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지 못하니 그냥 마음속으로나 읽어야 할 것 같다. 조용히 들어앉아 있으면 정신이 안정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며,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수복(오래 사는 복)을 온전히 누릴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글을 읽으면 조용한 가운데 인생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터이니, 그 손익을 따져 본다면 그 이로움이 도리어 많지 않겠는가?

(라)

송도에 사는 황 진사의 딸 황진이는 시와 음악에 재능이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황진이는 서울의 윤 승지덕과 혼약을 맺지만, 집안의 하인인 놈이가 황진이의 출생 배경을 누설하여 파혼을 당한다. 이 무렵 한 총각이 황진이를 연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어서 그의 장례식이 열린다.

진이는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로 부르고 찾는 소리, 자리를 다투는 걸직한 욕설들, 느닷없이 터져 오르는 너털웃음들……. 저 사람들은 지금 그의 고통을, 그의 슬픔을, 그의 창피를, 그의 굴욕을 구경하고 싶어 저리도 뒤설레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그렇다면 응당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진이는 자개함 통을 열고 그 안에 깊숙이 간수해 두었던 자기의 혼수를 꺼냈다.

사시쯤 되었을 때 상행이 뒤꼍 어구에 들어섰다. 상여는 앞으로 나갈 듯 뒤로 물러서고 물러설 듯 다시 앞으로 나가며 요령 소리와 상여 노래에 맞추어 그네처럼 한자리에서 흔들렸다.

진이는 담장 안쪽에서 문고리를 쥐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진이는 문을 열었다. 구경꾼들은 깜짝 놀랐다. 상두꾼들이 상여를 내려놓았다. 진이는 죽은 총각의 관곽 앞에 마주 섰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나온 꽃무늬의 붉은 슬란치마를 활짝 펴서 관곽을 덮었다. 진이는 마치 눈에 보이는 그 누구와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류두날 밤 달빛 속에서 자기를 낫 잃고 쳐다보던 그 총각의 얼굴이 우렷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여보세요,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한번 얼핏 뵈은 일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죽음으로 보여 준 나에게 대한 뜨거운 사랑은 압니다. 유명한 길이 달라 지금은 당신의 그 진실한 사랑에 보답할 길이 전혀 없군요. 혹시 이후 저승에서 다시 만나 뵈게 될는지……. 이승에서 보답할 수 없었던 사랑을 저승에서는 꼭 갚아 드립니다. 그 약속에 대한 표적으로 제가 마련해 가지고 있던 혼례 옷을 당신의 령전에 바치오니 알음이 있으면 받아 주세요. 인명이 하늘에 매였다고는 하나 인정에 어찌 애지 않겠나요. 생사가 영 리별이라고 하지만 후생의 기약이 있으니 바라옵건대 어서 떠나세요…….”

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목소리가 갈려서 마지막 말을 채 맺지 못했다.

진이는 별당에 돌아와 방 안에 앉았다. 그는 방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은 혼백과 저승의 사랑을 약속했다. 진이는 사람들의 구구한 시비와 말밥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가지 자신에게 명백히 할 것은 이 행동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변덕이 아니라는 것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사랑의 감정을 송두리채 죽은 혼백한테 바쳐 버렸으니 이제부터 자기는 이승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랑이라는 감정은 전혀 있을 수 없는 목석과 같은 녀인이라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진이가 간절히 바라는 바요, 진심으로 원하는 바였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와 이를 계기로 등장인물에게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 570자]

[독해]

- (가) 눈물의 이유: 무기력한 삶에 피어난 새로운 희망의 목표를 달성한 감동
이를 통한 변화: 세상과의 단절을 끊어내고 세상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
- (나) 눈물의 이유: 오래도록 사랑과 우정을 함께 나눈 친구를 잃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
이를 통한 변화: 친구를 죽게 만든 권력자들의 탐욕에 대한 반감이 생김
- (다) 눈물의 이유: 늙고 쇠약해진 몸과 마음에 대한 놀람과 서글픔
이를 통한 변화: 늙어감에 대한 인정과 건설적 수용
- (라) 눈물의 이유: 죽을 만큼 자신을 사랑한 한 사람에 대한 감사와 아쉬움
이를 통한 변화: 자신의 사랑을 망자에게 바쳤으니 이제 더 이상 누굴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논리평면] 조건부 요약(내용상 비교)

구성	제시문	내용	
	서론	눈물의 의미	그에 따른 변화
본론	(가)	무기력한 삶에 피어난 희망을 달성한 감동	세상과의 단절을 끊고 소통 재시작
	(나)	오래도록 마음을 나눈 친구 결별하는 슬픔	친구를 앓아간 권력자의 탐욕에 대한 반감
	(다)	늙고 쇠약해진 몸과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	늙어감에 대한 인정과 건설적 수용
	(라)	죽도록 자신을 사랑한 사람에 대한 공감과 감사	더 이상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겠다는 결단
결론		감동, 슬픔, 아쉬움, 감사	소통, 반감, 수용, 결단

[예시답안] 555자

문단	기능	내용
1-1	서론	제시문들 속에는 눈물을 흘리는 각양각색의 이유와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1-2	(가) 이유	제시문 (가)에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인생에 생긴 한 줄기 희망을 스스로의 힘으로 달성한 스스로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 나타난다.
	(가) 변화	이를 통해 화자는 그동안 단절하고 살았던 세상과 다시 소통하는 도전을 보여준다.
	(나) 이유	제시문 (나)에는 오랫동안 우정을 나눈 친구를 의도치 않게 잃는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나타난다.
	(나) 변화	이러한 결별의 원인이 권력자들의 탐욕에 있음을 깨닫고 화자는 그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다.
	(다) 이유	제시문 (다)에는 늙고 쇠약해진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나타난다.
	(다) 변화	하지만 화자는 결국 자신의 노쇠를 수용하고, 노년의 이로움을 누리겠다는 건설적 수용을 보여준다.
	(라) 이유	제시문 (라)에는 죽도록 자신을 사랑한 한 사람에 대한 공감과 감사의 눈물이 제시된다.
	(라) 변화	화자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운명의 사랑을 약속하고, 앞으로 다른 사랑을 품지 않기로 결단한다.
1-3	결론-이유	이처럼, 우리의 눈물에는 감동, 슬픔, 안타까움, 공감이라는 이유들이 있고,
	결론-변화	이러한 눈물로 인해 우리는 소통하고 분노하며 수용하고 결단하는 변화를 겪는다.

[대학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 (미래엔, 2018)에 실린 이해준의 「김 씨 표류기」 라는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다. 이 작품은 ‘문학의 가치’ 단원 중 ‘문학과 삶의 다양성’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능력을 기르고, 타자를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사회로부터 단절된 무인도인 밤섬에서 남자 김 씨는 스스로 짜장면을 만들어 먹으면서 원하는 것을 성취감을 느끼고 감격하여 삶의 희망을 발견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눈물의 이유임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런 이후 휴대 전화로 통화를 시도함으로써 타인과 소통하는 시도의 변화가 나타남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 (미래엔, 2018)에 실린 레오폴로 알라스의 「안녕, 코르테라!」 에서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작품은 ‘독서의 분야’ 단원 중 ‘지역을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에 실린 소설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글에 반영되었음을 독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다. 「안녕, 코르테라!」 는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빚으로 인해서 암소 코르테라가 쌍둥이 자매와 원치 않는 이별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인식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제시문 (나)의 쌍둥이 자매와 단짝이었던 코르테라와 원치 않게 헤어지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슬픔이 눈물의 원인이 됨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코르테라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욕망과 약육강식의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인식하게 됨이 변화로 나타난다는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과서, 2018)에 실린 김창흡의 「낙치설」 의 일부이다. 이 작품이 수록된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내용, 형식, 맥락 등을 바꾸어 작품을 재구성하고 문학 작품을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창작하는 것이다. 제시문 (다)는 글쓰기가 자신의 신체 변화를 계기로 인식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수필이다. 이가 빠지는 신체 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서 글쓰기의 슬픔과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2018; 미래엔, 2018)에 수록된 홍석중의 「황진이」의 일부이다. 이 작품이 수록된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조선 시대의 이름난 기생 황진이의 일생을 다룬 북한 장편 소설이다. 황진이를 사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의 장례식에서 황진이가 눈물을 흘린 이유와 그를 계기로 황진이에게 나타난 변화를 중심으로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채점기준]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눈물을 흘리는 이유와 이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각각 정확하게 찾아 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32점 만점)

(가) 이유: 남자 김 씨가 손수 짜장면을 만든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면서 삶의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임(4점)

변화: 세상과의 단절에서 벗어나고자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4점)

(나) 이유: 남매는 가족처럼 여기던 암소와 예기치 않은 이별을 했기에 슬픔 때문임(4점)

변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탐욕을 인식하고 야비한 세상에 반감을 가짐(4점)

(다) 이유: 이가 빠지자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책 읽기를 멈추어 자기 수양에 나태해졌기 때문임(4점)

변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이들의 불편함이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됨(4점)

(라) 이유: 죽음으로 보여준 총각의 진정한 사랑에 공감했기 때문임(4점)

변화: 총각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함(4점)

- 네 개의 제시문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와 이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와 이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와 이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와 이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과 ‘눈물을 흘린 계기로 나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점)

①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한 핵심적 표현: 성취감, 이별, 서글픔, 공감

② 눈물을 흘린 후 나타난 변화에 대한 핵심적 표현: 타인과의 소통, 현실 인식, 깨달음, 결단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원인과 결과를 찾아 제시 (32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 (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5점	

[대학 예시답안] 569자

제시문 (가)~(라)에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가)의 남자 김 씨가 손수 짜장면을 만든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면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여 눈물을 흘렸고, 이를 계기로 세상과의 단절에서 벗어나고자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하게 된다. (나)의 남매는 늘 친구처럼 함께 지내던 암소와 예기치 않은 이별을 했기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고, 이로 인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탐욕을 인식하고 야비한 세상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다)의 화자는 이가 빠지자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책 읽기를 멈추어 자기 수양에 나태해졌기에 슬퍼했지만,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이 들의 불편함이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 (라)의 황진이는 죽음으로 보여준 총각의 진정한 사랑에 공감했기 때문에 애도의 눈물을 흘렸고 그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성취감, 이별의 아픔, 서글픔, 공감 등의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이를 계기로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타인과의 소통, 현실 인식, 깨달음, 결단 등이다.

중앙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경영경제 2번

- ☞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 (마)와 (바)의 차이를 서술하고, 제시문 (바)에서 언급된 '도전자'가 기부행위를 할 때 고려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

송도에 사는 황 진사의 딸 황진이는 시와 음악에 재능이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황진이는 서울의 윤 승지덕과 혼약을 맺지만, 집안의 하인인 늬이가 황진이의 출생 배경을 누설하여 과혼을 당한다. 이 무렵 한 총각이 황진이를 연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어서 그의 장례식이 열린다.

진이는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로 부르고 찾는 소리, 자리를 다투는 걸직한 욕설들, 느닷없이 터져 오르는 너털웃음들……. 저 사람들은 지금 그의 고통을, 그의 슬픔을, 그의 창피를, 그의 굴욕을 구경하고 싶어 저리도 뒤설레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그렇다면 응당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진이는 자개함 통을 열고 그 안에 깊숙이 간수해 두었던 자기의 혼수를 꺼냈다.

사시쯤 되었을 때 상행이 뒤골 어구에 들어섰다. 상여는 앞으로 나갈 듯 뒤로 물러서고 물러설 듯 다시 앞으로 나가며 요령 소리와 상여 노래에 맞추어 그네처럼 한자리에서 흔들렸다.

진이는 담장 안쪽에서 문고리를 쥐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진이는 문을 열었다. 구경꾼들은 깜짝 놀랐다. 상두꾼들이 상여를 내려놓았다. 진이는 죽은 총각의 관곽 앞에 마주 섰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나온 꽃무늬의 붉은 슬란치마를 활짝 펴서 관곽을 덮었다. 진이는 마치 눈에 보이는 그 누구와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류두날 밤 달빛 속에서 자기를 낚 았고 쳐다보던 그 총각의 얼굴이 우렷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여보세요,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한번 얼핏 뵈은 일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죽음으로 보여 준 나에게 대한 뜨거운 사랑은 압니다. 유명한 길이 달라 지금은 당신의 그 진실한 사랑에 보답할 길이 전혀 없군요. 혹시 이후 저승에서 다시 만나 뵈게 될는지……. 이승에서 보답할 수 없었던 사랑을 저승에서는 꼭 갚아 드리렵니다. 그 약속에 대한 표적으로 제가 마련해 가지고 있던 혼례 옷을 당신의 령전에 바치오니 알음이 있으면 받아 주세요. 인명이 하늘에 매였다고는 하나 인정에 어찌 애 지 았겠나요. 생사가 영 리별이라고 하지만 후생의 기약이 있으니 바라옵건대 어서 떠나세요…….”

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목소리가 갈려서 마지막 말을 채 맺지 못했다.

진이는 별당에 돌아와 방 안에 앉았다. 그는 방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은 혼백과 저승의 사랑을 약속했다. 진이는 사람들의 구구한 시비와 말밥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가지 자신에게 명백히 할 것은 이 행동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변덕이 아니라는 것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사랑의 감정을 송두리채 죽은 혼백한테 바쳐 버렸으니 이제부터 자기는 이승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랑이라는 감정은 전혀 있을 수 없는 목석과 같은 녀인이라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진이가 간절히 바라는 바요, 진심으로 원하는 바였다

(마)

사춘기 반항의 푸른 물결을 반추하게 해 주는 소설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열에 아홉은 『호밀밭의 파수꾼』을 꼽지 않을까? 뉴욕 맨해튼에 사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16세 소년, 홀든 콜필드가 사립 학교에서 쫓겨나면서 이틀 동안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담고 있는, 시간상 짧은 이야기이지만 그 응집력은 어지간한 장편 소설을 넘어선다. 홀든은 잘사는 부모도, 그 밑에서 죽은 듯이 암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도 싫다. 우리가 십 대 초반에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었던, 마치 '부정'이 역병처럼 돌던 시기를 관통했듯이 말이다. 그러던 와중에 세 번째 사립 학교에서 쫓겨난 홀든은 더는 어른들의 공허함 가득한 허위와 가식의 세계에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학교라는 자신의 사회, 그 경계 밖으로 쫓겨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뛰쳐나온 홀든 앞에 펼쳐진 뉴욕의 거리 또한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중략] 마음과는 달리 떠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홀든은 담담히 꿈을 이야기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건 그거야.”

홀든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구절을 읽으며 나는 팬스레 눈물이 났다. 그가 얼마나 아이이고 싶은지, 또 동시에 얼마나 어른이고 싶은지를 느낄 수 있었다. 또 절벽에서 자신을 붙잡아 줄 어른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절벽 위에 서서 온갖 바람을 맞고 언젠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누군가 붙잡아 달라는 소리 없는 외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외침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메아리도 없이 공허한 울림만으로 돌아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홀든은 공허함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므로 절실하게 내가 나를 이해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기애가 생긴다고 믿는다. 반항이나 방향이 필요한 까닭도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강이라고 인식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항과 방향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강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같은 것이다.

(바)

‘해시태그(hashtag)’는 해시(#, hash) 기호를 사용하여 게시물에 꼬리표를 단다는 뜻으로,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해시 기호를 써서 게시물이 그 단어나 문구와 관련된 것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이후 검색 기능이 더해져 해시태그를 누르면 똑같은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검색된다. 해시태그가 널리 알려진 계기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 기부 운동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기부 운동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되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동영상을 누리소통망에 올린 뒤 다음 도전자 세 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이어 간다. 찬 얼음물이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 보자는 취지이다. 2014년 여름부터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 인사는 물론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기부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사)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 (마)와 (바)의 차이를 서술하고, 제시문 (바)에서 언급된 '도전자'가 기부행위를 할 때 고려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독해]

- (라) 상대의 마음에 깊게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마) 화자는 소설 속 인물에 감정이입하며 청소년의 사춘기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 (바) 아이스버킷 챌린지(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환자의 고통 체험)을 통한 기부 문화의 사회적 확산
- (사)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평면] 비교, 사실추론

공통점	공감		
쟁점	공감 유형		공감 결과
(마)	감정이입을 통한 간접 경험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
(바)	고통 체험을 통한 직접 경험		대상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기여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라)	상대의 마음에 깊게 공감한 후에	상대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
대상	(바)	환자의 마음에 깊게 공감한 후에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도전해야 한다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사)	상대의 상황을 깊게 체감한 후에	상대를 위한 기여에 나서야 한다
대상	(바)	환자의 고통을 체험한 후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예시답안] 550자

문단	기능	내용
1-1	공통점	세상에는 다양한 공감이 있는데,
	쟁점A	제시문 (마)와 (바)는 공감의 유형과
	쟁점B	결과에 있어 차별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1-2	(마)A핵	먼저 (마)는 간접 경험을 통한 공감을 보여주고 있다.
	(마)A상	방황하는 청소년의 마음을 깊게 상상해 보는 것이다.
	(마)B핵	이러한 공감을 통해 (마)는 상대에 대한 향상된 이해를 보여준다.
	(마)B상	화자는 작품 속 주인공을 통해 청소년에게 방향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깨우친다.
1-3	(바)A핵	반면, (바)에 나타난 공감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공감이다.
	(바)A상	얼음을 뒤집어 쓰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환자의 고통을 직접

		느껴보는 것이다.
	(바)B핵	(바)는 이러한 공감의 결과로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가 생긴다고 본다.
	(바)B상	직접적 체험이 주는 파급력이 기부의 확산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1-4	주장	그런데 이러한 도전에 임할 때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기준 핵심	먼저 (라)에 나오듯, 도전을 하기에 앞서 상대의 마음에 깊게 상상해 보는 것이다.
	적용	환자들의 아픔을 깊게 상상해 본 후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 핵심	또한 (사)가 말하듯, 상대의 고통을 직접 체험해야 한다.
	적용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체험하면 더 의미있는 기부가 될 것이다.

[대학 제시문 해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 (천재교육, 2018; 미래엔, 2018)에 수록된 홍석중의 「황진이」의 일부이다. 이 작품이 수록된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조선 시대의 이름난 기생 황진이의 일생을 다룬 복한 장편 소설이다. 황진이를 사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은 총각의 장례식에서 황진이가 눈물을 흘린 이유와 그를 계기로 황진이에게 나타난 변화를 중심으로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 (지학사, 2019) 교과서에 수록된 왕상한의 「결정적인 책들」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했다. 이 산문은 '3. 삶에서 책을 찾다' 단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주제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고, 타인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이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시문 (마)는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필자가 인생의 과도기를 겪는 청소년들의 불안과 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서를 통해 등장인물의 상황에 감정 이입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깊은 공감과 주제적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창비, 2020)에 실린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 기부 운동」이다. 이 글은 'IV. 생활 속 언어와 매체' 단원의 '탐구하고 활용하는 학습 활동'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각종 매체에서 이뤄지는 언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매체 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 제시문은, '해시태그(Hashtag)' 기호의 검색 기능과 누리 소통망에서 갖는 확산성을 '아이스 버킷 챌린지'의 예시를 통해 보여준다. 특히,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의 고통을 함께 느끼자는 취지에서 시작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운동이다. 하지만, 이 운동은 순간적이면서도 유희적으로만 고통을 체험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공감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국어』 (미래엔, 2020) 교과서에 실린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의 전문이다. 이 시는 '1. 문학의 빛깔' 단원 중 '1. 서정 갈래의 이해'에 실렸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현대시를 감상하며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문학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시는 시적 화자가 '너'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시에는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평등한 얼굴'로 다가감으로써, 진심으로 아픔에 공감해야 한다는 함축적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시를 통해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깊이 공감하며, 더불어 평등하게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대학 채점기준]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4점+16점)

1) ‘공감’의 측면에서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차이를 파악했는지 평가한다.(20점 만점): 3~20점 부여

① 공감의 유형: 제시문 (마)는 독서를 통해 등장인물에 감정 이입하는 공감을 강조하는 반면에, 제시문 (바)는 체험을 통해 고통을 느껴보는 공감을 보여줌(10점)

② 공감의 결과: 제시문 (마)는 불안과 반항을 겪는 청소년들의 과도기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인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바)는 한 사람의 공감 행위가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으로 이어져 기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줌(10점)

- 제시문 (마)와 (바)의 차이를 공감의 유형과 결과 측면에서 모두 정확히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제시문 (마)와 (바)의 차이를 공감의 유형과 결과 측면에서 서술했으나 하나의 제시문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9~14점 부여
- 제시문 (마)와 (바)의 차이를 공감의 유형이나 결과 하나의 측면에서만 서술했을 경우, 3~8점 부여

2) 제시문 (바)의 도전자가 기부행위를 할 때 고려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활용하여 서술했는지 평가한다.(20점 만점): 3~20점

① 제시문 (라)의 활용: 죽은 총각에 대한 온전한 공감을 보여주는 황진이 사례를 활용하여, 환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기부활동의 전제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해야 함(7점)

② 제시문 (사)의 활용: 타인에 무관심한 이기적 삶을 비판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식을 촉구하는 시의 주제를 활용하여, 고통을 받는 이웃과 평등한 위치에서 이들의 아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해야 함(13점)

- 제시문 (라)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모두 활용하여 도전자가 고려해야 할 점을 정확하게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활용하였으나 (사)의 주제가 충분히 서술되지 않았을 경우, 9~14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사례와 주제를 각각 활용하지 않고 공통된 특징으로 공감만을 중심으로 서술했을 경우, 3~8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와 (바)의 차이를 공감의 유형과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했는지 평가 (20점): 3~20점 부여	(마)와 (바)의 차이를 한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거나 두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3~8점
		(마)와 (바)의 차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했으나 특정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9~14점
		(마)와 (바)의 차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서술했을 경우	15~20점
	② (라)와 (사)를 활용하여 (바)의 도전자가 기부행위에서 고려할 점을 제시했는지 평가 (20점): 3~20점 부여	(바)와 (사)의 논지의 공통된 측면만 고려하여 서술했을 경우	3~8점
		(바)와 (사)의 논지를 각각 활용하였으나 특정 제시문에 대한 활용이 부족할 경우	9~14점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활용하여 서술했을 경우	15~20점

[대학 예시답안] 569자

(마)와 (바)를 공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마)에서는 독서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 소설 속 인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공감이 나타나고, (바)에서는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체험을 통해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느껴보는 공감이 드러난다. 또한 (마)는 허구의 인물에 대한 공감이 불안과 반항을 겪는 청소년의 과도기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인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바)는 개인의 공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으로 이어져 기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바)의 도전자가 기부를 할 때 고려할 점을 (라)와 (사)에서 찾으면, 깊은 공감, 지속적 관심, 사회적 연대의식이다. (라)의 황진이는 자신을 사랑하다 죽은 자가 겪었을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있다. 도전자도 이처럼 환자의 처지에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기부활동의 전제임을 생각해야 한다. (사)의 시적 화자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을 비판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이를 고려할 때 도전자는 고통받는 이웃과 평등한 위치에서 이들의 아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중앙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사회 3번

☞ 제시문 (아)에서 언급된 순자의 철학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제시문 (자)의 논지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아)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한 것일까요?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주목한 맹자와 달리 순자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주목했습니다. 이 욕구는 귀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눈이 좋은 빛깔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감각 기관의 이기적 욕구와도 통합니다. 순자는 이러한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착한 행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순자는 본성대로 가면 결과가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대로 가면 선이라고 합니다.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다고 해서 본성대로 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의지적 실천을 통해 본성이 가져올 악한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순자의 철학은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 양식이나 자아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은 범죄 통계에서 하층 노동 계급 청년들의 재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그들 개인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는 물질적 성공을 문화적 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머튼에 따르면 실제로 성공을 위한 합법적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갖지 못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비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하려고 할 때, 일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이들에게 물질적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손에 넣기 위해 불법적 방법이라도 시도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강도, 상점털이, 절도, 소매치기 등의 재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낙인 이론은 일탈을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이 아니라 일탈자와 비일탈자 간의 상호 작용 과정으로 해석한다. 누구나 때로는 일탈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가볍고 일시적이며 쉽게 감추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일탈 행동이 일단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그 개인은 일탈자로 낙인찍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일탈자로 대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그 낙인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탈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다. 결국, 일탈이 습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형을 마치고 전과자로 낙인찍혀 나온 사람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취업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기회 획득에서 차별을 받곤 한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 제시문 (아)에서 언급된 순자의 철학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제시문 (자)의 논지를 토대로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독해]

(아) 순자의 철학: 의지적 실천 → 악한 본성을 극복하고 선을 행할 수 있음

(자) 사회적 압력 → 개인의 일탈에 영향

- 1) 물질적 성공에 대한 사회적 압박 → 일탈적 방법을 통한 성공 시도
- 2) 일탈자에 대한 낙인 → 일탈자로서의 정체성 수용하여 → 일탈 습관화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자) 머튼	사회의 문화적 압박	부정적 행동
대상	(아)	실천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압박이 심하면	악한 행동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자) 낙인	일탈에 대한 낙인	일탈자가 되어 습관적 일탈
대상	(아)	악행에 대한 낙인	악자가 되어 습관적 악행

[예시답안] 417자

문단	기능	내용
1-1	대상 핵심	순자는 의지적 실천을 통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봤다.
	대상 상술	(아)에 나타나듯,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의지를 갖고 실천하면 악한 본성을 극복하고 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1-2	주장	하지만 순자는 사회의 영향력을 간과했다.
	기준 A	(자)의 머튼에 의하면 성공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심해지면 합법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일탈하게 된다고 한다.
	적용	이렇듯, 사회적 약자에게 성공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그에게 덕을 위한 실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악행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기준 B	또한 (자)의 낙인 이론에 따르면, 낙인된 사람은 자신을 일탈자로 규정하고 습관적으로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적용	이처럼 일단 낙인이 찍히고 나면, 그 사람은 악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비록 악을 벗어나고자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인의 굴레를 벗어나긴 힘들다.

[대학 제시문 해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독서』(천재교육, 2019) 교과서에 실린 「순자의 성악설」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일부 편집했다. 이 글은 ‘Ⅲ. 독서의 분야 I’ 중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에 수록되었으며,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인문학적 세계관과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찰 등에 주목하여 글을 읽도록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제시문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말한 순자의 ‘성악설’을 논하고 있다. 순자의 철학에서는 ‘의지적 실천’이 중요하다. 순자는 본성이 가져올 악의 결과를 의지적 실천을 통해 억누르고 참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관점을 도출해낼 수 있고, ‘성악설’을 사회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2020) 교과서에 실린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하는 하층 노동 계급의 재산 범죄」와 「낙인 이론이 설명하는 일탈에 이르는 길 - 일탈적 정체성과 2차적 일탈」, 그리고 『사회·문화』(교학사, 2020) 교과서에 실린 「사회 집단의 의미와 유형」을 일부 발췌하여, 출제 의도에 맞게 부분적으로 편집했다. 이 글들은 자아 정체성이 소속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일탈 행동은 상황, 문화, 시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들을 통해 일탈 행동이 과거에는 개인의 특성 탓으로 규정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영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채점기준]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4점+16점)

1)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의 핵심 내용을 파악했는지 평가한다.(4점 만점): 1~4점 부여

①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의 핵심을 파악: 순자 철학을 본성과 의지적 실천 측면에서 파악하여 제시해야 함

②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시: 순자의 철학은 인간이 본성은 악하지만 개인의 의지적 실천을 통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적절하게 요약하여 서술해야 함

- 제시문 (아)에서 순자의 철학을 단순하게 제시한 경우, 1~2점 부여
- 제시문 (아)에서 순자의 철학을 본성과 의지적 실천을 모두 제시한 경우, 3~4점 부여

2) 제시문 (아)의 순자의 철학이 갖는 한계를 제시문 (자)의 두 이론을 토대로 서술해야 한다. (16점 만점): 5~16점

- ① 순자 철학의 한계를 머튼의 이론과 연계하여 서술: 제시문 (자)에서 머튼이 제시한 이론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제시문 (아)에 나오는 순자 철학이 사회적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일탈 행위를 간과함을 서술함
- ② 낙인이론의 관점에서 순자 철학의 한계를 서술: 제시문 (자)에 낙인이론의 핵심 논지를 이해한 후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일탈행위가 반복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서술함

- 제시문 (아)의 한계를 제시문 (자)의 두 이론 모두를 토대로 서술한 경우, 12~16점 부여
- 제시문 (아)의 한계를 제시문 (자)의 두 이론 중 하나만으로 서술한 경우, 5~11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을 본성과 의지적 실천 측면에서 단순하게 요약하는 경우 (4점): 1~4점 부여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을 본성 또는 의지적 실천 측면에서 단순하게 요약하는 경우	1~2점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을 본성과 의지적 실천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하는 경우	3~4점
	② 제시문 (아)의 순자 철학의 한계를 제시문 (자)를 근거로 서술했는지 평가 (16점): 5~16점 부여	(아)의 순자 철학의 한계를 (자)의 두 이론 가운데 하나만으로 서술한 경우	5~11점
		(아)의 순자 철학의 한계를 (자)의 두 이론 모두를 토대로 서술한 경우	12~16점

[대학 예시답안] 417자

(아)에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비록 악하지만 개인의 의지를 통해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의 두 이론에 따르면, 순자의 철학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먼저 머튼에 의하면, 사람들은 본성에 관계없이 합법적 수단이 없을 경우 성공하기 위해 일탈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악한 행위를 의지적 실천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순자의 철학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로 인해 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또한 낙인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일탈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 일탈자임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악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순자의 철학은 전과자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다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국인대 2022학년도 모의 사회 1번

☞ (가)~(마)는 지식 생산, 의사결정 등을 행하는 두 주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각 제시문이 강조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가)~(마)를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가)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깊고 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는 비전문가에 비하여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문가의 가치는 최근 Covid-19와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신속한 백신개발 사례를 통하여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이 모든 문제 해결을 전문가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현실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게 희소한 인재를 찾기보다, 구성원 다수의 지성을 모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오늘날 기업들은 산업 간의 융합과 예상치 못한 경쟁자의 등장 등 극심한 변화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 해도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다수의 생각을 활용하여 조직 전체 차원에서 탐색의 범위를 넓히고, 유연한 시각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집단지성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여, 조직 내 형성되어 있는 관성적인 논리나 소수의 경영진들이 빠지기 쉬운 자기 합리화 편향 등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기업경영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과 같이 수평적 참여 네트워크 안에 구현된 집단의 지식과 능력 및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혁신 혹은 문제해결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LG경제 연구원(<http://www.lgeri.com>)에서 재구성

(나)

위키피디아 같은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기획은, 일반인과 전문가 사이의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원해서 글을 올리는 일반인들은 특정 시기에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에 관해서만 글을 쓰는 반면, 전문가들은 날마다 자신의 전문지식을 꾸준히 전하는 사람들이다. 취미가 직업과 같을 수는 없다. 영국 작가 앨러스테어 쿡(Alastair Cooke)이 이런 금언을 남겼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내키지 않을 때조차 최선을 다해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취미 삼아 무언가에 열성을 기울인다고 해서, 그들의 판단이 전문가들의 판단을 항상 대체할 수는 없는 법이다. 처음에 위키피디아가 기울였던 노력은 사람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

- 톰 니콜스, 『전문가와 강적들』에서 재구성

(다)

프랑스의 수학자 콩도르세(Condorcet)는 다수결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 사회 전체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통계학적 입장에서 뒷받침하는 정리를 발표하였다. 대다수의 시민은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 개별 선택을 할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모았을 때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처럼 정답에 가까운 답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예를 들면, 육종학 전문학자인 프랜시스 골턴 경(Sir Francis Galton)은 787명의 관객에게 황소의 체중을 예측하도록 했다. 그들 중 정확한 값을 맞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그들의 예측을 평균한 값은 황소의 실제 체중과 거의 일치했다. 프랜시스 골턴 경은 자신의 전문지식보다 군중 의견의 평균값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 한국은행 경제교육(<https://www.bok.or.kr>)에서 재구성

(라)

1986년 4월 26일 구 소비에트 연방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원자력 전문가 펠르랭 교수가 이끌던 프랑스 보건부 산하의 방사능 보호센터(SCPRI)에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에 의한 국토의 오염 가능성을 조사한 뒤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공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 정부는 유럽의 이웃 나라와는 달리 원전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과학자들은 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 기구를 설립하여 정부와 원자력 로비집단의 거짓을 폭로하고, 시민들에게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몽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대중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프랑스에서 핵이 가장 밀집한 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핵과 관련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이를 계기로 1986년 여름 프랑스의 노르망디와 툰-알프스 지역에서 방사능과 핵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 방사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표방하는 두 개의 비영리단체가 창설되었다. 교사, 간호사, 의사, 파일럿, 농부, 상인 같은 일반 시민들을 주축으로 하는 두 단체는 창립 초기부터 국가 전문가에 대항하는 비정치적이고 독립적인 단체로 활동하면서 그 어떤 정당, 연구단체, 산업체와도 연결되기를 거부했다. 또한 방사능 측정에 특화된 실험실을 자치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원전체제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공공기관의 전문지식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과학기술과 해당 분야 전문가가 누리왔던 지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근대사회 이후로 과학이 정치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오직 전문가만이 과학을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과학과 관련된 정책은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환경, 의료 등 개인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증대가 있어야만 정치적으로 적합한 지식 생산이 가능하다.

- 이정희의 ‘프랑스 원전 체제와 대항전문가 운동’에서 재구성

(마)

시민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정치 체제로는 이상 국가를 이룰 수 없다. 아테네의 민주정은 무법하고 거의 무정부적인 체제, 곧 중우정치이다. 아테네 시민들은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여 제멋대로 사익만을 추구하고, 원칙 없이 상황에 좌우된다. 이들은 또한 국가 경영에 관한 자신의 무지 내지는 무능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 국가는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다른 구성원의 임무 수행을 훼방하지 않는 정의로운 국가이다. 이상 국가의 구성원은 각 계급마다 적절한 역할이 주어지며, 그들이 속한 계급에 적절한 덕목이었다. 곧, 지혜, 용기, 절제 및 정의이며, 이를 4주덕이라 한다. 그중 지혜는 ‘완벽한 수호자들’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통치자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통치자의 고유 역할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자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혹은 ‘철인(哲人)’이라 불러 마땅하다. 이러한 통치자를 키워 내기 위해 우수한 젊은이를 뽑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 철인이 통치자가 되거나, 현재의 통치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움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 한, 국가에 있어서, 아니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악은 종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재구성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 (가)~(마)는 지식 생산, 의사결정 등을 행하는 두 주체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각 제시문이 강조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가)~(마)를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독해]

- (가) 집단지성: 수단 접근성 + 유연성 + 안전성(편향↓) → 혁신, 해결
- (다) 다수의 결정 →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됨
- (라) 일반 시민의 참여 →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 획득 → 진실 밝혀냄
- (나) 집단지성의 구성원(시민) → 성과물에 대한 품질 안정성↓ → 신뢰↓
- (마) 공의롭고 지혜로운 통치자 → 국가를 원활히 운영하여 악을 감소시킬 수 있음

[논리평면] 분류 & [예시답안] 403자

문단	기능	내용
1-1	화제	지식 생산과 의사결정의 주체에 대해서는 대립된 의견이 존재한다.
	분류	
	입장 A	
	입장 B	
1-2	주장	먼저 시민중심론은
	핵심	제시문 (라)에서 말하듯,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이 정치적으로 진실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상술	
	핵심	또한 집단지성은 제시문 (가)에 나오듯, 수단으로서의 접근성이 높으며 식견이 제한적이지 않고, 특정한 편향으로 치우치지도 않아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술	
	핵심	이러한 시민의 지혜가 진실에 가깝다는 것은 제시문 (다)의 수학자에 의해 통계적으로 밝혀졌다.
상술		
1-3	주장	반면 전문가중심론은
	핵심	제시문 (나)에 나타나듯, 시민은 생산물은 품질 안정성도 낮고,
	상술	
	핵심	제시문 (마)에서 볼 수 있듯이 이기성과 무지로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결정을 피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상술		

[대학 출제의도]

[문제 1]은 제시문 (가)부터 (마)까지의 다섯 개 제시문을 읽은 후, 지식 생산, 의사결정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강조하는 주체들을 둘로 분류하고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할 것을 요구한다. 제시문을 ‘전문가’, ‘비전문가’ 두 핵심어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체 중 하나로 각 제시문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섯 개의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게 함으로써 핵심어를 이용한 요지 파악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한국외대 2022학년도 모의 사회 2번

☞ (바)와 (사)는 [문제 1]에서 분류한 두 주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과업을 수행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바)와 (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바)

오늘날 디지털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음악, 게임 등을 번역해 공유한다. 이렇게 생산된 팬 번역(fan translation)은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생산한다는 점, 그리고 법리상 불법이라는 점으로 인해 소규모 집단 사이에서만 음성적으로 공유되어 왔다. 하지만 개방, 참여,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다수의 팬 번역가들은 합법적인 경로로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번역·공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번역 플랫폼에는 팬 번역가들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비키(Viki)와 같은 웹 플랫폼에서는 팬들이 만든 자막을 일부 전문 번역가들이 교정·편집하여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기도 한다.

- 이지민의 '전통 영상번역과 팬 자막 비교 연구'에서 재구성

(사)

화성 표면에서 발견되는 스파이더(spider) 지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NASA의 화성탐사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스파이더 지형은 그 형성 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탐색 자체가 매우 어렵고 많은 자원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NASA는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애리조나 대학교와 협력하여 여러 대의 촬영 위성을 운영하는 등 연구를 꾸준히 하였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2016년 NASA가 그간 촬영한 화성 표면 이미지를 웹사이트 '플래닛 투어'를 통해 공개하자, 1만 명의 시민 자원 봉사자들이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NASA에 알려줌으로써 스파이더 지형 탐색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NASA는 이들 시민이 지목한 20여 개의 새로운 후보 지역을 조사하여 스파이더 지형을 찾는 데 성공하였다. 캔디스 한센 미국 행성과학연구소 총책임자는 "시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스파이더 지형을 찾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참여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 동아사이언스(2016. 10. 24.) 및 미국항공우주국(NASA)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 (바)와 (사)는 [문제 1]에서 분류한 두 주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과업을 수행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바)와 (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독해]

(바) 팬 번역 공유 → 전문 번역가들의 보완(교정 및 편집) → 번역 완성도 상승

(사) NASA의 촬영물을 웹사이트에 공유 →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분석 → 지형 탐색 진전

[논리평면] 비교

공통점	전문가와 시민의 상호작용 → 성과 향상	
차이점	일차적 작업	협력 방식
(바)	시민(팬의 자발적 참여)	전문 번역가의 교정 및 편집
(사)	전문가(NASA)	시민 봉사자들의 사진 분석

[예시답안] 483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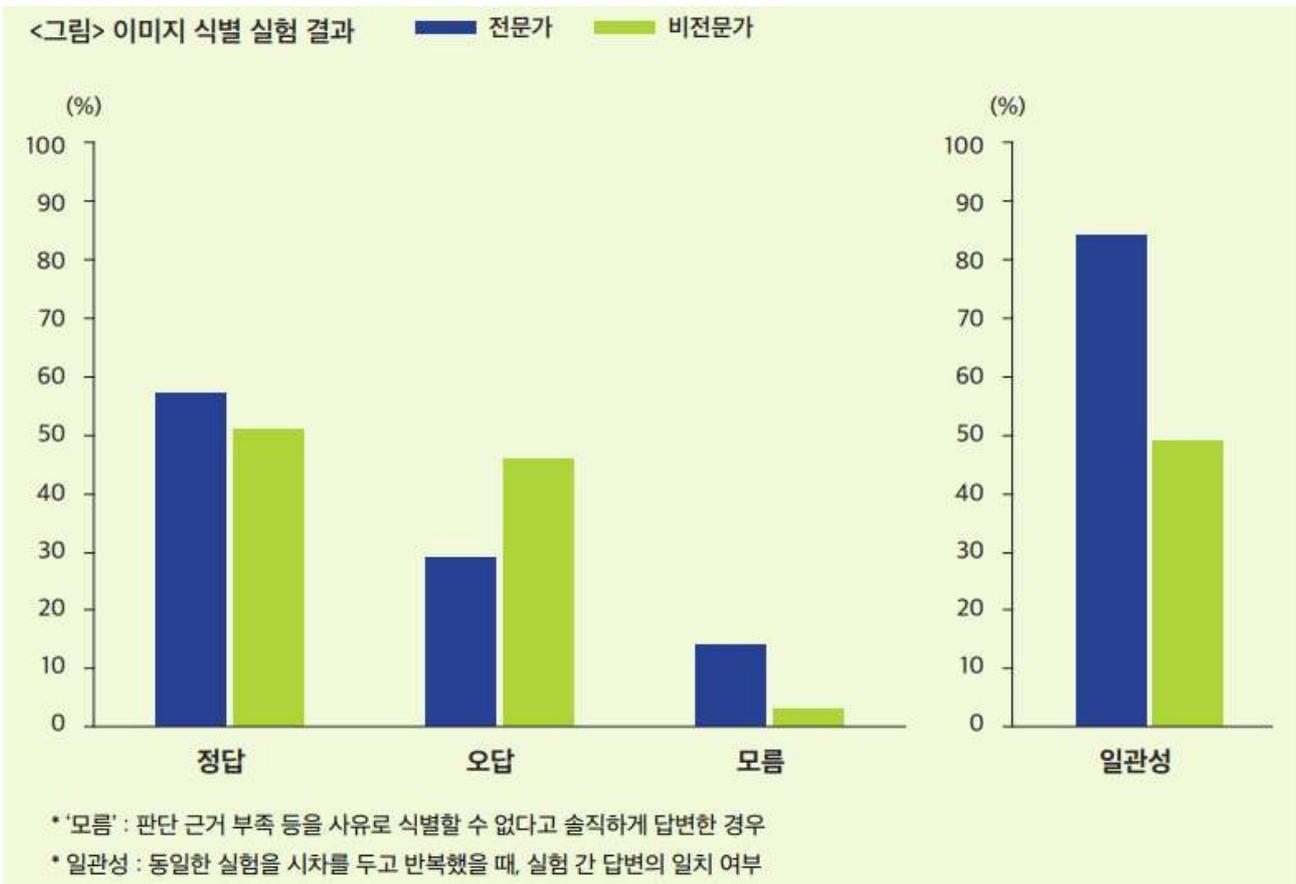
문단	기능	내용
1	공통점	전문가와 시민은 상호 협력적 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쟁점A	그런데 그 작업의 일차적 주도자가 누구인지
	쟁점B	그 작업물에 대한 협력 방식이 어떤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바)A핵	먼저 제시문 (바)에 나타난 일차적 작업의 주체는 시민이다.
	(바)A상	시민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자발적으로 번역하여 커뮤니티, 웹 플랫폼 등에 공유하는 것이다.
	(바)B핵	그리고 이러한 작업물은 번역가의 이차적 작업으로 보완된다.
	(바)B핵	시민 팬들이 만든 번역물을 전문 번역가들이 교정 및 편집을 진행하여 완성도 높은 번역물로 보완하는 것이다.
3	(사)A핵	반면 제시문 (사)에 나타난 일차적 작업자는 전문가이다.
	(사)A상	NASA는 화성 표면의 지형을 분석하기 위한 사진들을 촬영하여 웹사이트에 공유하였다.
	(사)B핵	그리고 이러한 사진들에 대해 이차적으로 시민들이 봉사자로서 분석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B핵	1만 명의 시민들이 사진을 분석하여 이를 NASA에 공유했고, 이를 통해 NASA는 전문가들만 참여했을 때보다 더 높은 지형분석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대학 출제의도]

[문제 2]의 출제 목적은 [문제 1]에서 제시된 두 주체(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하고, [문제 1]에서 소개되지 않은 두 주체의 상호작용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논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 1]에서 다룬 제시문 (가)~(마)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대립이나 대칭의 관계 또는 별개의 집단으로만 묘사하고 있다. 반면 [문제 2]의 제시문 (바), (사)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관계가 단순히 경쟁, 대립 등이 아닌, 상호 협력과 보완의 관계로 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문제 2]는 두 주체가 협력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느 주체가 일차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일차적 역할을 어느 주체가 보조하는지를 대비하여 제시한다. (바)와 (사)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면 현대사회에서 복잡다단하게 나타나는 집단 간의 관계를 좀 더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대 2022학년도 모의 사회 3번

☞ 다음 <그림>은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이미지 식별 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마)의 아테네 시민이 바람직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마)

시민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정치 체제로는 이상 국가를 이룰 수 없다. 아테네의 민주정은 무법하고 거의 무정부적인 체제, 곧 중우정치이다. 아테네 시민들은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여 제멋대로 사익만을 추구하고, 원칙 없이 상황에 좌우된다. 이들은 또한 국가 경영에 관한 자신의 무지 내지는 무능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 국가는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다른 구성원의 임무 수행을 훼방하지 않는 정의로운 국가이다. 이상 국가의 구성원은 각 계급마다 적절한 역할이 주어지며, 그들이 속한 계급에 적절한 덕목이 있다. 곧, 지혜, 용기, 절제 및 정의이며, 이를 4주덕이라 한다. 그중 지혜는 ‘완벽한 수호자들’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통치자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통치자의 고유 역할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치자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혹은 ‘철인(哲人)’이라 불러 마땅하다. 이러한 통치자를 키워 내기 위해 우수한 젊은이를 뽑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 철인이 통치자가 되거나, 현재의 통치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움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 한, 국가에 있어서, 아니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악은 종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서 재구성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 ☞ 다음 <그림>은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이미지 식별 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마)의 아테네 시민이 바람직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독해]

<그림> 전문가가 비전문가에 비해 식별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높게 나타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정직성도 높았다.

<마> 아테네 시민의 상황: 모든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 자유가 과도하게 지향되는 체제 - 중우정치

[논리평면]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그림>	전문가 > 비전문가 (정확성, 정직성, 일관성)	전문가적 자질 필요
대상	<마>	아테네의 시민들 - '철인'이 아님	전문가적 자질을 길러야 한다

[예시답안] 628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핵심	의사결정을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 상술	<그림>의 이미지 식별 실험에 따르면, 전문가는 비전문가보다 믿을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 먼저 전문가는 판단 근거가 부족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답변할 확률이 비전문가에 비해 약 5배 가량 높았으며, 식별의 정답률 측면에서도 전문가가 비전문가보다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뿐만 아니라, 답변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전문가는 비전문가보다 50% 이상 높게 나타나, 비전문가에 비해 높은 답변 신뢰성을 보여줬다.
2	주장	따라서 아테네 시민들이 바람직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양심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상	제시문 (마)를 보면,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고, 식견과 능력이 부족하여 바람직한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적용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테네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양심과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제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높은 정직성과 각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높은 식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자질들이 갖춰지게 되면 아테네는 중우정치라는 오명을 벗어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문제 3]의 출제 의도는 제시된 이미지 식별 실험 결과를 이해하고 요지를 파악하여 그로부터 해석 가능한 의미를 도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제시문 (마)에 묘사된 아테네 시민들과 연결시켜 이들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주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추론하게 하는 것이다.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공히 정답 작성을 위해서는 주어진 자료의 해석을 통한 추론능력이 요구되지만, 계열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계열의 경우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였고,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실험 결과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글로 요약한 형태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미지 식별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답률, 오답률,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일관성의 정도에서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결과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문항이 궁극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제시문 (마)의 아테네 시민들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주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다. 따라서 이 문항에 대한 답안을 적절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된 자료의 정확한 이해, 둘째, 자료 내용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전문가 집단의 특성 파악, 셋째 이를 (마)의 아테네 시민의 상황과 연계시켜 결론 도출에 이르는 세 가지 과정이 적절히, 그리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특히 정답 도출 과정의 두 번째 단계에서, 전문가 집단이 비전문가 집단에 비해 정답률이 높고 오답률이 낮다는 점에서 식별의 정확성을, 판단 근거 부족 등을 사유로 모름이라고 답한 경우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직성(지적 양심 등)을, 동일한 실험을 반복했을 때 실험 간 답변의 일치 여부를 나타내는 일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뢰성이라는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문항은 수험자가 상기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연계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추론의 진행을 논리적이면서 적절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양대 2022학년도 모의 인문

④ (가)에서 ㉠의 이유를 추론하고, 그 맥락에서 (나)의 '그, / 어떤, / 문'과 '키위새'가 각각 표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제시한 후, (다)의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가)의 ㉡에 답하는 글을 쓰시오. (1,200자, 100점)

(가)

우리가 읽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뉴런의 연결망이 음속 수준으로 빠르게 자동 반응하며 뇌 구조 전역에 걸쳐 시각·인지·언어 영역 등에 연결이 일어나야 한다. 이때 뇌의 좌우 반구에 있는 4개 엽과 5개 층은 모두 사용되며 새로운 입력값을 수용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문해력(文解力, literacy), 곧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다. 문해력은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후천적 성취 중 하나다. 6,000년 전이야 인류는 문자 문화를 개화해 뇌에 새로운 회로를 더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6,000년간 진화해 온 '읽는 뇌'는 디지털 기기의 등장과 함께 그 능력이 퇴화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된 문화적 능력이기에 퇴화할 수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책을 종이책으로 읽은 학생이 전자책 단말기 킨들로 읽은 학생보다 줄 거리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다. ㉠이는 종이책과 다른 물성을 지니고 있는 디지털 기기가 데이터나 정보의 습득에는 매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만 그것이 곧 지식을 익히는 데에도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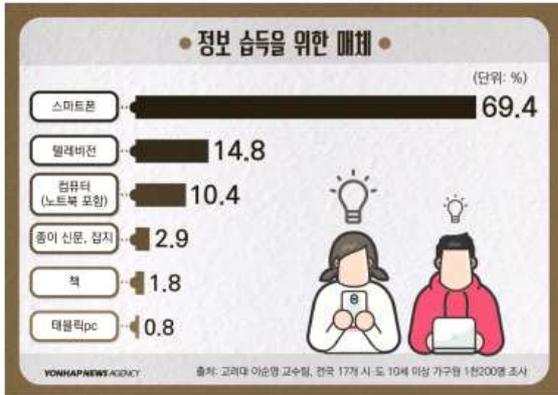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우리 인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그러한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나)

이제 어디를 가나 아리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 감응 장치의 음흉한 혀끝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핥는다 순간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하여 간다.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날개 없는 키위새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그,
어떤,
문 앞에서는
키위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 유하, <자동문 앞에서>

(다)



[그림 1] 정보 습득을 매체 활용 현황



[그림 2]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위계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문장 기능	해당 내용														
625															
650															
675															
700															
725															
750															
775															
800															
825															
850															
875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④ (가)에서 ㉠의 이유를 추론하고, 그 맥락에서 (나)의 '그, / 어떤, / 문'과 '키위새'가 각각 표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제시한 후, (다)의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가)의 ㉠에 답하는 글을 쓰시오. (1,200자, 100점)

[독해]

- (가) 디지털 기기 활용 - 정보 간 연결 약함 → 문해력(독해력, 정보 재구성 능력) 저하
- (나) '그 어떤 문' :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순간
 '키위새' : 문해력(연결력, 재구성 능력)이 낮아서 주체적 해결 능력이 낮은 현대인
- (다) <그림 1>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정보 습득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 의존한다.
 <그림 2> 데이터에서 정보, 지식, 지혜로 갈수록 심화된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문맥적 연결력이 더 요구된다.

[논리평면] 사실추론, 사실추론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가)	디지털 기기 활용	문제 해결 능력 저하
대상 (나)	어떤 문		해결력이 낮은 현대인이 넘어서기 어려운 난관
	키위새	디지털 기기 의존성이 강해져서	문제 해결 능력이 낮아 무기력한 현대인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다) <그림 1>	대부분의 현대인 디지털 기기 의존	
대상	㉠ 첫 번째 질문		독해력 저하로 문제 해결력 저하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다) <그림 2>	연결성이 강화된 매체를 독해해야	깊은 내용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대상	㉡ 두 번째 질문	종이 매체 독해 훈련 강화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현대인

[예시답안] 1313자

문단	기능	내용
1	기준 핵심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독해 관습은 정보 간 연결 훈련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의 독해력 발달을 저해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기준 상술	(가)에 나오듯, 매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들 사이에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매체가 정보 습득의 주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면서 현대인들이 주체적으로 정보들을 연결시킬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

		다. 스스로 정보를 연계시키지 않아도 디지털 콘텐츠가 다중적 감각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요약된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2	주장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나)는 디지털 기기에 속박되어 위기에 처한 현대인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대상	먼저, (나)를 보면, 현대인은 디지털 문명의 편리성을 누리면서 점차 기능적 퇴화를 겪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그 어떤 문’을 만나게 된다.
	적용	이는 디지털 기기가 편리하게 내용을 ‘떠먹여 주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위기로서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대상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져 울고만 있는 ‘키위새’의 처지가 될 것이라고 (나)의 화자는 말하고 있다.
	적용	디지털 기기의 편리성에 빠져 주체적 해결 역량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갑작스레 조우한 미지의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	예를 들어, 다양한 감각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핵심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멀티미디어에 의존하여 학습을 하다 보면, 불친절한 인쇄 매체를 접했을 때, 그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3	대상	이렇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성이 점차 높아지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장	이에 대해 우리는 현대인들은 문제 해결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필연적으로 겪게 될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기준 핵심	현대인들은 이미 정보 습득에 있어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기준 상술	(다)의 <그림 1>을 보면, 현대인들은 이미 정보 습득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95%를 상회한다.
	적용	이는 곧 현대인들은 이미 주체적으로 현실을 독해하는 역량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말한다.
4	대상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주장	우리는 인쇄 매체 사용 비중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기준 핵심	정보 간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면,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 상술	(다)의 <그림 2>를 보면, 단순한 데이터는 낮은 문맥적 연결성으로도 습득할 수 있지만, 깊은 지해를 얻으려면 복잡한 문맥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따라서 내용 간 연결 훈련에 적합한 인쇄 매체 사용 비중을 증가시켜야 현대인은 문제 해결력 결핍이라는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이번 모의논술 문제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한 읽기 행위가 지닌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지문 (가)의 맥락에서 (나)의 시에 포함된 함축적 의미를 해석하도록 하였고, (다)의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에 근거한 합리적 이유를 추론하는 능력, 주어진 맥락에 비추어 함축성 높은 시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증하는 능력을 두루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문 (가)는 메이런 울프의 『다시, 책으로』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고, (나)는 유하의 시 작품이며, (다)는 연구 논문 및 학술 저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사회 변동’, 그중에서도 ‘정보 사회’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의 ‘정보화 시대의 독서 생활’ 단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대학 채점기준]

- 1) (가)의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경험과 문맥에 근거하여 추론하였는지 여부
- 2) (가)의 맥락에서 (나)의 주요 시어인 ‘그, 어떤, 문’과 ‘키위새’의 함축적 의미를 해석하였는지 여부
- 3)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의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제시하였는지 여부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가)에 숨어 있는 정보를 추론하여 제시하고, (가)의 맥락에서 (나)의 주요 시어인 ‘그, 어떤, 문’과 ‘키위새’의 함축적 의미를 해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의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기술하였다.		20
분석적인 추론, 상징적 의미의 발견 및 창의적인 대응 방안 제시	분석적 추론	(가)의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경험과 문맥에 근거하여 추론하여 제시한다.	20
	상징적 의미의 발견	(나)를 (가)의 맥락에 대입하여 ‘그, 어떤, 문’과 ‘키위새’의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여 제시한다.	25
	창의적인 대응 방안 제시	이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술한다.	25
문장과 표현	정확한 단어 및 표현 선택,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평가한다.		10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B〉 상-중-하	〈C〉 상-중-하	〈F〉
평가 내용	<p>① (가)의 ㉠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경험과 문맥에 근거하여 추론하여 제시한다.</p> <p>② (나)를 (가)의 맥락에 대입하여 ‘그, 어떤, 문’과 ‘키위새’의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여 제시한다.</p> <p>③ 이상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술한다.</p>	<p>①~③의 내용 중 한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p>	<p>①~③의 내용 중 두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p>	<p>- 한 가지만 충족하거나 논제와 상관없이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p> <p>- 700자 미만</p>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길이	1,150자 이상	1,250자	1,000자 이상	950자 이상	900자 이상	850자 이상	800자 이상	750자 이상
	1,250자 이내	초과	1,150자 미만	1,000자 미만	950자 미만	900자 미만	850자 미만	80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1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원고지 사용법	상(0-2개 틀림)			중(3-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어문 규정	감점 없음			-1 ~ -2점			-3 ~ -5점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 내의 형식적·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점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이다.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한다.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대응 방안에 대한 평가에서는 창의성과 논리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대학 우수답안(1)] 1,198자

(가)의 필자는 인간의 문해력은 생득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 성취라고 주장하며 현대 기술 발전에 의한 문해력의 퇴화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통해 제시한다. 필자는 ㉠의 이유인 디지털 기기를 통한 학습은 학생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지만, 이로 인해 뉴런의 연결망의 반응 속도가 영향을 미쳐 재구성 능력이 퇴화되어 지식 습득 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미쳐 유리한 환경만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디지털 기기 의존 문제에 대한 의식을 상기시킨다.

(나)는 현대 문명에 길들여진 퇴화된 현대인들을 비판한다. (나)의 '키위새'를 ㉠에 입각해 바라보면, 날개가 없는 퇴화되어진 생명체, 즉 현대문명에 길들여진 퇴화된 현대인들을 표상한다. 이와 동등하게 ㉠에 입각하면 (나)의 '그, / 어떤, / 문'은 현대인이 수동적 면모로 행하는 것이 아닌, 직접 자의적으로 행해서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을 표상한다.

(다)의 [그림 1]은 정보 습득 매체 활용 수치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디지털 기기인 스마트폰은 종이로 이루어진 매체인 종이 신문, 잡지, 책과 상반되는 수치를 보인다. [그림 2]의 DIKW 모형은 정보보다 지식, 지식보다 지혜의 가치가 더 높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의 첫 번째 질문을 (다)의 두 그림에 근거해 답하면, 사람들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져 디지털 기기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갈 것이다. 반면에 종이로 이루어진 매체의 이용은 감소하여 관련된 산업체는 퇴화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인간의 삶에서 데이터와 정보가 늘어나지만 재구성 능력이 퇴화하여 지혜로 변환시키지 못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깨닫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습을 (다)를 통해 제시하면, 개인적 측면으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디지털 매체의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종이로 이루어진 매체를 이용하려는 노력과 데이터를 얻고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지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기 의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시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종이로 이루어진 매체에 대한 지원과 사람들이 관심을 잃지 않도록 캠페인 실시와 교육 제도 활용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위에서 제시한 변화되어진 인간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우수답안(2)] 1,245자

제시문 (가)는 디지털 기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서 문해력이 퇴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기기가 종이책에 비해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는 편리하지만, 지식을 익히는 데에도 유리하지 않은 이유는 ‘습득’에 그치기 때문이다. 단순히 내용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내용을 곱씹어 보며 자신만의 언어로 재해석, 즉 복습을 통해 독자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 같은 내용을 종이책으로 읽은 학생이 전자책으로 읽은 학생보다 이 능력이 더 뛰어난 이유는 ‘감각’이 이해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스크롤해서 내려 읽어가는 전자책에서는 텍스트가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특정 구간이 인상적이지도, 기억에 남지도 않는다. 반면, 종이책은 책장을 넘기고 읽는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는 등 동작을 요구한다. 또한,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상적인 부분에 표시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소한 감각적 요소들이 독자의 집중력과 이해도에 기여하며,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것은 문해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맥락에서 제시문 (나)의 ‘키위새’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인간을 표상한다. 날개가 없어 하늘을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하는 키위새와 같이, 한때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냈던 손은 점차 퇴화해 우리는 날개 잃은 새가 될 것이다. 결국,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언젠가 ‘그, / 어떤, / 문’ 앞에서는 주저앉고 말 것이다. ‘그, / 어떤, / 문’은 디지털 기기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을 표상한다.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기기의 도움을 받지만, 우리가 혼자 해내야만 하는 것에 닥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도 내용을 떠먹여 주는 전자책의 독자들과 같이, 점점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인간은 무능력해져 갈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디지털 기기는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미 정보 습득을 위한 매체로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많고, 2위와 3위 또한 디지털 매체이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디지털 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날 것이며, 현재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사소한 것까지도 디지털 기기가 대체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퇴화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데이터 습득에 그치지 않고 정보를 분류하여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어떻게? 왜?’ 등의 질문을 던지며 생각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데이터’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보, 지식, 지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양대 2022학년도 모의 상경

① (가), (나)를 활용하여 ㉠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서술하고, 이 중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을 적용하여 서술하시오. (600자, 50점)

(가)

인류의 역사에서 불안과 지배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었다. 고고학자들이 형체가 손상된 유골을 통해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수렵·채집 사회에서 전쟁의 빈도는 매우 높았으며 이는 학자들이 상상하던 ‘평화로운 야만인’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된 사회 중 3분의 2에서 적어도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났으며, 전쟁을 하지 않은 사회는 전체의 10퍼센트에 불과했다. 수렵·채집사회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국가 사회’에서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당 500명 이상으로,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당 5명인 오늘날 미국의 100배가 넘는다.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리바이어던』에서 당시의 삶을 “끊임없는 공포, 폭력적 죽음의 위협, 고독하고 가난하고 끔찍하고 잔인하며 짧은 인간의 삶”으로 묘사하였다. 홉스는 이러한 상황이 모두를 두려워하게 할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 기인한다고 보고, ㉠ ‘거대한 리바이어던’이라 이름 붙인 중앙집권적 권력 창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등장하는 거대한 바다 괴물이다. 홉스는 강력한 리바이어던이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모두가 모두를 두려워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나)

길가메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왕조 초기 도시 국가인 우루크의 전설적인 왕으로 수많은 신화와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이다. 수메르인들이 점토판에 기록한 「길가메시 서사시」는 우루크가 상업적으로 번창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서사시에는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길가메시의 강력한 힘에 좌절한 우루크 사람들이 신 아누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해결책을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길가메시의 문제’라고 일컫는 이 문제에 대해 아누가 제시한 해법은 오늘날의 ‘견제와 균형’에 해당하는 방식이었다. 아누는 길가메시를 복제하여 만든 엔키두로 하여금 자신의 짝을 저지하도록 했다. 길가메시가 백성에게 행패를 부리자 엔키두가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결국 길가메시가 이기기는 했지만 맞설 자가 없었던 길가메시의 위상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견제와 균형은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둘이 손을 잡고 공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이 그들을 벌하려고 하늘의 황소를 보냈을 때 둘은 힘을 합쳐 황소를 죽여 버렸다. 도플갱어를 통해 국가에 가한 견제와 균형의 제약이 자유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자유는 국가나 국가를 통제하는 엘리트층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얻어내는 것이다.

(다)

‘레드 퀸 효과’는 루이스 캐럴의 소설『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레드 퀸의 말에서 유래한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이상하게 느낀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의 여왕 레드 퀸에게 그 이유를 묻자, 레드 퀸은 그 나라에서는 제자리에 머물려면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며, 어디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그보다 두 배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답한다. 레드 퀸 효과는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무르려고만 해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 이야기 속에서 모든 달리기는 헛된 일이지만, ㉠레드 퀸 효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미국의 생물학자 반 벨런이 각 개체가 끊임없이 서로 자극하며 진화하는 공진화(共進化) 과정을 레드 퀸이라는 말로 설명한 이후, 이 용어는 생물학을 넘어 다른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 경영학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외부의 자극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 이것이 경쟁사의 추가 대응을 유발하여 실적을 하락시키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기업의 실적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계에서 레드 퀸 효과를 통해 나타난 공진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란히 걷기

논제
분석

독해
정리

논리
평면

표준
전개

최은식T 논리평면 인문논술 '작품' 원고지										이름			
대학교			학년도			기출 / 모의				계열		번 문제	
개 요													
문장 기능		해당 내용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350												
	375												
	400												
	425												
	450												
	475												
	500												
	525												
	550												
	575												
	600												

☞ (가), (나)를 활용하여 ㉠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서술하고, 이 중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을 적용하여 서술하시오. (600자, 50점)

[독해]

- (가) 중앙집권적 권력 → 무질서의 폐해(위험) 방지
- (나) 중앙집권적 권력 - 독재 → 국민의 자유·권리 억압
- (다) 공진화 -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 발전

[논리평면] 조건부 요약(생략), 대안

기능	제시문	전제	결론
기준	(다)	공진화 -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발전
대상	독재	국가 권력과 사회 간의 경쟁적 대응	질서 잡힌 국가

[예시답안] 652자

문단	기능	내용
1	요약 핵심	무질서의 극심한 폐해를 강력한 권력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요약 상술	제시문 (가)의 흡스가 말하듯, 중앙집권적 권력이 부재한 역사는 온통 크고 작은 전쟁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강력한 권력 ‘리바이어던’을 세워 이기적 개인들의 횡포를 저지하기로 했다.
2	요약 핵심	하지만 이러한 권력은 독재로 변질되어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기 십상이다.
	요약 상술	제시문 (나)에서 제시되듯, 희대의 독재자 길가메시를 저지하기 위해 그이 도플갱어인 엔키두를 보냈으나, 결국 그 둘이 연합하여 절대적 권력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3	주장	권력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려면 상대에 대한 기민한 견제가 필요하다.
	기준 핵심	상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 상술	제시문 (다)에 나타난 ‘레드 퀸’은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키기라도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대를 넘어서려면 훨씬 더 극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적용	이처럼, 중앙집권적 권력이 독재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권력에 대응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가 균형 잡힌 질서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적 견제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권력의 부작용을 체험할 수는 있어도, 끊임없이 권력을 견제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결국 나라 전체에 안정적 질서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출제의도]

중앙집권적 국가 권력은 국가 구성원을 무질서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순기능을 갖지만, 동시에 권력이 견제를 받지 않고 비대해질 경우 폭압적이고 독재적인 통치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번 상경계 모의논술은 제시된 자료로부터 국가 권력의 이러한 상반된 두 측면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이다. 제시문 (가)~(다)는 모두 애쓰모글루, 로빈슨 저 『좁은 회랑』에서 발췌하여 변형한 것으로, (가)는 중앙집권적 권력의 부재 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나)는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강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다)는 소설에 등장하는 대화로부터 유래한 ‘레드 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다) 모두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다.

이 문제에서는 먼저 (가)와 (나)로부터 각각 중앙집권적 권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파악하여 서술해야 하며, 다음으로 (다)에 등장한 ‘레드 퀸 효과’의 긍정적 의미를 (가), (나)의 맥락에 적용하여 국가 권력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균형 잡힌 국가 권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문제의 첫 번째 항목은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국가 권력의 각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으며, 두 번째 항목은 제시된 개념을 중앙집권적 권력이라는 맥락에 적용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구성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대학 채점기준]

1.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가), (나)에 나타난 중앙집권적 권력의 두 측면을 파악하여 서술하는 내용(전반부 300자 내외)과, (다)를 이용하여 중앙집권적 권력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용(후반부 300자 내외)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 서술		10%
내용 이해와 분석	(가), (나)에 나타난 긍정적·부정적 측면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부터 중앙집권적 권력이 폭력과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는 순기능을 가짐을 파악 • (나)로부터 중앙집권적 권력이 견제를 받지 않고 비대해질 경우 독재적 권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음을 파악 	40%
	(다)를 (가), (나)의 맥락에 적용하여 해결책 도출	긍정적 ‘레드 퀸 효과’를 중앙집권적 권력의 맥락에 적용하여, 국가와 사회가 건전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경쟁할 때 균형 잡힌 국가 권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설명	40%
논리와 표현	설명 내용의 정확성과 정합성, 문장 간의 논리적 긴밀성, 자신의 언어로 전환한 표현		10%

2.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B) 상-중-하	(C) 상-중-하	(F)
평가 내용	<p>① (가)로부터 국가 권력의 긍정적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p> <p>② (나)로부터 국가 권력의 부정적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p> <p>③ (다)의 내용을 (가), (나)의 맥락에 적용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하였다.</p>	<p>①~③ 중 두 가지 사항은 충분히 만족하였으나 나머지만 한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함(특히 ③이 주요 채점 포인트임).</p>	<p>①~③ 중 한 가지 사항은 만족하였으나 두 가지 사항이 다소 미흡함.</p>	<p>- 논지와 상관없이 피상적인 서술에 그친 경우.</p> <p>- 300자 미만</p>

3.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분량		원고지 사용법·어문 규정	
550자 이상 650자 이내	감점 없음	상(0-1개 틀림)	감점 없음
650자 초과	-2점		
500자 이상 550자 미만	-2점	중(2-5개 틀림)	-1 ~ -2점
450자 이상 500자 미만	-4점		
400자 이상 450자 미만	-6점		
350자 이상 400자 미만	-8점	하(6개 이상 틀림)	-3 ~ -5점
300자 이상 350자 미만	-10점		
300자 미만	-15점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 내의 형식적·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점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임.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만 반영함.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대학 우수답안(1)] 602자

강력한 권력은 사람들 사이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무질서한 사회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시켰다. 자신의 이득을 최고로 여겨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던 인간들이,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해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은 사람들에게 새롭지만 무엇보다 강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강력한 권력은 질서를 부여해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간의 공포를 줄임으로써 다른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득을 최대로 취하기 위해 그 강력한 권력에 복종하고 따름으로써 사회는 안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길가메시와 엔키두처럼 통제되지 않는 강력한 권력은 독재로 변질되어 그 사회에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견제하며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잘못된 권력에는 대항할 수도 있어야 하고, 권력은 사회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가 권력에 대항하여 견제하고, 권력이 사회를 견제하며 통제할 때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견제하며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 견제 없이 복종 또는 무질서만 있을 때,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

[대학 우수답안(2)] 555자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ㄱ의 긍정적인 측면은 생명을 위협받는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절대적 권력자의 통치 아래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독재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를 보면 길가메시의 강력한 힘에 고통받는 모습과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내세운 또다른 권력자가 같이 공모하여 독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권력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남용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레드 퀸 효과처럼 강력한 권력인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사회가 협력해서 힘을 키우고 함께 달리며 우위를 차지하는 쪽이 없게 하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의 협력만이 가능하다. 정치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리바이어던이 존재하되 사회를 제압할 수 없고, 시민들 또한 리바이어던을 제압할 수 없다. 이를 통해 리바이어던의 긍정적인 측면인 국가의 통제와 보호를 유지하면서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